

발간등록번호 : 인천교육-2014-0112

인천교육

2014 Vol.50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Incheon Education & Science Research Institute

행복교육을 위한 동행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영숙

한여름의 무더위로 서서히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한낮이 되면 조용하던 연구원이 아이들의 조잘거림으로 가득해진다. 과학관에 체험학습을 온 아이들이 연구원 로비 식물원을 둘러보면서 내는 소리이다. 무더위에 마시는 청량제와 같은 그 소리에 조용한 연구원이 활기를 찾는다. 행복한 미소를 보내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한 조건들을 생각해 본다. 본질을 찾아가는 교육, 원칙이 살아있는 교육, 조화로운 교육, 이것들을 필자는 행복교육을 위한 <동행자>라 부르고 싶다.

본질을 찾아가는 교육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는 ‘수업 내용과 질 개선(46.1%), 친절한 학생 상담(23.8%)’이며 교육 만족도는 ‘보통’ 이하의 평점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열정적인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의 교육 현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극심한 경쟁과 시험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가정불화에 불안한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로 불안한 교육현장을 종종 목격한다. 더구나 새로운 시대정신이 부재한 사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이지만 교육을 통해 희망을 발견 한다.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는 행복한 사회, 그 힘은 바로 교육에 있다.

교육은 그 누구도 아닌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교육정책 입안에서 교실 수업까지 중심에는 늘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와 교실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원칙이 있는 교육

지난 4월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건의 아픈 기억은 교육현장에도 큰 교훈으로 다가왔다. 선주의 비도덕적 경영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심을 두는 사고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사람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대형사건 하나가 발생하는 것은 그 이전에 경미한 사고가 29개 발생하고, 징후 조짐이 300개 정도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의 의미를 교훈삼아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원칙에 맞게 생각하고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멀리 갈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결과보다는 과정 하나하나에 충실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는 책임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작은 것도 소중히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칙이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까?

조화로운 교육

한 개인이 훌륭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교육, 아이들의 정서와 관점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구성원들과 대화하고 토의하면서 발전적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 세계 시민으로서 보다 넓은 안목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몸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교육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는 교육은 불균형을 초래하고 만다. 따라서 배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배우면서 동시에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교육, 그것이 조화로운 교육이 아닐까?

교육은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를 신뢰할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비록 교육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주체는 바로 우리 교육자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과 바늘이 늘 함께 하듯이 교육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교육의 ‘본질, 원칙, 조화’와 동행할 때 아이들의 미소가 번지는 행복한 교육현장이 되리라 믿는다.

인천 교육이 분주하게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번지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천교육 제50호는 행복교육을 위해 변화하는 인천교육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행복 교육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학교문화개선〉을 기획특집으로 선정하여 학교 문화에 대한 개념과 방향성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행복 교육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열정과 교육애를 찾으려 하였고, 변화하는 인천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인천 교육 제50호가 교육 현장에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소중한 글을 주신 집필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CONTENTS



파워인터뷰

- 6 이청연 신임 인천광역시교육감
- 12 나근형 前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시론

- 17 행복한 학교,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 | 서울대학교 교수 진동섭
- 24 변화의 시대, 교육의 변화 어떻게 할 것인가?
 - | 인하대학교 교수 정기섭

기획특집 -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 30 좋은 학교의 디자인
 - | 경남대학교 교수 김성열
- 38 창의경영학교 포럼에서 찾은 ‘좋은 학교’의 길
 - | 충남대학교 교수 박수정
- 43 21세기 교육혁명 – 새로운 수업을 만드는 사람들
『거꾸로교실』 정찬필 KBS PD를 만나다
- 51 ‘집합적 리더십’에 의한 학교 운영사례
 - | 이우중·고등학교 교장 이수광
- 58 Specialist, Humanist, Romantist의 꿈을 키우는 행복학교 스토리
 - | 인천청량초등학교 교장 이기소

인천교육 정책의 이해

-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인천교육의 변화

- 66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에 대한 문화적 추진전략
 - |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정책팀
대표집필 : 전문위원 김창진(인천석남초 교사)
- 77 교실수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창의·인성교육 실현 방안
 - |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장 김윤성
- 84 미래 핵심역량 육성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 개선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장 김성기
- 92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른 국제화교육
 -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윤국

교육현안과제 진단

- 100 원도심 지역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
 -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배은주
- 108 스마트교육의 이해와 추진 과제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본부장 김진숙

현장르포

- 117 원도심 지역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
-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를 가다
 - | 인천불로초등학교 교사 윤 정

변화하는 인천

- 121 인천문화예술지원센터를 찾아서
 - | 인천글포초등학교 교사 이영실
- 126 아라뱃길과 정서진,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답사하며
 - | 인천청일초등학교 교사 이홍순

인천교육에 바란다

- 131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꿈꾸며
| 인천신송초등학교 학부모 이지연
- 133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를 기대하며
|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 조순석
- 135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 인천가좌고등학교 학부모 박홍연

생생, 톡톡 교육활동

- 140 따뜻하게 생각하고 슬기롭게 생활하는 건강한 자립인
| 미추홀학교 교장 박인호
- 144 正閣, 인문학으로 행복 학교의 길을 찾다
| 인천정각초등학교 교장 이행자
- 150 '세계 제페!' 기술 명품학교로 도약하다.
|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김창율
- 154 교과교실제를 통한 수업개선 방안
|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최성희
- 158 더불어 함께! 가르침의 보람과 배움의 기쁨!!
| 신흥중학교 교사 한성준
- 165 꿈·긍지·신뢰를 주는 행복한 학교
| 대청중·고등학교 교장 송용배
- 172 호형호제하며 하하호호, 우리는 소래 한가족
| 인천소래초등학교 교사 문진선
- 176 행복한 재능기부,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 인천심곡초등학교 교사 정영찬
- 180 삶을 UP! 시키는 스위치
|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최은정
- 184 생각의 숲! 사랑의 울타리!
| 청라유치원 원장 윤석가
- 192 장애인, 아기맘,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어르신을 위한
무료택배 대출서비스
|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사서 박경애

참여와 어울림

- 196 시 - '유월' 外
|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최기석
- 198 미술활동을 통한 소통으로 함께 행복해지기
| 인천내부초등학교 교사 최재향
- 201 교육자가 가야할 길
| 백령중·고등학교 교장 윤현상
- 206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 인천원당초등학교 교사 김주호
- 208 제12회 인·예·전
|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 김혜선, 박정기, 김준식, 이군우, 이철희, 이승수, 이정열, 조영진

현장메아리 - 인천교육 49호를 읽고

- 212 시원한 샘물처럼
| 영흥초등학교 교사 김명선
- 214 나를 행동하게 하는 힘, 「인천교육」
| 인천논현고등학교 교사 변주란
- 216 내 눈과 마음속의 「인천교육」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조명철

편집후기





POWER INTERVIEW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 일시 : 2014. 7. 9(수) 오후 3시
- 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
- 인터뷰 교사 : 김병수(인천용마초),
배수아(인천산곡고)

이청연 신임 인천광역시교육감



Q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에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에 취임하고 일주일이 지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일주일이 지났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난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인천교육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고 싶은 열망이 주는 무거움입니다.

Q 교육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으로 인천교육의 지표를 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천교육의 지향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감과 협력의 가치를 체득해야 합니다. 남을 이기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돋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 가치 이상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민주시민’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키우려면 수업도 자연스럽게 협력수업 중심으로 바뀌고 학생 자치활동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고 활발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처럼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 교육감님께서는 역점사업으로 '교원업무경감을 통한 수업 중심 학교문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원업무경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교원업무가 늘어나는 이유는 교육부나 시교육청의 새로운 정책사업은 계속 발생하는데 줄어드는 사업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존 정책사업을 재검토해서 줄여나갈 것입니다. 학교간 경쟁유발로 교사를 피로하게 만드는 학교평가도 대폭 개선할 것입니다. 각종 연구학교, 선도학교도 너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교무행정사’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감부터 교육장, 학교장이 교사 업무경감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Q 7월 13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의 좌석이 부족하여 많은 이들이 서서 들을 정도로 뜨거웠던 ‘인천형 혁신학교 만들기의 올바른 이해’ 연수를 시작으로 인천형 혁신학교 추진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이미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의 차별화 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A 혁신학교는 이미 만들어져있는 고정된 모델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혁신학교 선도기관인 경기도를 보면 10개 혁신학교가 각각 10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중점 과제 중에 하나인 ‘창의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혁신학교에서 먼저 일어나도록 권장할 생각입니다.

Q 교육감님은 ‘창의·공감 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미래형 학력’의 정의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앞서 말한 ‘창의성’과 ‘공감능력’, ‘협력하는 능력’이 미래형 학력, 선진국형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한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교육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정답을 골라내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잘 공감하고 협력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과정은 그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 방식입니다. 이런 능력은 100점 만점의 시험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변화에 맞게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만이라도 중간 기말고사 100점 만점의 일제형 시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도 검토해서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획일적으로 우리 인천의 모든 학교를 동시에 바꾸진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안도 획일적인 것은 부작용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Q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 특목고 추가 설립을 억제하고 일반고 지원 강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일반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일반고에 진로집중과정 개설을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대비한 시뮬레이션 맞춤형 입시전략을 세우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지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시교육청 학력증진팀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10대 선도학교처럼 몇몇 학교에 치우친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Q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해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점 교육정책으로 제시하신 ‘안전하고 평화로운 행복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순회형 ‘학교안전관리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학교 안전관리를 도맡는 분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 안전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발달 단계별로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교재도 생각중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이제 처벌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더 나아가 인권 평화교육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폭력대화 교육, 감정코칭, 인권감수성 키우기가 제도권 바깥에서 먼저 시작되어 효과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을 맡으실 선생님들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Q 최근 인천교육 현장에도 ‘거꾸로 교실’, ‘배움의 공동체’ 등 수업을 바꾸어 보려는 교사들의 자율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실로부터 시작된 변화 움직임이기에 매우 기대가 큽니다.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교사들의 이런 노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A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운영될 혁신학교는 4년간 40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학교들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학교혁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혁신이라는 큰 주제를 실천할 혁신 학교형과 작은 단위에서 혁신학교 운동을 실천할 혁신 학년형, 혁신 동아리형의 운영을 동시에 진행하여 임기말에는 절반이상의 학교가 혁신교육에 동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지역에서 교육평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혁신지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오기도 하였습니다. 경기 광명 등에서 성공한 사례를 인천에 맞게 다듬어 실행하겠습니다.

Q 학교 현장의 살아있는 ‘생생한 소리’를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신지요?

A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제도로는 ‘청소년 원탁토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 주제를 SNS로 공모하고 토론 참여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도 행정형에서 소통형으로 점차 개편할 것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주제를 정해서 청취하는 제도를 구상중입니다.

직접 제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월요일은 초등학교, 금요일 저녁에는 고등학교를 찾아 격려방문하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방문한다고 미리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찾아간다고 퇴근도 못하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는 이유 아시죠? 하루 전에 알려도 학교 장부터 초등 1학년생들까지 준비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지 맙시다. 지도·감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사하고 학교 현장을 잊지 않고 교육행정을 추진하려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Q 오랜 기간 인천 교육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십니까?

A 시교육청 첫 직원회의에서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육청 직원을 섬길 테니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학교를 섬겨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안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교육감이나 교육청에게 끌려 다닙니다. 대신 다양하면서도 자발적인 변화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주된 고민입니다.

혁신의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학생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씩씩하고 당당하게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각자 선 자리에서 새로운 걸 꿈꾸고 바꾸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교육행정, 여러분을 돋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이청연 교육감의 약속

- 1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2 선진국형 학력신장으로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3 교육비 부담
뚝 떨어뜨리겠습니다.
- 4 혁신학교와 교육혁신
지구로 인천교육을
확 바꾸겠습니다.
- 5 차별없이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6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7 시민이 주인되는
교육행정을
만들겠습니다.



새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새'라는 말을 가르쳐주면
아이는 더 이상 새를 보지 않고,

말을 아는 것을 가지고 새에 대해 알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새를 보지 않는다.

- 크리슈나무르티





POWER INTERVIEW

나근형 前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난 6월 10일 2001년, 2005년 간선제 교육감에 이어 2010년 주민직선제 1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마치는 나근형 전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

Q 1964년 김포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로 교육활동을 시작하신 이후로 교감, 교장, 장학사, 중등교육과장, 교육국장, 교육감 등을 거치며 2014년까지 50년간 학생 교육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A 미래는 ‘평생교육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데 있어 인생 전체를 보고 설계했으면 합니다. 기초를 잘 세워 계단을 올라가듯이 단계별로 실천하다 보면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있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학습하는 습관을 기르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2001년과 2005년 간선제 교육감에 이어, 2010년 주민직선 제1대교육감으로 부임하셔서 ‘3선 교육감’으로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난 12년간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 전반에 걸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셨는데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A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2010년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교육지표를 정하고 인천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해 인천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한 분야는 인성과 학력이었습니다. 효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과 학업성취목표관리,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력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국가 학업성취도평가 최상위권, 기초학력 미달 감소율 전국 2위, 특성화고 전국 취업률 1위, 교과부 주관 ‘전국 Wee 희망 대상’ 전 부분을 석권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인천교육연수원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기침체와 교육재정의 악화 등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쓴 인천 시민과 교육가족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태도, 품성을 배양시키는 교육’이 인성교육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효(孝)교육입니다.

Q 아쉬웠던 부분으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A 교육은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1·2 등급 비율이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고, 교육청의 청렴도도 하위권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평가나 심사에서 나온 결과로 그동안의 성과를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양한 개선방안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있고,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2010년도에는 주민직선 1기 전반기 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되셔서 인천뿐 아니라 다른 시도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인천교육만이 가진 우수한 점은 무엇입니까?

A 인천은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에 근접해 있어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천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인천교육 역시 이러한 특성을 살린 다문화교육, 국제화교육 정책 등이 잘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큰 희망을 만드는 인천교육,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 인천’이 되도록 인천의 특성을 찾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인천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습니까?

A 인천은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잦은 곳입니다. 그러나 보니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인천교육사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 아시안게임, 국제화특구 지정, 원도심 개발 등 인천 변화에 발맞추어 보다 다양하고 실천적인 교육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Q 교육감님은 평소 효행을 강조하고, 108세로 어머니께서 작고하실 때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효”를 강조하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학교폭력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학교 폭력은 인성과 매우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태도, 품성을 배양시키는 교육’이 인성교육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효(孝)교육입니다. 효를 실천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화합할 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인성교육 차원에서 ‘효’ 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Q 50여 년 동안 인천교육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으셨을텐데 그럴 때마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었던 힘은 무엇인가요?

A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책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슴을 턱 트이게 하는 유머, 인생을 바꾸는 말, 성공적인 삶을 위한 전략, 따뜻한 배려의 말 등 책을 읽으며 생각을 모으고 정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Q 임기를 마치고 교육계를 떠나는 심정은 어떠신지요?

A 훌가분합니다. 인천교육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낄 때도 많았고, 여러 가지 교육적 난제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천 시민과 교육 가족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수장을 맡은 교육감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잘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A 교육은 교육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칭찬도 듣고,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전화도 받고, 때로는 투서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에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천교육의 앞날에 힘찬 응원도 함께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사로 시작해 교육감까지 평생을 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인천교육을 위해 늘 고민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계획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책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 교육시론

교육시론

행복한 학교,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 서울대학교 교수 진동섭

변화의 시대, 교육의 변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인하대학교 교수, 교양교육원장 정기섭





행복한 학교,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서울대학교 교수

진동섭

1. 들어가는 말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교육학회는 고려대학교에서 연차학술대회를 열었다. 주제는 “창조사회에서의 행복교육”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교육 목표를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학생의 행복은 모든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교육학회가 행복교육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과제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은 시의 적절했다고 본다. 학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학문적 관점이 다양하고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나 주장이 한가지로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그랬다. 행복교육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었고, 행복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행복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행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행복교육이 정부의 교육 목표로 작동하려면, 개념적으로 더 명료하게 정의되고 구조화 되어야 한다. 행복교육은 개념상으로 보면 우선 학생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교육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행복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복교육이 지식 위주의 교육과 높은 학업 성적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두 번째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행복교육을 굳이 좁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일선 학교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의 방향감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목표가 되려면, 의미만큼은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행복교육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든지간에 그것은 일선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구성원들에 의해 실천된다. 따라서 행복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일선 학교가 행복해져야 한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이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의미하듯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을 위시해서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이 행복한 학교를 말한다. 그렇다면, 구성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 요인들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학교문화 요인을 들 수 있다. 즉, 단위학교의 문화가 학교구성원들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 성향, 그리고 규범을 말한다. 학교문화는 조직문화의 일종으로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라는 조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경영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소중한, 혹은 기대하는 가치, 신념, 성향 및 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학교문화는 학교마다 구성원들이 학교 교육과 경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를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학교의 문화는 학교마다 차별성이 있고, 특성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건강한’ 학교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교의 구성원들의 행복감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구성원들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 글에서는 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건강한 학교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2. 학교문화의 의미와 중요성

가. 조직 문화의 개념과 의미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 성향 그리고 규범 등을 의미한다. 문화의 특징은 공식적인 것이 기보다는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정체성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문화는 사회의 특성과 특징을 규정한다.

문화는 사회적 문화와 조직 문화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성향 및 규범을 말한다. 조직 문화는 학교, 기업, 군대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만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은 여러 개의 하위 조직들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들 하위 조직 구성원 역시 나름대로 문화를 가질 수 있다.

조직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는 사회적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직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가치와 신념에 초점을 둔다. 개개인의 가치와 신념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는, 즉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들이 하는 행동과 태도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지지하거나 강화하기도 한다. 같은 가치와 신념을 갖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상호작용을 하면 그것은 규범으로 발전한다. 조직구성원들에게 있어 조직문화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성도 느낄 수 없고 모를 수 있다.

나. 학교문화의 의미

학교문화는 단위 학교조직의 문화를 말한다.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행정직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주민 대표들로 구성된다. 학교조직의 구성원을 학생과 교직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주민 대표까지 학교의 공식적 구성원으로 인정한 제도는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 위원과 지역주민 위원이 포함된다.

학교문화는 학교 조직의 문화이다. 학교라는 조직이 수행하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교육이다. 따라서 학교구성원들은 이상적인 교육은 무엇인가, 그런 교육을 위해서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훌륭한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바람직한 학생상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서 나름대로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유치원부터 외국인학교까지 계산

하면 900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학교의 교육과 경영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학교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기대가 똑 같아서 합의도가 높고, 어떤 학교는 구성원들의 그것이 서로 달라서 합의도가 아주 낮을 수 있다. 전자는 강한 학교문화를 갖고 있다고 하고, 후자는 약한 학교문화를 갖고 있다고 표현한다. 강한 학교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전통이 오래된 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학생 선발권이 높은 학교일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학교문화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구성원들이 가치나 신념을 공유하는 정도 혹은 합치도 역시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학교문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학교 교육과 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일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교육과 경영의 초점을 그것에 맞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임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초점을 두어 학교를 경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커다란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장과 교사들은 그들대로,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그들대로 학교에 대해 행복해 하지 못할 것이다.

문화가 강한 학교보다는 약한 학교의 구성원들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다. 학생, 교사, 교장,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과 학교 경영의 방향이 다르면, 학교라는 배가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집단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 모두가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이 학교문화는 학교 교육과 경영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3. 행복한 학교

행복한 학교는 학교공동체구성원이 학교의 교육과 경영에 대해 만족하면서 더 큰 발전을 위해 배려하고 헌신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교 교육과 경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은 학교마다 다르고, 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학교구성원마다 다르며, 구성원들이 학교의 무엇에 대해 행복해 하는지 역시 학교마다 다를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공동체적 속성에 착안해서 행복한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학교는 공동체다. 학생과 교원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직원,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체다. 교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가 집단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수혜자이면서 교육에 관한 비전문가 집단이다. 지역사회주민은 학교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원자이면서 동시에 이해당사자다. 행정직원은 학교 경영과 교육을 지원하는 집단이다. 이와 같이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지위, 입장, 이해가 서로 다른 집단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교육과 경영에 대한 가치와 신념 그리고 기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집단 내에서도 그것들이 다를 수 있다. 학생들 안에서도 학교나 교사들에 대한 요구가 다르고, 교사들 안에서도 바람직한 학교 경영과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학교라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는 학교관(學校觀)이 바뀌어야 존재할 수 있다. 학교를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고 보는 관점에서 ‘구성원들이 다양한 삶을 사는 터전’이라는 관점으로 변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역할이 확연하게 구분되면

이들 간의 위상이나 권위에 차이가 생기고 역할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행복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나타난다. 반면, 학교는 학생을 위시해서 구성원들이 일정 시간과 기간 동안 함께 사는 터전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의 한 형태로 보며, 구성원 각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배려하면서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장소로 생각하면, 역할·위상·권위의 분명한 구분과 고착은 일어나지 않고, 다른 구성원에 대한 기대 역시 다양하고 유연해지고, 구성원들은 각자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특정 경험을 한 후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상태다. 그것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되고 다수가 공유할 수 있다. 행복감은 일에 대한 성취감으로부터 올 수 있고, 인간관계의 따뜻함에서 느낄 수 있고, 예술적 종교적 체험으로부터 올 수 있다. 행복한 학교는 구성원들이 이상과 같이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도록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학교라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는 학교관(學校觀)이 바뀌어야 존재할 수 있다.
학교를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고 보는 관점에서 ‘구성원들이 다양한 삶을 사는 터전’이라는 관점으로 변해야 한다.

4. 건강한 학교문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사람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건강한 정신이 삶의 의욕과 활력을 만든다. 삶의 의욕이 없고 활력이 없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다.

건강한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다. 신체적으로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장기, 골격, 그리고 근육이 잘 발달해서 원활하게 기능하고, 내외 순환이 원활하고, 이들이 외부 자극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다. 동시에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건강한 문화를 건강한 사람의 특징에 비유할 수 있다. 즉, 건강한 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그것의 달성을 위해 분명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직 환경의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적응하는 문화를 말한다. 건강한 학교문화는 학교 안에 형성된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문화를 말한다.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구성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조직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고, 눈앞의 작은 이익의 추구에 몰두하고, 조직 외부의 일보다는 내부의 일에 관심이 크고, 구성원들 간에 분열과 갈등이 잦다.

건강한 학교문화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첫째, 건강한 학교문화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문화다. 이것은 특히 지적, 정의적, 신체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학생 집단과 성인 집단인 교원 및 학부모 집단이 한 조직에서 밀도 있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한 가치다. 물론 교육에 관한 전문가인 교원 집단과 비전문가인 학부모 집단이 학교에서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둘째, 건강한 학교문화에서 강조되어야 할 가치는 구성

원들의 가치와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하고, 조정과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다. 문화의 요체는 가치와 신념 등을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다. 교사와 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표현하지 못하고, 학부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표현하지 못하고, 학생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나와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양보를 한다든지 합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셋째, 건강한 학교문화는 특정 가치나 신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공유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다. 한 학생의 교육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교사들이 수행하는 활동이고 그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에 관한 가치와 신념을 학교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효과적 효율적으로 공유하게 되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공유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넷째, 건강한 학교문화는 기존의 가치와 신념을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보다는 교육 환경과 학교의 여건이 변함에 따라 적절하게 변하는 문화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의 활동이다. 교사들의 문화도 보수적 현재주의적이다. 학교 역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린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교육과 학교는 커다란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기존의 문화를 고수만 할 수는 없다. 사회 및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괴리된 학교 조직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학교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 역시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건강한 학교문화는 학교조직의 본질적 목표에 비추어 타당한 문화다. 학교문화가 구성원들이 합의한 가치와 신념이라고 해서,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공유하고 있

는 가치와 신념 모두가 건강한 학교문화라고 할 수 없다.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성장과 발전 그리고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 함양 등과 같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가치는 아무리 그것이 학교조직구성원들이 합의했다고 해도 건강한 문화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강한 학교문화일 수는 있지만, 건강한 학교문화로 보기에는 어렵다.



5. 건강한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과제

가. 교장 역할의 중요성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건강한 학교문화를 창조하는 데에는 우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도자는 조직의 핵심적인 가치와 신념을 조직 내에서 그리고 조직 밖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리고, 해석하고, 소통하는 일에 있어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고, 그것은 지도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학교 조직의 경우 공식적 지도자는 교장이다. 교장은 단위학교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가장 커다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띠는 존재이다. 따

라서 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경영과 교육에 관한 가치나 신념은 다른 구성원의 그것보다 훨씬 쉽게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런데 교장의 가치와 신념은 그대로 학교문화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이 수용하고 합의해야 한다. 교장이 교장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교사를 위시한 다른 구성원들에게 특정 가치와 신념을 수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모간(Morgan)이라는 학자는 ‘이념적 통제’ 혹은 ‘조작’이라고 규정했다(1997). 그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을 건강한 문화라고 볼 수 없다.

어떻든 학교문화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데 교장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다. 교장의 이러한 역할을 서지오반니(Sergiovanni)는 상징적 지도성 그리고 문화적 지도성에서 찾는다(1984). 상징적 지도성은 학교구성원들의 관심을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시키는 능력에 기반을 둔 영향력이다.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선택해서 관심을 보임으로써 이들의 행동에 방향감을 제시하고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식시킬 수 있다. 문화적 지도성은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중요한 가치와 신념을 강화하고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체계적 조직적 학교문화 변화 및 창조

학교문화를 변화시키거나 창조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조직의 고위층이나 지도자들만의 노력과 역량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조직 구성원 대부분의 가치나 신념 그리고 태도는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화에 저항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하려면,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행정직원

등과 같이 학교 경영의 책임을 교장과 공유하는 사람들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교문화 변화 혹은 창조 작업은 현재의 문화에 대한 객관적 진단으로부터 시작한다.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공기와 같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잘 포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진단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하도록 하는 것 이 좋다.

학교문화의 진단이 끝나면 새로운 문화를 탐색하고 설정한다. 이 단계에서 구성원들을 가능한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장의 가치나 신념은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자료의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학교가 새롭게 개발하려는 문화가 될 수는 없다.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문화의 내용이 설정되면, 그것을 학교에 전파하고 정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딜(Deal)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한다(1985). 학교의 전통과 역사를 정리해서 문서로 만든다. 학교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와 신념을 구현한 학생이나 교사 혹은 졸업생을 선정해서 표창한다. 학교의 각종 행사와 의식을 새로운 학교문화 전파의 기회로 활용한다.

일정 기간 새로운 학교문화를 정립하려는 노력을 한 후 구성원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교장의 의지와 실행 정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참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건강한 학교문화 창조를 제약하는 요인 개선

학교 조직은 구성원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각각 6년, 3년, 3년이면 졸업한다. 학부모들도 같은 기간이 지나면 해당 학교의 구성원의 지위를 벗어난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순환근무제로 인해 대략 4년 근무를 하면 전근을 가기 때문에, 매년 25-30% 정도의 교사들이 나가고 들어온다. 교장의 특정 학교 재임기간은 훨씬 더 짧다. 이것은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특성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따라서 학교문화의 안정성이라든지 변화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준다. (물론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직원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와 같이 교사 순환근무제와 교장의 짧은 임기는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학교문화를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와이(Weick)은 학교 조직을 관료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라고 규정했다(1975). 학교조직의 기본 단위는 학급이고, 이것은 교사가 전담하는 공간이다. 교실에서 가장 핵심적 일을 수행하는 교사들은 상호간에 그리고 교사와 교장 간에 존재하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크고, 이것은 이들 간의 권한과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즉, 교사들은 교장과 학부모들과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서 이들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과 경영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교사와 교장이 공유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측면과 동시에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학교는 위계적인 교육행정조직 속에서 말단 조직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학교는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부를 상급기관으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 성격이 아주 강하다. 말단 교육행정기관인 일선 학교는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지시, 명령, 통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점차 권한이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이양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권한은 여전히 아주 작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문화를 설정해서 창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정책과 제도가 그것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의 확대 실시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 성격이 아주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문화를 설정해서 창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정책과 제도가 그것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의 확대 실시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변화의 시대, 교육의 변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인하대학교 교수,
교양교육원장

정기섭

왜 가르치고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정신적 가치보다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 것이
점수를 획득하는데
더 효율적인가 하는
수단적 가치가 지배하는
학교현실에서 교사와
학생은 각자의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기력,
학교부적응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경계 허물기’의 시대

미래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늘 존재하지만, 도래할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기란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다. 아무리 예측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수많은 돌발적 요소까지 일련의 법칙에 의하여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래를 진단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는 상상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를 특징짓는 낯선 용어들이 탄생하고, 그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하여 어느 순간부터는 친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미래를 예전하는 학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21세기 사회 변화의 특징을 ‘정보화’, ‘지구화’로 표현하였고, 이러한 특징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원하는 원하지 않던 전 지구적 관계망에 의하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대한 삶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늘날을 정보화 시대로 특징짓는 것은 정보가 경제의 중심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원을 기반으로 하던 산업사회 경제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의 토대가 되는 자원을 누군가가 소유하면 다른 사람은 가질 수가 없었지만,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는 인터넷에서 쉽게 수집되고 생산되고 유통된다. 정보는 복사 가능하고 계속해서 누구에게나 유통되고 저장될 수 있음으로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는 큰 경쟁력이 없다. 물론 정보수집에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던 시대에는 정보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경제력과 권력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에는 그랬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서는 정보의 소유가 예전처럼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널려있는 정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걸려진 정보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즉, 걸려진 정보는 기존의 정보가 분석되고 종합되어 생산된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 있는 정보, 아이디어인 것이다.

이처럼 경쟁력 있는 정보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배경에는 타인과 구별되는 새로운 제품을 소유하고 싶은 소비자의 개인적인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남들과 똑같은 제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편리한 색다른 제품을 선호한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생산해야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로부터 지식,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화가 등장하고 발전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휴대폰 하나를 제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분야의 공학들과 기술들의 융합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왜 지식 및 기술영역간의 경계 허물기가 강조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교육받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정보의 흥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 수집된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이다.

오늘날을 지구화 시대라고 언급하는 것은 지구상의 인간들 서로가 의식적으로 공유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인류 공존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교통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인간들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면서 인간의 의식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지금 여기 나의 문제가 지금 여기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뜻날 다른 곳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상호 연결된 사고를 강화하면서, 핵무기, 빙곤, 환경오염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화는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여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로 묶이는 갈등 없는 지구촌 건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에게는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생활태도의 변

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대 간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세계 10년으로 공포하였다. 이렇게 지구화는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뛰어 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교육받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정능력,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지구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교육의 자화상

우리의 학교교육은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능력들을 기르고 있는가?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학교의 붕괴를 걱정하는 것은 그 심각성이 일정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과도한 경쟁의식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대학입시에 매몰된 학교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은 그의 발달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자신의 발달 가능성을 시험해 보지도 못한 채 성인의 세계에 진입하고 있다. 왜 가르치고 왜 배워야하는지에 대한 정신적 가치보다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 것이 점수를 획득하는데 더 효율적인가 하는 수단적 가치가 지배하는 학교현실에서 교사와 학생은 각자의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기력, 학교부적응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대학입시교육의 폐해는 학벌사회의 고착화, 사교육비의 부담 과중, 이기적 경쟁주의의 심화, 계층간 교육격차 심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수요자 중심교육’, ‘열린교육’, ‘새학교 문화창조’에 이어 최근에는 창의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유학기제 등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교육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시행되었고,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넓은 의미에서 기존의 학교문화가 변화하고 달라져야 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시위주의 과도한 경쟁적 학교문화가 지배적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힘들게 일만 많이 하고, 의도한 결과는 성취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은 교사에게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에서 소통능력과 상담능력, 갈등해결능력과 갈등중재능력을 갖춘 인간적인 조력자로서의 교사 역할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학부모에게 있어서 교육의 결과는 시험점수이고, 우수한 학교는 좋은 대학(상급학교)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학교라는 현실인식이 지배적이다. 외면하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직면해서 교사들은 새로운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인식하면서도 전통적인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 역할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런 저런 새로운 학교교육정책들이 시행되더라도 학교 밖의 현실적인 요구에 직면하여 교사들은 어느 것 하나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매년 동일한 장소에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학생들에게 교통사고 조심해야 한다고 훈계만 할 뿐 도로의 구조적인 결함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다. 물론 도로만 개선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행자도 함께 주의하는 노력 을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좀 더 현실에 맞게 충분

하게 연구·검토되어 논리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시범학교를 통하여 그 성과를 검증하고 보완한 후에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해도, 학생 개인이 자신과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세계상을 형성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교육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많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머리에 채우기만 하던 당시의 학교생활을 회고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위장에 고기를 가득 채운다 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없다면 대체 무슨 소용인가? 우리 안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학력과 경쟁력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학력 신장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기존의 학력 관은 교과교육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성취했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측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살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평가에서 학력의 평가 기준은 지필고사 결과 점수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달려있다. 점수가 높으면 학력이 높고, 점수가 낮으면 학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학력을 교육의 결과라고 보면, 학력



이 점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력이 점수만을 의미한다면, 학교는 점수경쟁의 장소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기에 습득해야하는 기본적인 덕목들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가 요구하는 능력은 점수가 아니라, 역량이다. 그러므로 학력에는 21세기가 요구하는 능력들(역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역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겠지만,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핵심역량으로 의사소통능력(상호작용에서 매개수단을 활용하는 능력), 협동 및 사회성 능력(이질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 자기규제능력(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계획, 학습, 실천능력)을 제시하였다. UNESCO도 21세기 교육의 방향을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교육(앎을 위한 교육), 환경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을 기르는 체험교육(실천을 위한 교육), 타인과 함께 하는 참여와 협력의 교육(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 자율성, 판단력, 책임감을 갖고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을 완성해 주는 교육(존재를 위한 교육)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는 교육을 통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능력들을 습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능력들은 학생이 일방적인 지식의 소비자 역할에 머물렀을 때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생산자의 역할이 주어질 때 체득될 수 있는 것이다. 수업에 수동적으로 출석하고 과제물을 짧은 시간에 뚝딱 완성해서 제출하는 학생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쓸어 부어가며 과제물을 완성하는 학생 중에 누가 21세기에 더 경쟁력이 있을지? 외국어 점수만 높은 학생과 국제적으로 사고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소통할 줄 아는 학생과 누가 더 경쟁

력이 있을지? 좋은 학교는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학습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작업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공간인 것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정해진 교과의 범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학습에 의존하는 현재 교육의 행태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국제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문화와 학교교육철학

과연 학교문화는 존재하는가? 각종 보고서와 간행물, 그리고 일상에서 학교문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과연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독자성을 갖는 학교문화는 존재하는가? 학교문화가 다른 영역의 문화와 구분되는 독자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고대부터 계속 있어 왔다. 교육을 논할 때 변하지 않는 구조가 있다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일 것이다. 가르치는 자는 이미 성장한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이고, 배우는 자는 성장하고 있는 사회의 미성숙한 구성원이다. 가르치는 자는 미성숙한 성장세대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인 요구의 전수라는 측면과 성장세대 각 개인의 소질과 능력의 발달이라는 측면의 사이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와 개인이 태어난 소질과 흥미, 관심이 바르고 순조롭게 자라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발달의 차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변증법적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사회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을 교육이라 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개인적인 발달만을 고려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노력의 장이 학교이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고 또한 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학교문화인 것이다.

학교문화는 수업문화, 학교생활문화, 학교의례문화, 교

육상담문화, 교육연구문화, 학생지도문화, 의사소통문화 등의 부분적인 문화들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학교문화는 단순하게 학교교육과 관계된 부분적인 문화들의 뮤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학교의 부분문화들은 독자적인 문화이면서 동시에 전체학교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즉, 학교교육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염두에 두고 생성된,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문화라는 관점에서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학교문화 구조의 깊은 곳에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교육적 가치, 교육적 규범, 교육적 태도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문화는 그 학교가 취하고 있는 교육철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학교교육철학은 학교교육활동의 구심점이면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성찰하는 기준이 된다. 학교교육철학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학교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교육활동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규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오늘날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학교교육 철학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예방과 대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가의 명료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의 최종 지향점이 품성도아인지 혹은 대학입시인지 분명해져야 그 바탕위에서 그를 위하여 필요한 학교문화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적 학교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창의교육을 새로운 교과 혹은 새로운 교육활동의 형태로 덧붙이는 것은 ‘교육적 수업’의 본래 모습을 학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교육적 수업’이 본래 의도하는 것이 인성교육이고 창의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듯이 학교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주체는 교사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문화가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표현된다고 할 때, 적극적인 학교문화 형성자로서 교사의 다양한 교육적 행위들은 학교 교육철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좋은 학교는 교육활동의 방향을 제공하는 교육철학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교육활동을 통하여 표현되는 학교인 것이다. 이때 학교교육철학은 폐쇄적이어서는 안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인천의 학교교육은 일반적인 학교교육의 문제 이외에도 ‘낮은 학력과 낮은 진학률’, ‘우수학생의 타지역 전출’, ‘원도심권과 신도심권의 교육격차’ 등과 같은 특수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천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떠나야 할 곳’이라는 인식이 고착되면, 그러한 인식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 전에 학교교육철학에 기반하여 인천의 학교교육에 적합한 모형을 연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착시키는 이론적-실천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것에서 좋은 것은 찾아내서 발전시키고, 나쁜 것은 제거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몽골제국 칭기즈칸의 초기 공신이었던 야율초재가 했다고 전해지는 다음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함은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제거함만 못하다(興一利不若除一害)”. ◎



기획특집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행복교육을 위한 시작은 학교의 조직건강에서 출발.
좋은 학교의 개념 정립과 ‘행복한 학교’ 소개

좋은 학교의 디자인

| 경남대학교 교수 김성열

창의경영학교 포럼에서 찾은 ‘좋은 학교’의 길

| 충남대학교 교수 박수정

21세기 교육혁명 – 새로운 수업을 만드는 사람들

『거꾸로교실』 정찬필 KBS PD를 만나다

‘집합적 리더십’에 의한 학교 운영사례

| 이우중·고등학교 교장 이수광

Specialist, Humanist, Romantist의 꿈을 키우는 행복학교 스토리

| 인천청량초등학교 교장 이기소





좋은 학교의 디자인

1. 시작하는 말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학교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학교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러한 원망(願望)은 대부분의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그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특히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력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흔들리는 교실’, 경향신문, 2013.4.22.) 그러한 열망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일반 학교들의 교육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혁신학교를 만들고 그것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온 것도 일반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보다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가? 일반 학교들 중에도 ‘특별한’ 학교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들이 분명 있다. 이 글에서는 일반 학교 중에서 높은 교육적 성취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학교들을 좋은 학교라고 명명하고, 그러한 학교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어떻게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한다.



경남대학교 교수,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김성열

1) 이 글은 필자가 본질과 현상(2013.기울호)에 실려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기관에서의 강의 내용을 추가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임. 참고문헌은 지면의 제약으로 생략함.

2.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좋은’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처한 각각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우선,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자. 그들은 학교에서 의미 있는 많은 것을 배우면 좋은 학교라고 한다. 배움의 내용은 꼭 교과지식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학교에서 배움의 정도가 다소 충분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주는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심리적 부담이나 신체적 위협이 없는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한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어떨까? 자녀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교육적 성취 수준이 높은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한다. 예컨대, 학부모들은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부하는 습관과 기초적인 학력을 튼튼하게 길러주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한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집안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학교공부를 쫓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부른다. 학교 밖 교육인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게 만든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에 더하여 학부모들이 학교로부터 참여의 권리를 인정받아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운영에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이 또한 좋은 학교라고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사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고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한다. 그들은 그와 동시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권위를 존중받고, 학교행정가로부터 자율적 영역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면 좋은 학교라고 한다.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좋은 학교는 전시성 행사를 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함께 의논하는 학교,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가르침의 결과가 학업성취도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학교이다. 교장선생님 등 학교행정가들도 학교구성주체들이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할 때 그리고 각자가 책무성을 이행하려고 노력하여 학교가 펼치는 교육활동이 성과를 거둘 때 좋은 학교라고 한다.

좋은 학교의 의미는 이렇게 학교구성주체들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의미들은 각기 다른 듯 하지만 공통의 개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높은 교육적 성취이다. 물론 학교급에 따라 교육적 성취의 주된 내용이 인지적 능력이냐, 정서적 능력이냐, 건강한 체력이냐 등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과지식의 성취와 인지적 능력의 개발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상호존중이다. 학생이든, 학부모이든, 교사이든, 학교행정가이든 다른 학교구성주체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상호존중이 보편화되어 있는 학교는 안전한 학교일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분위기는 심리적으로 평안한 분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책무의 이행 즉, 각자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좋은 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한 분위기에서 상호 존중하면서 책무를 다하여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학교이다.

좋은 학교는 우리 사회에 실재한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들 중에는 학교구성원들의 노력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학교는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공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분석 결과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결과 등은 지역적 여건이나 학생 구성상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교들이 실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학교들을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3. “좋은” 학교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좋은 학교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 효과적인 학교(effective school) 연구(김재복·윤기옥, 1989)와 21세기 학교 연구(김용구 등 공역, 2001)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내실화된 학교’에 대한 연구(조난심 등, 2001)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학업충실학교’에 대한 연구(이종재 등, 2001)가 대표적인데, 이들 연구들은 2000년을 전후하여 제기된 ‘학교붕괴’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3년 동안 수행하고 있는 학업성취 우수학교의 교수·학습 특성 연구(은지용 등, 2010, 2011, 2012)도 좋은 학교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일간지 등도 ‘희망이 짹트는 교실’, ‘학교를 바꾼 리더십’ 등 다양한 기획기사로 좋은 학교들을 다루고 있다. 선행연구와 언론보도들을 통하여 드러난 좋은 학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뚜렷한 목표의 설정과 공유

목표의 명료화 정도와 그것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유 여부는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학교든지 목표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그것을 구성원들이 모두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얼마나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느냐, 그리고 공감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21세기 학교연구(김용구 외 공역, 2001)는 “명확하게 규정된 학교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냈다. 내실화된 학교 연구(조난심 등, 2001)에 의하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은 학교 운영의 ‘중점’이 뚜렷”하다. 학업충실학교 연구(이종재 등, 2001)는 “학업충실학교의 교사들이 학교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하여 학업부실학교 교사들보다 인식이 분명함”을 알아냈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좋은 학교의 중요한 특징이 “실현하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학교 구성원이 그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2) 자율적 영역의 최대한 활용

학교가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 물적·재정적 여건,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효과적인 학교연구(김재복·윤기옥 공역, 1989)는 “학교가 학교 특유의 조건을 감안하며 특정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나 교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을 때” 학교가 효과적임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내실화된 학교연구(조난심 등, 2001)에 의하면, 내실화된 학교들은 “교육개선의 방법을 교육부·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보다는 학교 내부에서 학교 여건에 맞게 모색해 적용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좋은 학교의 특징 중 하나가 “학교가 독특한 조건을 잘 고려하여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자율의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의 성과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을 때 높다.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출발점행동의 영향력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도전감이 없는 쉬운 과제를 공부하면 곧바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

운 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가지게 한다. 적절한 수준의 어려움(optimal discrepancy)을 가지게 하는 과제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든다(다니엘 T. 웰링햄 지음; 문희경 역, 2010). 내실화된 학교 연구(조난심 등, 2001)가 밝히고 있듯이, 좋은 학교들은 “수준별 수업이나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자체적으로 연구해 실천한다.” 언론들도 “성과가 높은 학교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분명 좋은 학교는 학생들의 특성과 교육적 필요, 요구 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4) 탁월한 교장의 리더십

학생의 성취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교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김성열·이문복, 2009). 여러 연구들이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장이 혼자서 혹은 직접적으로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다면 진정으로 학생의 학습에 의미심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효과적인 학교 연구자들(김재복·윤기옥 공역, 1989)에 의하면, “무능한 교장이 있는 훌륭한 학교는 없다. 훌륭한 교장이 있는 침체된 학교가 없다.” 21세기 학교연구(김용구 외 공역, 2001)도 성취수준이 높은 학교는 “교육의 탁월함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맡고 있는 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하는 열정적이고 대화를 좋아하는 교장”이 있는 학교임을 밝히고 있다. 내실화된 학교들의 교장은 언제나 “교사들이 지도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수업을 포함한 각종 학교 정책 결정에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교사에게 자율권을 많이 준다.” 요컨대, 분명한 비전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학교구성원들을 학교의 목표 실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교장의 존재는 좋은 학교의 특징이다.



5) 교사들의 높은 전문성과 혁신성

교사는 학교의 교육성과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21세기 학교연구(김용구 외 공역, 2001)는 “다양한 첨단 교육기자재와 공학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열정과 재능을 갖춘 우수한 교사 집단”이 있을 때 학교의 성과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교사의 질은 단지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과지식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혁신하려는 태도가 교사의 질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 학업충실학교 연구(이종재 등, 2001)는 “학업충실히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비율이 학업부실학교의 교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잘 안되어 힘들다거나 교직을 포기하겠다는 비율은 학업부실학교에 비하여 낮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들이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성취수준이 높은 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교사들이 많다.”

6) 학생들의 충실한 학업

학생의 동기 상태와 의지는 학업 등 특정 과업의 성취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속담을 익히 알고 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출발점행동, 교사의 수업의 질, 학생의 동기로 설정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각각의 영향력이 50%, 25%, 25%라고 알려져 있다. 21세기 학교 연구(김용구 외 공역,

2001)는 “근면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음이 성과가 높은 학교의 특징임을 밝히고 있다. 학업충실학교 연구(이종재 등, 2001)에 의하면, “학업충실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수준을 학업부실학교에 비하여 높게 평가한다.” 한 마디로, 학생들이 자신과 목표수준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은 학교의 특징이다.

7)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에 참여는 학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인 학교 연구(김재복·윤기옥 공역, 1989)에 의하면, “효과적인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 21세기 학교연구(김용구 외 공역, 2001)도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가 있을 경우에 학교개선의 가능성이 큼을 확인하고 있다. 내실화된 학교연구(조난심 등, 2001)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먼저 학교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학업충실학교연구(이종재 등, 2001)도 “학업충실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하는 정도가 학업부실학교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음”을 밝히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취수준이 높은 학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동문과 학부모의 적극적 협력이다. 이렇게 여러 연구와 언론보도들이 확인하고 있듯이,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신뢰, 참여를 통한 지원활동 등은 좋은 학교의 특징이다.

8) 학교구성원들의 상호간 높은 신뢰

학교는 교육을 목표로 하여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할 때 훨씬 학교의 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다. 구성원들의 노력이 한 방향으로 모이고 낭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실화된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간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를 잘 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조난심 등, 2001). 학업충실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사, 학생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성취수준이 높은 학교에서는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믿음이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좋은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체의식에 기반하여, 상호이해와 존중하며 각자의 일에 헌신한다.”

9) 학교 자체평가와 적극적 개방

평가는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정도를 점검하여 피드백하는 효과를 가진다. 평가결과에 의하여 개인차 원이든지 기관차원이든지 간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교정해 나간다. 효과적인 학교 연구(김재복·윤기옥 공역, 1989)는 “성취가 높은 학교는 중시하는 학생들의 성취 목표를 다양한 공식적 강화체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러나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1세기 학교 연구(김용구 외 공역, 2001)는 “학교가 명확하게 규정된 학교의 목표와 그 달성을 점검하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 분명 성과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좋은 학교는 또한 학부모에게 학교를 공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내실화된 학교에서는 교사들도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 개선방향을 찾으려 노력한다(조난심 등, 2001).” 요컨대, 좋은 학교는 개방적이고, 스스로 목표달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4. 좋은 학교를 만드는 기반은 무엇인가?

일반 학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좋은 학교의 특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한 셈이지만, 좋은 학교를 만드는 기반을 크게 제도적 기반, 심리적 기반, 구성원의 역량 기반 등으로 제시해보자.

1) 제도적 기반 :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일반 학교가 좋은 학교로 변화되는 것은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보다 확대된 자율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학교에 대한 지배시스템이 규제와 통제 위주에서 자율과 책무 중심의 학교중심 자율경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중심 자율경영체제는 단위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에 대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개별학교들은 고유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중심 자율경영체제가 진정으로 좋은 학교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수준에서 참여적 의사 결정체제의 공고화가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대강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교직위원회와 학부모회의를 활성화하여 의사수렴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협동적 분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단위 학교의 책무성을 점검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책무성 점검을 위해 외부평가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학업성취도 등 학교정보 공개가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내부평가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

2) 심리적 기반 : 단위학교의 공동체성 회복



일반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심리적 기반은 학교에서의 교육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공동체성의 회복은 무엇보다도 학교구성원들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학교공동체 구성원은 자신들과 관련된 일의 결정에 참여할 적절한 기회를 가져야 함과 동시에 책무도 이행해야 한다. 학교공동체성의 회복은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이상과 가치 실현에 헌신하고, 그 결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때 가능하다(김성열, 2008).

3) 역량 기반 : 학교장·교사·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역량 강화

좋은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때 실현 가능하다. 좋은 학교는 우선, 학생들이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성취 목표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변화할 때 가능하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공부에 몰입해야 한다. 정부나 교육행정기관, 학교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적의 학습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교장과 교사들의 역할의 변화와 역량, 학부모와 지역사회 노력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좋은 학교는 학교장과 교사들이 학교교육의 적합성을 이전보다 훨씬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심리적·도덕적 지원과 자원의 제공이 이루어진다

면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일은 훨씬 촉진될 것이다.

학교장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첫째, 좋은 학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비전에는 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명백한 강조와 모든 학생에 대한 높은 성취 기대를 갖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구성원과 함께 비전을 창출하여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전략을 설계하는 능력, 그 비전에 뜻을 같이 하며,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 학교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화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해야 한다. 학교장의 학생들에 대한 기대는 알게 모르게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학생들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진부하면서도 언제나 진리인 말을 떠올려 본다면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핵심적 관건이 교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넷째,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개혁지향적인 교사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교사들의 변화를 함께 이끌도록 해야 한다. 공유적 리더십(shared leadership)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장 혼자서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동료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도록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의 모든 활동은 교장과 교사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교원들의 관계가 협응적이고 동료적일 때 바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학교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은 학부모와 가정의 지원 없이는 강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곱째,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장 초기의 연구에서부터 현재까지,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교 환경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 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좋은 학교는 구성원들에게 (특히,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교육 목적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들도 목적 추구에 진지하게 임해야 함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여덟째,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며,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 어느 언론인의 지적처럼, 학교장은 리더가 되어 여러 개의 귀를 가지고 경청하고(보스는 한 개의 귀를 가짐), 구성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보스는 겁을 줌), 함께 가자고 해야 한다(보스는 가라고 지시함). 많은 연구들은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학교의 교장들은 공적이고 과업 중심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 영역에서도 유능하고 배려심 있는 의사소통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홉째,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업성취와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전시성 행사를 최소화하여 학생들이 가능한 한 많은 시간 동안 직접 교사의 지도를 받거나 교사의 면밀한 지도 아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장은 학교운영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학교장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각자의 역할에 더 헌신하려고 할 것이다.

교사들은 전통적인 지식의 전달자만이 아니라, 코치로서, 상담자로서, 학습관리자로서, 참여자로서, 지도자로서, 학습자로서, 교과개발자로서 역할 수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김용구외 공역, 2001). 일반 공립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던 IBM의 최고경영자 루이스 커스너 등의 주장에 의하면,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일방적 주도자가 아니라 코치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목표를 정하는 것을 돋고 그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습내용과 학습활동, 수업보조자, 수업 보조기구, 학생 등을 잘 조정하여 이 모든 것들이 최적의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학습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더 이상 고립적으로 일하지 않고, 팀을 이루어 일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교과서를 기계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재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학교를 보다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와 학교교육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함께 나눠가지는 파트너십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은 학부모와 가정의 지원 없이는 강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해당 자녀의 학업 성취’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특히, 체험학습이 강조되고 자유학기제가 확대되는 요즈음 지역사회 자원의 교육적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는 교육적으로 가용한 자원을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4) 언론의 지지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언론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력이 낮은 학교(poor-performing school)를 교육력이 높은 좋은 학교(high-performing school)로 개혁하는 것은 외부의 자극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혁이라는 것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이 지속되려면 외부의 관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언론은 국내외의 사례를 통하여 ‘좋은’ 학교가 어떠한 학교인지를 시민들과 교육정책 당국자,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에게 알려 줄 수 있다. 언론의 이러한 활동은 좋은 학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들의 학교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만든다. 언론은 변화하는 학교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 한 학교의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학교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일반 학교들을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학교의 교육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회의(懷疑)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 수준을 높임으로써 개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꿈을 키우고 끼를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잠재적 능력이 좋은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보다 더 개발되기 때문에 학교를 신뢰하고 사교육에 덜 의존하게 된다. 가난한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통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얻을 수 있다. 이른바 학교를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학교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증대한다. 좋은 학교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가 기대하는 교육목표의 달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일반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至難)한 일이다. 제도를 바꾸고, 풍토를 개선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반 학교들의 교육력을 향상시켜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일은 학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기에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



창의경영학교 포럼에서 찾은 ‘좋은 학교’의 길

‘좋은 학교’는 모든 초·중등학교의 지향점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지대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좋은 학교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좋은 학교가 되고자 노력한 학교들의 실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좋은 학교로 가는 길을 공유하고자 한다.¹⁾

2013 창의경영학교 포럼에서 좋은 학교를 묻다

‘창의경영학교’는 2011년부터 시작된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의 하나로, ‘좋은 학교’의 선도 모델을 창출하고 선도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었던 사업이다. 학력향상형, 사교육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등 지정 과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자율형과 같이 학교가 자율적으로 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목적형이든 자율형이든, 창의경영학교는 공통적으로 좋은 학교가 되고자 한다는 미션이 있었고, 2013년에는 네 가지 공통과제, 즉, 창의·인성교육, 학생맞춤형 교육, 진로교육, 학교조직문화 개선이라는 분야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창의경영학교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의경영학교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요구되었고, 이에 2012년부터 ‘창의경영학교 포럼’이 시작되었다. 필자는 2013년부터 창의경영학교 포럼의 책임자를 맡았고,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매달 한차례 포럼을 개최하였다.

창의경영학교 포럼은 앞서 설명한 네 가지 공통과제를 각각 포럼의 주제로 기획하였고, 매 포럼마다 특강, 사례,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10회에 걸쳐 개최된 2013 창의경영학교 포럼에서 다룬 내용들을 중심으로 좋은 학교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남대학교 교수
박수정

1) 이 글은 2013 창의경영학교 포럼의 제10회 포럼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기반으로 하였고, 2013 창의경영학교 포럼에서 다른 내용들을 종합하고 필자의 견해를 첨가하여 재구성하였다.



<2013 창의경영학교 포럼 자료집 표지>

좋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창의·인성교육과 학생맞춤형 교육과 같이 좋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실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교실에서 실행할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학교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교육과정’은 교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의 변화는 교사가 움직일 때 가능하므로,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자 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과의 소통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첫걸음은 교사들이 일단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용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작업은 학생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교육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대상인 학생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연구하는 것 외에, 학생의 역량 수준과 요구를 연구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과 실행이 잘 이루어진 학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교육과정의 실행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반영하였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 보람된 일이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난다.

교사들이 이러한 노력과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실행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마련하고, 시간적,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교사들은 적절한 환경과 지원이 주어지면 기대 이상으로 움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다.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그 초점은 어디까지나 학생을 향하게 하라.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고 기다린다면, 학생을 위한 좋은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행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창의·인성교육, 학생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학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학생의 교육과정 참여가 높아지고, 교육과정은 대체로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집중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즉 선택과 집중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교사들의 경우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감은 높아지게 된다. 학생들에게도 재미

와 의미를 가진 학습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와 학교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

좋은 학교의 조직구조와 문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좋은 교육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교의 조직구조와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좋은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좋은 학교에는 좋은 학교장이 있다. 학교장이 누구냐에 따라 학교가 화연하게 달라지듯이, 학교장의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하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한 미션을 달성하려면 학교 구성원들은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학생을 위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직원이 옳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장의 역할이다.

누구나 학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수사(修辭)에 그치는 것인지 실제 활동과 연결되는 것인지 역시 누구나 구별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이 학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학교 구성원이 진정으로 수용한다면, 아무리 일이 많고 힘들어도 기꺼이 하게 된다. 학생을 위한 옳은 일에 학교의 초점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일, 형식적인 일을 학교장이 막아준다면, 교직원들은 교육에 전념하고 헌신하게 된다.

교직원의 참여를 통해 모두가 수용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또한 함께 만들고 실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많은 학교들이 비전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만들어간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워크숍 방식을 학교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창의경영학교 사업을 했던 학교 중에서 성과가 나타난 학교들은 대부분 지금까지의 관행과 발상에서 탈피한 학교들이었다. 사업 담당부서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의 변화를 위하여 전체가 함께 움직였다. 이러한 학교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학교가 다른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믿음의 공유는 중요하다. 교사는 전문가다. 전문가 교사의 역량을 신뢰하고 헌신을 유도한다. 역시 조직구조와 문화가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좋은 학교의 길을 모색하는 워크숍: OST

지난 2월 17일, 2013 창의경영학교 포럼을 결산하는 마지막 포럼에서는 새로운 기획을 시도하였다. 좋은 학교를 주제로 참석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기획한 것이다. 이 날 적용했던 오픈 스페이스 방법(Open Space Technology, 이하 OST)은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방법은 학교 내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다. 이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한다.²⁾

OST는 해리슨 오웬(Harrison Owen)이 주창한 조직개발의 방법으로, 틀과 격식에서 벗어나 훌륭한 회의결과를 가져올 수

2) 2013 제8회 창의경영학교 포럼 자료집(2014. 2. 17)과 한국오픈스페이스연구소(www.openspace.kr)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있는 독창적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이다. 이 방법은 회의의 큰 주제만 있고 세부 주제는 참가자가 제안하고 자유롭게 토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참가자가 중심이 되는 토의 기법이다. OST는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오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다, 둘째, 어떠한 결과가 나왔든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셋째, 시작한 시간이 맞는 시간이다, 넷째, 끝나면 끝난 것이다.

OST의 주제를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으로 교내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경우, 진행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제 선정 :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 나눌 주제나 질문을 선정한다. 여기에서는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주제로 선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 초대 : 모든 이해당사자 또는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한다. 학교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해당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전체 교사를 초대한 것으로 가정한다.
- 준비 : 참가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을 준비하고, 의자를 하나의 원 또는 여러 개의 동심원 형태로 배열하고 중앙에 공간을 비워둔다. 원의 중심에는 종이와 펜을 놓고, 의제를 붙일 빈 벽(의제의 벽)을 정하여 포스트잇이나 플립차트, 테이프, 싸인펜 등을 비치한다.
- 시작 : 진행자가 주제를 설명하고 OST의 절차와 원칙 등을 안내한 후, 참가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장터 열기 : 주제와 관련하여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중앙으로 나와 주제를 쓰고 의제의 벽에 자신의 주제를 게시한다. 예컨대 ‘교육과정 재구성’, ‘합리적인 업무분장’, ‘학교규칙 재검토’ 등이 될 수 있다.
- 주제 선택 : 모든 주제들이 다 나오면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의제의 벽 앞으로 나와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시간을 정하게 한다. 2명 이상이 희망하면 주제로 선택되고, 가급적 최대 1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 토론 진행 : 참가자들은 주제별로 모여 원형으로 둘러앉아 토론에 참여하고, 진행자는 토론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한다. 전체 시간에 따라 참가는 하나의 주제만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주제의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다. 토론의 결과를 전지나 포스트잇에 기록하거나 컴퓨터로 출력하여 벽에 붙이고,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 원 닫기 : OST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모여 대화의 형태로 회고의 시간을 가진다. 각자 깨달은 것과 배운 것 등을 나눈다.

이와 같은 진행 방법은 의제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화 적용이 가능하다. ‘좋은 학교 되기’와 같이 광범위한 주제로 폭넓은 의견을 나누어도 되지만, 교육과정이나 진로교육, 학교역점사업과 같이 범위를 좁혀서 진행해도 좋다. 참가자는 한가지 주제의 토의에 참여하지만, 다른 주제들에서 논의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 큰 주제에 연결될 수 있다. 모든 교사가 기坦 없이 의견을 나누는 것 만으로도 참여와 소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토의 결과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된다면 민주적 의사결정과 임파워먼트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ST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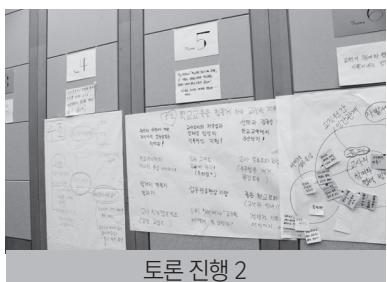
장터 열기



주제 선택



토론 진행 1



토론 진행 2



원 닫기

〈2013 제8회 창의경영학교 포럼에서 이루어진 OST 워크숍〉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향하여

좋은 학교가 어떠한 학교인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것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학생의 행복은 세계적으로도 공교육의 개혁 방향이기도 하고, 교사가 행복할 때 더욱 교육에 헌신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³⁾ 행복은 ‘만족’과 ‘성취’라는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행복한 학교는 사실상 학업성취 도와 학교만족도 모두가 높은 학교를 의미한다. 이러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학생에게는 최선의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교사에게는 보람과 성취감을 줄 것이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좋은 학교는 누가 만들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학교장과 교사가 가지고 있다.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께 감사와 기대를 보낸다. ◎

3)

박수정, 고흥월, 박용한(2013). 세종 행복학교 운영방안 연구. 세종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보고서.



21세기 교육 혁명 - 새로운 수업을 만드는 사람들

『거꾸로교실』 정찬필 KBS PD를 만나다



일 시 : 2014년 6월 10일(화) 늦은 8시~9시
 장 소 : 북부교육지원청 Wee 센터
 대담 및 정리 : 배수아(인천산곡고 교사), 김병수(인천용마초 교사)
 사진촬영 : 황재인(인천부내초 교사)

전 세계가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시스템의 개혁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에 빠져 있다. 우리 교육계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핀란드나 스웨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거꾸로교실』이다. 미국에서 학교를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 수업 방식인 『거꾸로교실』은 2007년 미국 콜로라도 주의 교사 조나단 버그만과 아론 샘즈가 시도한 수업 방식으로 영어로는 '플립드 클래스룸'(Flipped Classroom)이라고 표현한다. '뒤집다'는 의미의 '플립드'(flipped)와 교실을 일컫는 '클래스룸'(classroom)의 합성 어이다.

『거꾸로교실』 수업은 한 시간의 핵심 수업내용을 과목 담당교사가 10분 안팎의 동영상 강의로 제작해 학생들이 수업 전에 미리 보고 오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주체가 돼 토론이나 과제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잡자는 학생들에 대한 고민과 무력감을 가졌던 교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우리 교육에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KBS 파노라마 '21세기 교육혁명-미래교실을 찾아서'를 통해 이러한 변화의 디딤돌을 놓은 KBS 정찬필 PD를 인천교육에서 만나 보았다.

“『거꾸로교실』 방송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지난해 2월 다국적 기업이 주최한 국제 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의 모든 세션에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그것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내세운 ‘국제적인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주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몰락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위기 가능성은 인지했다면 우리 사회에 알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미나 참석 후 4개월 동안 국제적인 교육혁신의 이론과 실제 적용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교육세미나 ISTE(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igy in Education)에서 『거꾸로교실』(Flipped Classroom)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세션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고 현지 교육자들이 관련 세미나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 시작한 자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영어권에서는 『거꾸로교실』이 뜨겁게 달아오른 교육혁신의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 자료 및 수업 방법이 개발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은커녕 관련 용어조차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널리스트로서 우리 교육계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교육, 그것도 산업혁명 이후 최고의 변화를 끌어낼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효과와 영향이 검증된 교실 혁신 방법의 발견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거꾸로교실』 프로그램 기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거꾸로교실』 수업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거꾸로교실』 수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수업 전 콘텐츠, 즉 사전 동영상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촬영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의문을 품는 것이 동영상 강의 제작 방법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험교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흔히 스크린캐스팅이라고 부르는 움직이는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캡쳐하면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목소리와 함께 녹화하는 방법도 있고, 아이패드나 갤럭시 등 태블릿에서 손쉬운 앱을 사용해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간단히 하겠다고 생각하면, 칠판 앞에서 강의하고 스마트 폰으로 녹화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이렇게 제작한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되는데요. 이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동영상 포털, 혹은 블로그,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오히려 쉬운 방법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의 이런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동시에 선생님들 사이의 협업 등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고 2학기 전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마련해볼 생각이니 당장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꾸로교실』의 핵심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압축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실을 비우자

첫 번째는 기존의 교실(수업)을 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꾸로교실』은 특정한 교수방법이 아니라, 플랫폼(Platform)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강의 중심의 수업을 없애고 비워진 교실에 선생님의 창의적인 활동 아이디어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교실은 학생들이 배움을 확장하여 세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거쳐 가는 잠시 머무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미 죽은 지식(인터넷만 검색하면 인류의 모든 지식이 쏟아지는 시대에 지식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이미 죽은 교육입니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면추어야 합니다. 이 방식을 버려야만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서 벗어나 정보 지식사회의 교육이라는 정거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동료티칭을 통한 협업(collaboration)

두 번째는 학습자끼리의 협업을 통한 배움의 중요성입니다. ‘21세기 스킬’(21세기 핵심역량이라는 말로 우리 교육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collaboration)입니다. 협업은 지식 구성의 과정과 인간관계 구성의 과정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질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지식들을 모둠원들이 껴내놓고 협력, 합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지식 구성 과정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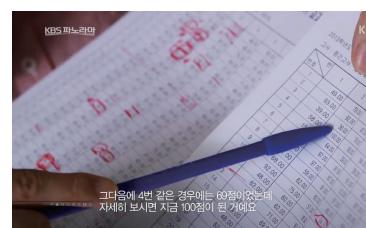
이렇게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콜라보레이션은 지식의 확장 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자체도 향상시켜 줍니다. 『거꾸로교실』을 학교 현장에서 실험하고 정리하면서 ‘『거꾸로교실』은 나에게 인생이다’라고 인터뷰한 학생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이 학생은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를 어려워 교실에서 늘 혼자 있었고 교실에서 소외되어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거꾸로교실』을 통해 급우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여서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협업에 기반을 둔 『거꾸로교실』을 적용한 학급에서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왕따나 소외된 학생들이 줄어드는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시작과 끝은 바로 ‘교실’입니다.



“방송을 보니 『거꾸로교실』 수업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성적이 올랐는데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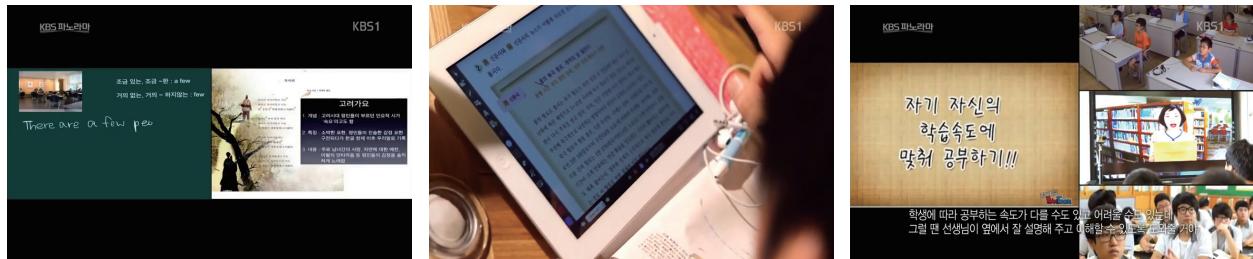
『거꾸로교실』 적용 초기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부적응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문제 풀이에 잘 적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거꾸로교실』의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자신만의 학습진도에 맞추어 공부하는데 익숙한 상위권 학생들은 옆 친구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완성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귀찮기도 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교실』을 한 학기 동안 경험하고 나서 인터뷰한 결과는 저희도 놀라웠습니다. ‘수업은 『거꾸로교실』의 방식이 좋다.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 성적이 떨어진 것은 내 책임이다. 이제는 학원을 끊고 『거꾸로교실』의 방식대로 공부하겠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의 가치와 힘을 알게 되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거꾸로교실』 방송 이후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거꾸로교실』을 보다 갑자기 복받쳐오는 감정 때문에 한참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중2 수학 샘)’ 3월 첫 방송이 나간 후 『거꾸로교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교사 측면에서 본 『거꾸로교실』의 가장 큰 효과는 교사가 먼저 ‘변명의 카르텔’을 깨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이리 저리 엉킨 실태래와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실태래를 꼬아 놓았냐고 책임 논쟁을 아무리 벌여도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사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수업에 대한 문제의 책임을 교사가 스스로 인정하고 변화를 위한 또 하나의 진지한 몸부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험에 참가한 부산 D중학교의 경우 실험 시작 전 어떤 요인이 수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수업 교사는 ‘가정환경’이라고 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학생들이 밤새워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는 환경 등 대부분의 책임을 가정에 돌립니다. 그런데 한 학기 실험 종료 후 던진 같은 질문에 수업 교사는 ‘교사’라고 대답합니다. 분명히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기본 태도에 외부요인이 막강한 영향을 끼치지만 실험 결과는 학교 교육에서의 희망은 ‘교사’임을 교사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사 스스로 교육의 희망임을 자각하고 실천에 나선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방송 이후 가장 큰 변화입니다.



“『거꾸로교실』 을 U-러닝과 스마트 교육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기존 스마트 교육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거꾸로교실』은 스마트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특히 실험 시작 시점에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조건이 ‘일정 기간 동안 강의 시청 이외에 수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였습니다. 이는 『거꾸로교실』에서 관찰하려는 학생의 수업 참여도 향상이 기기 사용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확신과 이를 증명해야겠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측대로였습니다. 아무런 기기 투입 없이 경이로운 수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학생들도 그저 전지 한 장을 두고 모둠별로 시와 소설을 분해, 재조립하는데 열광했습니다. 오히려 예외적으로 1인 1기기를 투입한 곳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똑같이 확인되었습니다. 3편에 등장하는 미국의 스무살 청년 Travis Allen은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스마트기기를 선생님에게 압수당하고 난 뒤 유튜브에 ‘시대에 뒤쳐진 학교와 선생님들을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자’라고 호소하고, 학생들을 모아 실제로 이를 실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전역을 다니며 디지털교육혁명을 전파하고 다니는 단체 iSchool Initiative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태도에 흥미로운 변화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기기가 교실에 사용되는 게 핵심이라고 말하던 그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기술을 교육에 사용하는 방향은 <기술 중심>이었으며, 이제서야 <컨텐츠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조차 여전히 문제가 있다. 미래교육에 중요한 것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실에서 “기기 중심의 교육”이 벌어졌을 때 어떤 부작용과 결핍이 발생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말한 <기기 중심>은 우리의 <스마트 교육>, <컨텐츠 중심>은 우리의 <디지털 교과서>를 연상시킵니다.

기술을 교육과 결합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는 기술이 교육의 중심이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은 첨단 기술을 반드시 교육에 직접 결합시켜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기술과 교육의 결합에 대한 우리의 정책에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험교실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학생중심의 교실로 소통과 협력이 활성화되고 놀이와 학습이 일치가 된 교실이라면 스마트기기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되었을 때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BS1 News - Big As We Can Expect.

Changing the Role of C Around the World

KBS1 News - Flipped classrooms provide a new way of learning

KBS1 News - Lessons at night in flipped classroom

“『거꾸로교실』은 2014년 상반기 우리 교육계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듯합니다.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듯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를 찾아 알리는 것을 업으로 삼는 저널리스트이기에 한 주제를 가지고 오래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꾸로교실』 방송 이후 전해오는 뜨거운 반응을 몸으로 느끼며 이 일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후속 프로젝트의 가제는 ‘천 개의 교실’입니다. 참여교사 250여명을 모시고 천 개의 교실 이야기로 후속 방송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그 변화 안에서 행복해지는 교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또 후속 방송에 앞서 『거꾸로교실』에 대한 책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선생님들과 함께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한 수업 진행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방송을 통해 『거꾸로교실』에 대해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이 실제로 『거꾸로교실』 수업을 진행할 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 진행의 방법을 책으로 들려드릴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인천 교사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거꾸로교실』 방송 3부작을 꼼꼼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주 시청자를 일반인으로 잡느냐 교사로 잡느냐 방송사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방송에 담긴 의미를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거꾸로교실』로 수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잡든 교실’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눈물과 마음을 담은 편지와 함께 『거꾸로교실』 실천 의사를 밝힌 교사가 이미 160명을 넘었습니다. ‘잡든 교실’을 깨우는 일에 인천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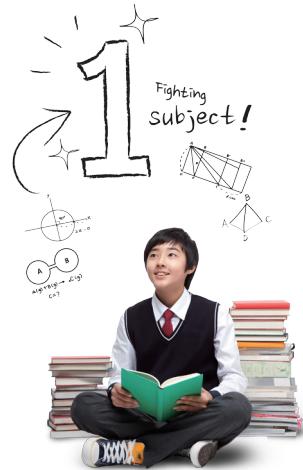




점프와 발돋움이 있는 배움을 디자인하는 전문가, 바로 교사!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문득 인천교육 48호(2013년 여름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배움, 배움의 공동체 수업’ 특별 기획이 떠올랐다.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놓여 있는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은 공통적으로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인천의 잠든 교실을 깨울 또 하나의 마술 지팡이를 손에 넣게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마법사 없는 마법 지팡이가 무용지물이듯 교사 없는 교실에서 학생의 배움 중심 수업이 존재할 수는 없다. 점프와 발돋움이 있는 배움을 디자인하는 인천 교사들에 의해, 잠든 교실이 배움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교실로 변화되기를 기대해본다. ◎





‘집합적 리더십’에 의한 학교 운영사례 - 이우중·고등학교 자치학교 사례

I. 자치학교와 학교구성원의 지위

원론적으로, 학교는 민주적인 공간이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에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지향하는 학교의 실제적 운영은 어떤 모습일까?

이우학교는 ‘자치학교’(自治學校)를 지향한다. ‘모든 학교구성원이 공동주인의 지위를 갖고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결과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는 학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즉 학교구성원의 집단적 지혜와 집단지성으로 운영되는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운영 측면에서 보자면, 학교철학을 근간으로 하되 세세한 실천 장면에서는 구성원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학교다. 따라서 이우학교에서는 합당하고 정당한 절차, 즉 상호소통 여부가 학교 운영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자치학교’(自治學校)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한의 3분형적 균형구조가 필요하다. 즉 교원, 학생, 학부모의 역학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회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분산함으로서 다수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조건에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확장된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주인의식도 고양될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자율성(자기통제권과 자기결정권) 또한 신장되는 조건이 된다. 이런 점에서 거버넌스 구축은 모든 학교구성원이 ‘공동주인’의 역할을 하는 자치학교(自治學校)로 전환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



이우중·고등학교 교장
이수광

II. 자치학교 운영을 위한 실행 과제 및 실천 사례

1. 실행 과제 : 학생 - 자치(自治)하고 자율(自律)하게 하라

'학교자치'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 즉 학교가 공동체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치'(自治)하고 '자율'(自律)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치(自治)하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구체화 하는 경우, 학생들은 학교의 통제나 간섭보다는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학교에서의 삶을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학생들도 사회적 존재(social being)이다.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되, 다른 이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할 존재이다. 그러므로 행위 개별자로서 학생 개개인은 자신들이 합의에 의해 세운 원칙에 따라 스스로를 규율하는 힘이 필요하다. 곧, 자율(自律)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치(自治)가 학생 삶의 구성원리이자 목표라면, 자율(自律)은 개별 학생들의 행위준칙이자 전략인 셈이다.

학생자치와 자율의 과정은 바로 학생 자신들의 존재조건에 대한 해석과정이자 타자와의 관계형성과정이다. 또한 상상력을 현실상황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이며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자기욕망을 조정하면서 타자에 대해 감정이입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어디 이뿐인가? 서로간 어울림과 놀이의 절정경험을 통해 자기존재감을 확인하고, 자기 내면의 끼와 유능함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사회체험 활동을 통해서는 인간 감수성과 사회감수성이 자극된다. 그리고 집단적인 활동을 조직하는 과정은 바로 집합적 창의성 신장 과정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학생자치와 자율은 지(知), 정(情), 의(意), 체(體) 각 요소가 중층적으로 결합하는 전인적 성장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자치(自治)와 자율(自律)은 폭넓게 인정되는 학생들의 권리 행사를 통해 구체화 된다. 우선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학사일정 협의권>, <학칙 개정요구 및 참여권>, <학교운영에 대한 청취권> 등이 보장된다. 학습활동과 관련해서는 <좋은 수업 만들기 간담회 개최 요구권>, <수업운영계획서 사전 열람권>, <수업 만족도 평가권>, <선택교과 개설 요구권>, <학교평가 참여권> 등도 보장된다. 그리고 학생자치활동 영역에서는 <학교행사 기획권>, <학생회 자율 구성권>, <학생회 예산 편성 및 결산권>, <동아리 결성 및 지원 요구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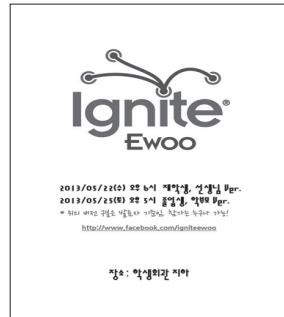
학생들에게 폭넓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믿음에 근거한다. 하나는 다양한 사고실험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아관여감(自我關與感)을 확인하고 종국에는 자기존재감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

영 역	학생 자치와 자율을 위한 권리목록
학교운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 학사일정 협의권 - 학칙 개정요구권 및 참여권 - 학교운영에 대한 청취권 - 학교평가 참여권
학습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수업 만들기' 간담회 개최 요구권 - '수업운영계획서' 사전 열람권 - 수업 만족도 평가권 - 선택교과 개설 요구권 - '교과주간' 운영 요구 및 참여권
학생 자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행사 기획권 - 학생회 자율 구성권 - 학생회 예산 편성 및 결산권 - 동아리 결성 및 지원 요구권 - 학내 집회권 - 학생전용 게시판 운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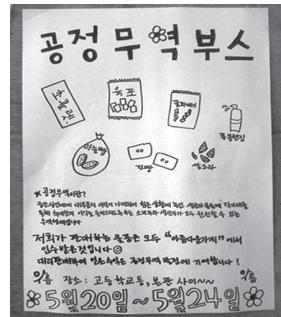
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자치활동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운영과정에서 적성(適性)의 발견·계발이 가능하다는 믿음에서다.



〈학생들이 기획하는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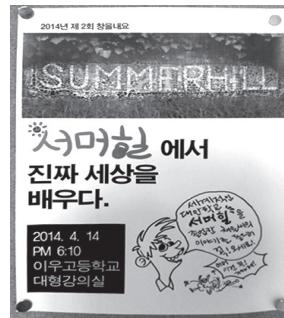
〈학생들이 기획한 이그나이트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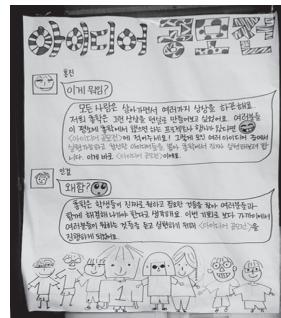
〈학생동아리가 주최한 공정무역부스〉



〈사람책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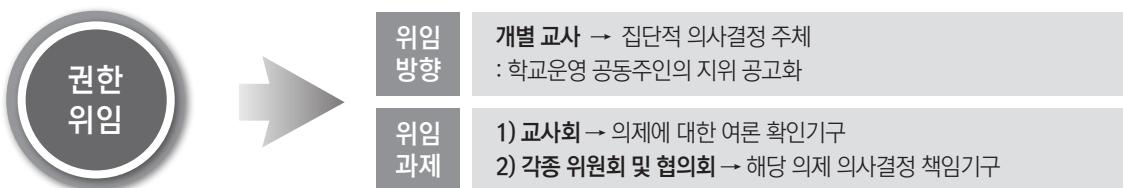
〈학생회가 주관한 저자와의 대화〉



〈학생동아리 주관 아이디어 공모전〉

2. 실행 과제 : 교사 - 교사회가 의사결정의 주체로 서게 하라

행위자에서 자기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이 있는 경우, 행위자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학교 활력화 조건 중 하나는 교사회(개별교사)가 자기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갖게 하는 일이다. 교사회가 중요의제에 대해 의사 결정하고, 집행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자체규율의 범위 설정)하는 조건에서 교사들의 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사회 권한 위임 개념도〉

학교의 관료적 속성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자율성 발휘가 곤란하다. 오히려 명령, 시달, 침묵, 묵종, 순응 같은 '부정적 미덕'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건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교사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탈기술화'되고 무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성장 동기가 시스템 상에서 자극될 때, 교사들의 창조적 상력, 질문 능력, 토론 능력, 성찰 능력의 신장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적 학교문화가 정착된다. 이런 점에서 현장 교사들의 참여와 실험적 실천을 조장하는 정책 환경 및 학교운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교사들도 '냉소적 관망의 태도'를 버리고 교육활동에 몰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우학교에서는 모든 개별 교사가 학교운영의 핵심 주체 지위를 갖고, 실제로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교사가 학교운영의 핵심주체가 된다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들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운영, 학사운영, 학급관리, 행정업무에 이르기까지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면서 교사 각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 자존감 등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개별교사의 전문적 성장은 물론 교사들 간의 '조직 내 프랜드십¹⁾'(Workplace Friendship) 고양에도 긍정적이다.

	구 성	역 할
개별 교사	교사	1) 교과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보장 2) 수업 운영의 자율권 보장
학년팀	학년팀장, 담임	1) 수업, 학년학생 생활 및 상담 2) 학년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3) 학부모 상담
업무팀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1) 교무, 학사운영 전반 2) 교육과정 3) 선교수 후행정 4) 각 학년 의견 조율, 조정
연구팀	연구부장, 연구부원	1) 수업 연구 2) 교사 연수 및 세미나 3) 회지 발간

〈교사자치 조직 및 역할〉

	내 용
교과협의회	1) 각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의 원칙 및 전략 협의 2) 학교 철학, 가치, 정신의 구현·교과 내면화, 의미화 3) 각 교과의 학년별 교육과정 연계성과 위계성 4) 교과 성취에 대한 학생 진단 및 분석
학년교과 협의회	1) 학년교육목표의 각 교과 성취 진단 및 분석 2) 학년의 각 교과 수업에서 학생 상황 진단 및 분석 3) 학습 및 생활 곤란 학생 진단, 분석, 대응
수업연구회	1) 교과별 수업연구회 2) 학년별 수업연구회 3) 전체 수업연구회
교육과정 협의회	1) 교육과정 중요 의제 토론 및 학습 예) "이우고등학교 3년 과정의 목표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이우학생상은 구현이 가능한가?" "핵심역량을 강조하는데,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가?" "학교철학의 맥락에서 반드시 강제해야 할 영역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다양한 체험활동이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는가?" "특정 교수이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2) 교육과정 변경에 관한 토의 및 심의

〈수업 및 교육과정관련 협의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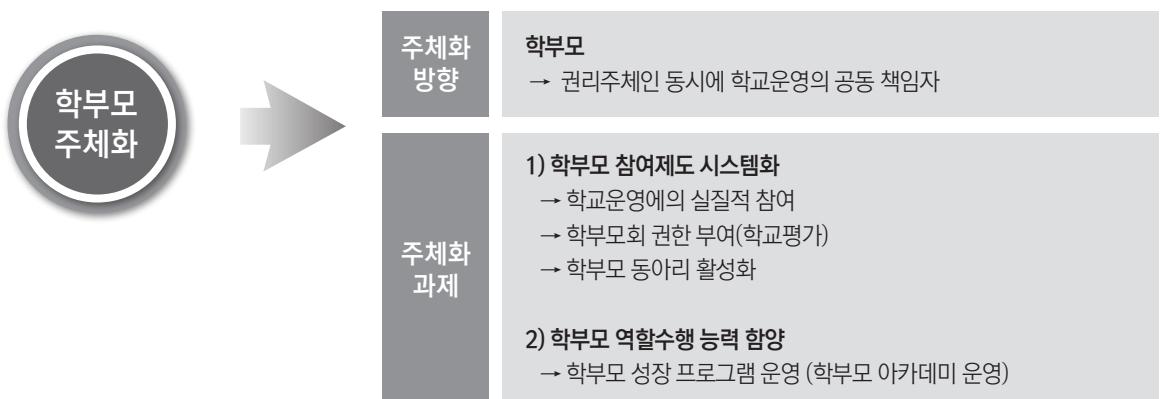
1) '조직내 프랜드십'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신뢰와 혼신, 애정의 바탕 위에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비배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3. 실행과제 : 학부모 - ‘참여의 즐거움’을 조직화 하라

학부모가 학교의 실질적인 공동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동원형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과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학부모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장치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녀의 성장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접근 기회, 학부모 자신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접근 기회, 그리고 학부모간의 일상적 만남의 기회(동아리) 등이 조직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부모 요구가 시스템적으로 충족되는 경우, 학부모들은 학교 참여를 ‘즐기게’ 될 것이다.

학교가 학부모들의 참여 즐거움을 조직화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참여’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다. 즉,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에 참여하는 일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일의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이런 점에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그 자체는 당사자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의 발산 기회이지만 학교입장에서는 활력화의 동력이 된다.

따라서 이우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열정과 관심을 문화활동이나 사회적인 일에 돌려쓸 수 있는 길’을 조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양한 학교 참여시스템을 갖추고, 학부모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우학부모 주체화 과제와 관련한 개념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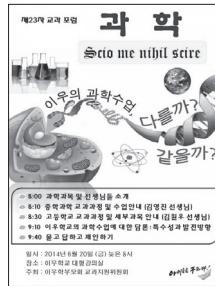


향후 이우학교에서는 학부모 자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학부모의 역할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성장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학부모 성장 프로그램 운영-학부모 아카데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고양도 필요하고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며 나아가 아이의 성장 단계별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부모회 주최하는 교양강좌



학부모회가 주최하는 교과포럼



3주체가 공동 주최하는 대화마당



학부모 노래 동아리 정기공연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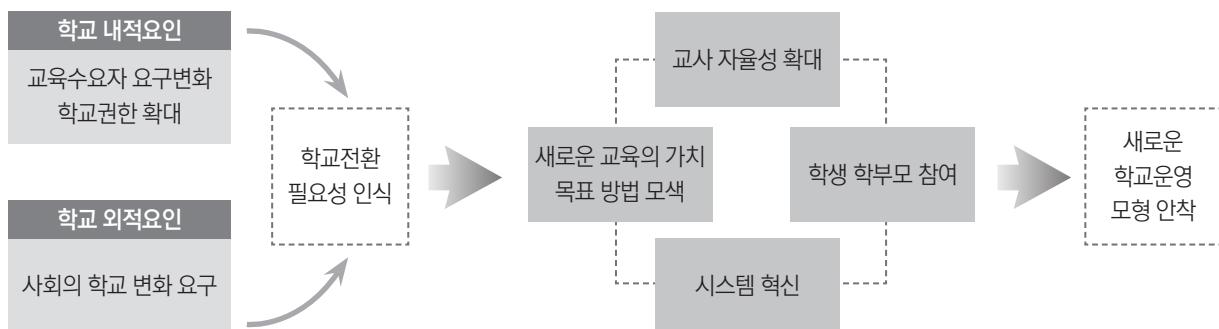
백두대간 동아리 종산제 포스터



아버지들로 구성된 축구 리그전 현수막

III. 새로운 학교운영 형식(집단적 리더십) 안착 과제

교육혁신의 방향이 지방자치 및 기관자율로 이행함에 따라 행정청의 권한 이양과 위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단위학교가 능동적으로 조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공동체 중심 학교단위 자율운영 체제'(PC-SBM:Professional Community centered School Based Management)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제 전환을 통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할 수 있는 학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행 모형에 따라 학교의 운영 형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은 학교 내·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교의 전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삶의 형식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프레임이 구체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 새로운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의 공감과 동의, 참여의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의제를 설정하고,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교사들이 서로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학습조직화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관점 전환도 필요하다. 나는 학생을 변수(變數)보다는 상수(常數)로 이해해야 옳다고 본다. 학교에서는 언제나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오게 마련이다. 이 학생들은 시대가 변화된 만큼, 꼭 그만큼 변한 모습을 하고온다. 학생들의 변화는 개인적이기보다는 사회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낯설음’은 비난이나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대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학생들의 학교참여와 자치활동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새로운 운영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노력과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학교의 변화는 즉흥적인 퍼포먼스로 실현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중요법적인 처방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일부 성공적인 학교를 ‘흉내내기’하거나 ‘따라하기’ 하는 것은 금물이다. 학교마다 상황적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성공적인 학교 사례들은 어찌 보면 ‘포템킨의 마을’(Potemkin village)²⁾과 다름이 없다. 다른 단위학교와는 판이하게 다른 조건에서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특정 형식을 무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라 ‘자기창조’를 해야 한다. 단위학교 차원에서 함께하기의 철학과 방법론을 깊이 있게 토론하고, 적합한 실행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1787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女帝)가 새로 합병한 크림반도 시찰에 나섰을 때, 그 지역 사령관인 그레고리 포템킨이 만든 가짜마을을 일컫는다.



Specialist, Humanist, Romantist의 꿈을 키우는 행복학교 스토리

1. 꿈을 키우는 교사가 되자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꽃은 솔방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 김용석 시인의 <가을이 오면> 전문

자기가 최선을 다해 피운 꽃을 모두 남에게 주고도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마음, 많은 열매로 다시 태어나는 이 꽃처럼 남을 배려하면서도 행복해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동시가 좋다.

교육은 ‘함께 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인격이고 사랑일 수 있으며 지식이고 기능이기도 하고, 생활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으며 열정이고 정성일 수 있겠다. 이러한 교육의 관점으로 보면 ‘학생은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 전문적인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기대 또한 많은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인 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열정으로 지도할 때 학교 교육은 더욱 크게 변할 것이다. 이 열정을 수업 중심 학교 문화에 집중시켜 교육의 근본을 꼼꼼하게 다져가는 활동의 중심에 우리 인천청량초등학교가 있다. 학교장의 열정과 철학을 청량 수업 문화에 쏟아 부어 ‘꿈을 키우는 행복한 청량’ 학교를 만들어 낸 작지만 힘이 있는 나의 스토리를 시작하려 한다.



인천청량초등학교 교장

이 기 소

2. Specialist : 우리 모두는 전문성을 지닌 교사이다

교육 수요자들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이나 업무 추진 면에서 최고의 전문가(specialist)이기를 원하고 기대한다.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과정, 교육평가, 안전지도, 상담, 학부모 관계 등 교육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을 원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이면서 교사들인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변화와 자기 발전에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능력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수와 연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도란도란 사랑방의 작은 변화

청량초등학교에 부임했을 때, 선생님들은 수업의 전문성에 대한 바람이 있으면서도 자기 수업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두려워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 원인을 찾아 고민했다. 시스템을 분석한 후, 모든 선생님들이 학급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시스템을 강화하였다. 행정 업무를 업무부장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은 학년부장 중심 체제로 정비하였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각종 연수의 질을 확보하고 우수 강사초청 연수와 우수 도서를 선생님들에게 제공해 드렸다. 또한 선생님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문서와 회의를 없앴다.

작은 변화가 선생님들을 수업에 몰입하게 했다. ‘좋은 수업 동아리’에서 함께 수업에 대한 공동 연구 → 개인별 심화 수업연구 → 공개수업 실시 → ‘좋은 수업 협의회’에서 수업에 대한 피드백 → ‘좋은 수업을 위한 수업 에세이 쓰기’의 자기 성찰의 과정은 수업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교사 동아리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여 수업과 관련된 ‘관심 주제 동아리’로 조직·운영하였다. 각 학년 상담실에 ‘사랑방’이라는 온돌방을 설치하여 교사들이 따뜻한 곳에 모여 공동의 수업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교 수업력의 강화로 이루어져 2011년 단 1명이 도전하였던 수업연구발표대회에 2012년에는 9명으로, 2013년에는 13명의 교사가 스스로 도전장을 냈다. 이 연구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전 학급의 수업의 질을 높인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그만큼 교사들이 수업에 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문화를 형성했다는 게 큰 성과이다. 더욱이 수업연구발표대회는 단순히 수업기술이 뛰어난 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자질을 확보하는 기초가 되는 대회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수업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학교의 문화를 만들게 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Specialist)로 충분히 주목받을 일이다.



기초를 다지고 역량을 펼치는 학습의 강조

[청량 365 학습일기 & 명예 박사 논문] 청량의 수업은 3분 안에 수업목표와 활동을 탐색하고 학습자 수준별 6단계 자기 주도활동으로 학습하며 마지막 5분 동안 정리하는 ‘청량 365 학습일기’ 쓰기를 통해 단위수업시간의 충실통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코넬 학습법의 원리에 우리 학교의 실정에 맞는 단계를 설정하여 학생 수준에 따라 자기주도 활동의 6단계를 설정하여 ‘단원(학습목표), 내용영역, 핵심단어, 요약, 질문, 더 알고 싶은 내용’을 학습일기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학생에게는 수업 집중’을, ‘교사에게는 더 구조화된 수업 설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우수한 학습일기는 학기말에 시상을 하고 학습일기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교 현관에 영상으로 상영함으로써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학생의 학습 습관으로 정착되어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며 6학년이 되어서는 ‘어린이 명예박사 논문집’ 작성으로 발전된다. 6학년 한 해 동안 탐구 관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한 결과를 졸업 논문집으로 발간함으로써 자기 성찰감을 높이게 되었으며 진로탐색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과서 읽기] 기초학습능력신장을 위해 청량의 학생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 10번 읽기’를 실천한다. 3학년부터는 사회교과서도 함께 병행하여 학습력을 다지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학생의 예습, 복습으로 이어져 학습의 효과를 높여 주고 있다.

[13년을 이어온 아침독서] 우리학교의 전통은 13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아침독서 30분’이다. 매일 아침 학생들은 30분 동안 선택과 집중의 몰입독서를 함으로써 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자기주도 학습력의 기반을 다진다. 독서를 통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있다. 인문고전 중심의 독서활동, 찾아가는 학급 도서관 운영, 지역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관 소식지의 발행, 향기있는 북콘서트, 사랑의 책 읽어주기 등의 독서 활동은 2013년 독서교육대상 최우수상의 수상으로 결실을 맺었고, 2014년 독서활동을 확대하여 영어 낭독프로그램인 ‘Read Aloud’로 발전하였다.

[수준별 영어 학습] 글로벌 미래학교로서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 수준별 맞춤형 Edu-up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의 영어능력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영어독서를 읽고 실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으로써 Leader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동아리 활동으로 실력을 펼치고, Academic 학생들은 맞춤형 온라인 영어학습으로 실력을 다지며, Jump up 학생들은 스마트 영어학습으로 실력을 채우는 학습을 실시한다. 또한 세계와 소통하는 영어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은 프로젝트로 구체화하였다. 국제문화리더로서의 역량을 갖기 위해 7가지의 주제중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청량UN친환경캠프, 글로벌 문화계단, 글로벌 행진(행복한 진로) 꿈 키우기, Blue Shirt Day프로젝트, 글로벌 두드림 축제, 청량 GCL 내몸 사랑교육, 나·너·우리의 향기있는 독서’로 7 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직접적인 실천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며 그에 대한 해결의 답을 찾아가는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학습의 결과인 프로젝트 발표회를 통하여 각 학습의 단계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공유하여 더 큰 성장을 다지게 되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주제중심 프로젝트를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은 직접 만지고, 만들고, 확인하고, 조사하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수업을 경험하게 되었다.

3. Humanist : 따뜻하고 인간적인 교사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따뜻하고 인간적인 교사(humanist)이기를 기대한다. 온화하고 친절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꿈을 키워주는 교사, 학교에 가고 싶고 공부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선생님, ‘학생이 있는 곳에는 교사가 있다’ 즉 학생이 있는 곳에 교육이 있다. ‘Get back to basics’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정직, 성실, 규칙, 책임감, 배려, 존중 등 모두가 공감하는 기초 기본 교육의 희망이 바로 교사이다.

학생 모두는 미래의 큰 인물!

우리 학생들에게 순간이 설레는 삶이 되도록 기회와 여건을 다져보고자 하였다. 학교나 가정에서 가슴이 뛰고, 자꾸 생각이 나고,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기대가 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도록 말이다. 어른들이 학생들을 보는 관점이 적절한지, 잘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고자 했다. 있는 그대로 학생의 모습을 보는가? 멋지고 매너 있는 청년을 바라보는가? 품격 있는 어른을 그리는가? 글로벌 미래학교에서 자란 청량인이 지도자로,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선 모습을 상상하는가? 학생들의 인격과 미래의 큰 사람을 생각하는 학생관을 갖게 하니 선생님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좀 더 명료하고 진지해졌다.

교장실의 문을 늘 열어놓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활짝 웃는 표정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이었다. 아침 훈화시간은 학생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강연회 형식, 학년별로 함께 방송실에서 모여 대화 나누는 형식,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학생과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기존의 아침방송의 형식을 탈피하였다.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할 때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부터 시작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지’ 알게 된 Humanist의 일상은 얼마나 멋진가?



더불어 나눔을 배우는 공감교육

청량 학생들은 ‘꿈을 키우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는다. 학습 마일리지를 모아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청량 GCL 글로벌 마일리지 봉사활동으로 연결이 된다. 이것은 나의 성실함과 노력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보상의 차원을 넘어선 다른 사람을 돋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학교 교육활동을 통하여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은 수업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경쟁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Blue Shirt Day로 사랑을 몸으로 익히기

학교폭력 없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세계적인 프로젝트인 Blue Shirt Day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기초부터 학교폭력예방학습을 실시하고 예방을 위한 문구와 디자인을 직접 작성한 후 그것을 전교생이 파란색 티셔츠로 제작하여 만들어 입은 후 운동장에서 플래쉬몹 활동을 한다. 학교의 교육활동 하나 하나가 학생의 학습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미래 학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 학생,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꽃을 피워야만 그 향기가 오래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본다.

4. Romantist : 행복한 감성을 지닌 교사가 되자

‘즐거워야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높은 성과가 있다’는 말대로 행복한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매진할 때 학생들 또한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선생님들은 자기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그러면서 평생을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브랜드를 설계해서 실천해 나가는 건 어떨까? 좋아하고 잘 하는 한 가지 일을 몰입해서 하다보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행복한 Romantist가 될 것이다.

학생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드는 하모니

2012년부터 찾아가는·찾아오는 문화예술체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는 수업으로 확대하였다. 연수구 관현악, 오케스트라 공연, 요들송 공연 등을 관람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소양능력을 길러주었다. 항상 사전 교육을 하여 유의미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관람 전에 음악가, 악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공연 당일에는 공연 관람과 더불어 학생들이 평소 음악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연습해오던 리코더, 오카리나 연주곡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함으로써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체험을 하였다. 평소 음악 시간에 배운 것을 공연까지 연결하여 행복한 Romantist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5. 행복 수업은 학부모를 감동하게 한다

커뮤니티로 하나되는 청량 가족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학부모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학부모 연수 문화를 조성하여 왔다. 청량 교육 공동체인 학부모들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였다. 교육의 완성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청량 커뮤니티’라는 교육 공동체를 조직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학부모 설명회라는 딱딱한 타이틀을 버리고 ‘청량사랑 커피콘서트’라고 하여 가슴이 따뜻해지는 학교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커피를 마시며 교사, 학생의 공연을 감상하고, 학교 교육활동 설명회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피드백 하고자 노력하였다.

커피콘서트의 형식도 매번 다양하게 구성하여 학부모 참여를 이끌었다. 2013년 2월 학년을 마무리하는 커피콘서트는 인근 극장을 대관하여 실시했다. 대규모 학교설명회와 함께 ‘청량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학부모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독서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연중 활동해 주시는 분들께 교육기부 위촉장을 수여하여 감사의 마음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켰다.

지난 2013년 11월에 실시한 ‘가족애 보물을 찾아서’ 아버지 인성교실은 아빠와 함께 강화 고려 궁성 걷기, 외갓집 체험하기(아빠와 함께 강화 순무김치 담그기), 빛 그림 가족 사진전 행사로 학교와 가정을 잇는 행사가 되었으며 아빠가 함께 하는 학교활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6. 교육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고대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고 한다. 사실일까? 그렇다.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가물다고 불평이나 월망하지 않고 누구에게 핑계대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내니 언젠가는 내리겠지.

우리 교육 또한 언제 쉬운 적이 있었던가? 교육 환경, 교육 여건,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들, 늘 힘들고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좋은 교육이 바른 교육이 될 때까지 학생, 학부모, 선생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왔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살게 된 것이 교육의 힘이라 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진부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희망 교육의 시작과 끝은 물론 그 정점에 우리가 있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창을 열고 행복을 외쳐본다. ◎

선생님이 희망입니다!



→ 인천교육
정책의 이해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인천교육의 변화

변화하는 교육정책들에 대한 이해와 인천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적용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에 대한 문화적 추진전략

|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정책팀
대표집필 : 전문위원 김창진(인천석남초 교사)

교실수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창의·인성교육 실현 방안

|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장 김윤성

미래 핵심역량 육성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 개선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장 김성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른 국제화교육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윤국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에 대한 문화적 추진전략¹⁾

1. 왜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인가?

민선 2기 인천교육의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다. 비전은 우리의 현실에서 갖게 되는 기대이고 바람이자 나아갈 방향이다. 인천교육의 비전은 우리 모두가 교육을 통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현실진단에서 출발한다.

현실에서 긍정적인 지표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83.8%로 1위,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연구(PISA)에서 읽기, 수학 1~2위, 과학 2~4위 (2012)이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31.2명으로 세계 1위이고 더군다나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행복한가? 2014년 들어 명퇴가 급증하고 지속적으로 정년퇴임자보다 명예퇴직자가 늘고 있다. 교사들의 자존감과 효능감은 대단히 낮다. 학부모 또한 OECD 국가 중 사교육비 부담이 연간 19조로 GDP 대비 1위이다. 몇 가지 객관적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공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현실을 진단할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은 이런 현실에서 출발한다. 혁신학교는 새로운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학교로 일반학교의 혁신을 선도해나가고 일반학교는 학교 문화와 구성원들의 합의와 참여를 통해 학교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의 패러다임을 ‘다시금 사람을 우선하는 교육’에 두고, 그 방법론으로 ‘문화적인 접근’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의 비전을 구현하고자 한다.



인천광역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정책팀

대표집필：
전문위원 **김 창 진**
(인천석남초 교사)

1) 이글은 민선 2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행복교육준비위원회 정책팀에서 작성된 보고 문서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2. 혁신학교의 기본 가치와 역할

혁신학교는 공공성,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등 혁신교육의 기본철학을 체계화한 새로운 유형의 공교육 모델 학교이다.

첫째,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그 지향점을 공공성의 가치에 두고 있다. 학교 교육의 수준과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교육기회와 가능성을 차별 없이 향유하도록 하여 모두의 성장과 사회의 건강성을 지향한다.

둘째, 혁신학교 가치는 민주성이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하여 모두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학교 혁신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모두의 참여와 소통, 협력을 이끌어 내는 핵심적인 방법 이자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셋째, 혁신학교는 학교 공동체 운영 및 학생생활의 원리와 관련해 윤리성의 가치를 추구한다.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규범을 제정하고 실천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넷째, 혁신학교는 교육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성의 가치를 추구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해 개별적 성장이 아닌 집단 지성을 통한 협력적 성장이 발휘되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역량을 개발하여 활기찬 배움과 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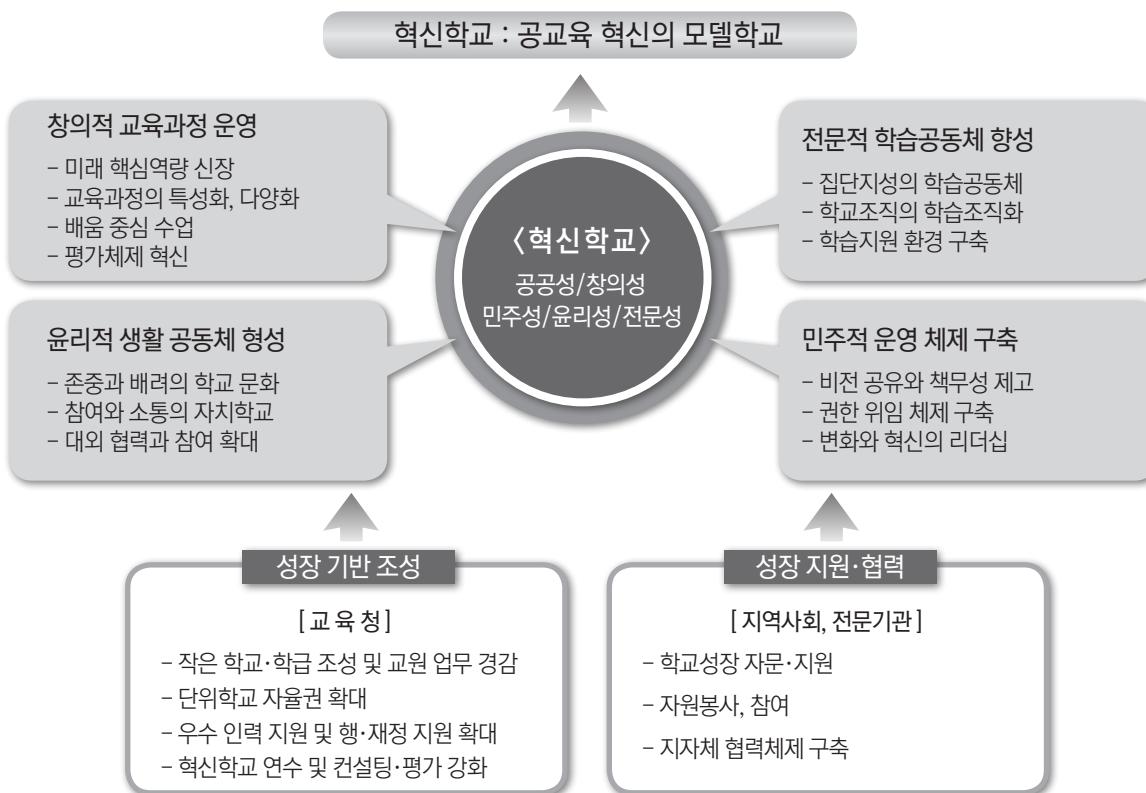
다섯째, 혁신학교는 창의성의 가치를 추구한다. 혁신학교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모두를 혁신한 창의적인 교육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평화와 소통, 협력의 능력을 계발시키고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주체로 세워지는 총체적인 교육 개혁을 추구한다.

혁신학교는 민주적인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모델학교이다. 또한 혁신학교는 인천 혁신 교육정책을 구현하는 중심학교이고, 지역의 혁신 교육을 이끌어가면서 일반학교의 혁신을 선도하는 학교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민주적인 새로운 학교 문화를 생산하는 거점학교이다.



3. 혁신학교의 4대 중점과제 및 세부 과제

혁신학교 4대 중점과제



혁신학교 4대 중점과제는 혁신학교의 가치인 공공성, 윤리성, 전문성, 민주성, 창의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들 간에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윤리적 생활공동체의 형성을 통하여 학생 상호 간, 학생과 교사 간, 교사 상호 간, 학교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 간 배려와 존중, 그리고 협력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존중과 경계, 자율과 책임의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교사간의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으로 개인적 전문성을 추구해왔다면 혁신학교에서의 교사의 전문성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협력적 전문성이다.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이라는 실행을 매개로 교사들이 성찰적인 배움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교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수업과 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 배움과 성장이라는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의사결정 체제와 제도화, 그리고 문화가 민주적인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 구현이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이라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교사들의 자발성, 협력적인 관계를 끌어내고 이것을 교육활동으로 전환해내는 민주적인 운영체제와 리더십은 혁신학교의 성공 요소이다. 이러한 단위 학교 자율경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혁신학교 세부 운영과제

혁신학교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단위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를 학교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학교가 처한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재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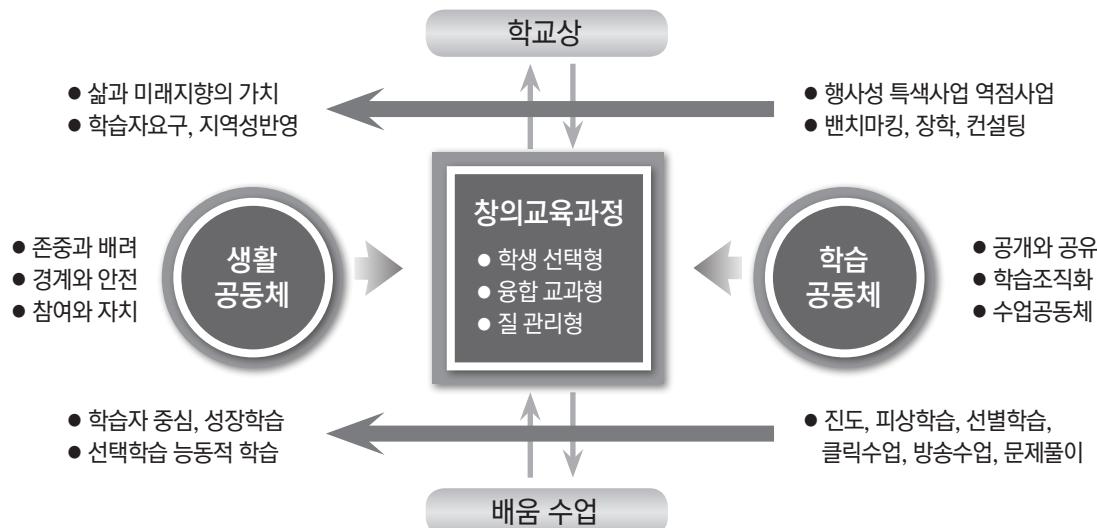
영역	사업제목	사업 내용
1.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자율로 만들어 가는 신나는 학교"	(1) 업무 경감 및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행정업무 경감(불필요한 행사, 대회 통합, 폐지 및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협동적 과업 수행(기능간 연계성, 통합성 제고)
	(2) 민주적 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협의회, 교직원회의,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강화 학교 관리자의 민주적, 변혁적 리더십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설정 및 방향 제시, 권한 위임체제 구축
	(3)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개편(스몰스쿨 운영, 수업과 행정 업무의 이원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신규, 고학년 교사 업무 경감, 학년 중심제 확대 등) 행정지원 협의회(교장실, 행정실 통합 등)
	(4)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정보제공, 참여 확대, 학부모회 활동 강화 등)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형성(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 학교 시설 개방 및 마을 학교 등)
2. 윤리적 생활공동체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행복한 교실"	(1)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존중: 아침맞이, 경어쓰기, 공감과 경청의 교사리더십 솔선수범: 사제동행독서, 아침업무 안 하기
	(2) 학교경계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윤리강령 세우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 생활규범(공적자아 신장 프로그램) 욕설, 폭력, 왕따 없는 평화로운 학교
	(3)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회복적 생활교육 이해를 위한 연수 등) 학생평화교육 매뉴얼(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적용)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적 학급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존중, 봉사, 실천의 학생자치 활동 운영 다양한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3.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함께 성장하는 교사"	(1)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군), 교과 공동실천 문화 만들기 학년(군)/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실천 학년(군)/교과협의회 활성화 전문적 학습 동아리 구성 및 운영
	(2) 함께 실천하는 수업 공동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교과간 공동수업 연구 교수 학습방법 개선·수업 성찰(수업에세이) 수업 협의 및 수업 컨퍼런스 운영
4. 창의적 교육과정 "배움이 즐거운 수업"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핵심역량 구현을 위한 주제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교육과정의 단력적 시간 운영(블록수업, 주기 집중, 계절학교, 4학기제) 통합형 및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학습과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 자유 탐구 학습, 진로 직업탐색, 학생선택 테마형 수학여행 또는 체험학습 - 문화예술체육교육, 독서교육, 민주시민 교육

4. 창의적 교육과정	(2)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가 살아 있는 행복한 수업 만들기 능동적인 배움이 있는 발현적 수업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학습, 문제해결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발견학습 등 참된 배움이 있는 의미 있는 수업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단원 재구성을 통한 공동수업(팀티칭, 공동수업 등) / 교과통합 학습(프로젝트 학습 등)
"배움이 즐거운 수업"	(3) 학습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체제(생활통지표 및 평가 방법 개선, 논술형, 정의적 능력 평가 확대, 수행평가 확대, 상시평가체제 지원, 교사별 평가권 확대) 성취목표 및 성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다양한 지적 능력 평가(창의성, 탐구성, 협동성, 능동성, 문제해결력 등) 학생의 학력을 책임지는 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이력형 평가통지표 개발

4.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

학교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 교사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이 위로부터 제도적인 것, 가시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인천의 학교 혁신과 혁신학교 만들기는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날 혁신학교의 시발점이 된 2000년 남한산초등학교 작은 학교운동도 그러했다. 전인적 인간의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아래로부터 구성원의 내적 자발성을 동력으로 해서 전개되었다. 교육제도와 구조적 접근이 장시간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단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자발성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 변화의 실천이었다.

문화적, 규범적 접근의 의미



학교 혁신에 대한 문화적·규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의식과 태도, 분위기와 일하는 풍토, 동료들과의 관계, 의사소통 방식 등은 제도적 요소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학교 혁신에 있어서 문화적 접근의 기본은 윤리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다. 존중과 배려, 경계와 안전, 참여와 자치가 있는 생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배려와 존중, 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했을 때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학습을 통해 배움과 전인적 성장이라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모든 교육활동이 교사들의 전문성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결정된다면 학교문화에 있어서 교사들의 간의 관계가 협력적 전문성을 신장하는 관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교사의 전문성은 개인적인 전문성이었다. 전문적 지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것이 전문적 교수자에 의해 전달 가능하고 실행자에 의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은 외부의 연수에 의해 보정되는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교육실천의 장은 학생 요인, 학교문화와 교육활동의 맥락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외부의 이론적 지식 중심의 연수는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연수가 형식화 되고 교사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면서 고립과 불간섭주의, 교실주의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학교문화의 변화

학습공동체는 문화적 환경으로 모두가 학습 환경의 요소를 이룬다. 학습공동체를 이루는 성원들 간에 수업, 생활지도, 교육과정 안에서 서로 배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행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실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집단적 사고의 과정이다.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일회적이고 개인적인 장학과 코칭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성찰과 공동 작업에 의한 학습활동은 수업에서도 구조와 모형에 의존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관계적 의미적 수업을 추구하게 된다.

교사들이 개인주의 문화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협력적 문화에 참여하면서 교사의 공동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교육활동이라는 실행을 중심으로 한 성찰적, 협력적 교사문화는 교사의 자존감 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결요건

무엇보다 업무 경감 및 업무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성장이나 학교의 교육력 신장과는 거리가 있는 실적 중심의 전시행정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행정업무 전담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고 권한 위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료들의 수업을 관찰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리감을 줄여야하고 적절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 학습과 다른 전문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전반에 걸친 소통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가장 좋다고 믿는 것을 하기 위해 교사들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와 협의체에 권한 위임과 학교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교육활동을 힘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5.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인천형 혁신학교

인천형 혁신학교의 내용

인천형 혁신학교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보편성과 인천의 교육현실을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인천형 혁신학교는 중심학교로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학교 혁신이 동시적으로 추진된다. 혁신학교 추진은 크게 4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진행된다. 4개 중점 추진과제 영역은 윤리적 생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민주적 운영체제 구축이라는 단위 학교 중심의 전체적인 혁신과제이다. 일반학교에서의 학교혁신은 정책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다. 4개의 중점과제에 대해 1개 영역 이상의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1년 단위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후에 연장해서 추진하거나 혁신학교로 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교육, 행복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둘째, 인천형 혁신학교는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동력으로 하여 교사의 자발성에 의해 아래로부터 교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학교의 수업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단위 학교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인천형 혁신학교는 철저하게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와 목표로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배려와 존중, 소통과 설득, 공감의 과정을 문화와 제도로서 절차화 하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을 살려서 교사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갖기 위해서는 교사와 협의체에 대한 권한위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로서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인성과 인권의식을 갖춘 자율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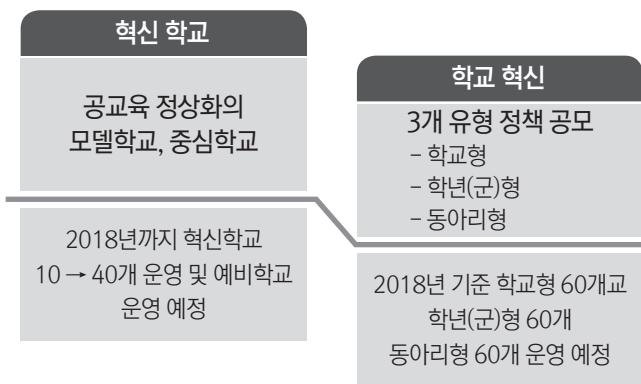
넷째, 학생들이 교육에 있어서는 정서적 지원과 돌봄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가 변화된 가족환경과 사회 환경으로 인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학습 동기가 약하다면 정서적 지원과 돌봄이 없는 교육활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생들의 실수와 일탈에 대해서도 징벌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관계와 피해를 회복하고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적 생활교육에 의해 평화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

다섯째, 문화교육, 감성교육의 차원에서 예체능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문화교육이란 기능교육을 넘어서 정서적 감응과 표현, 의미의 구성과 표현, 협력적 관계와 소통 등 정서적 공감교육의 맥락에서 예체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학습동기와 정서적 안정이 부족한 학습자에게 다양한 표현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높일 수 있고, 우뇌중심의 예체능 교육이 좌뇌 중심의 인지적 교육과 결합하여 더욱 창의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다. 이러한 기초교육의 바탕 하에 집단지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교육, 문제해결교육, 토의 토론 교육, 프로젝트 학습 등 학습자의 활동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미래형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미래형 학력의 바탕이 되는 것이 기초학습보장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선제적으로 기초학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인천형 혁신학교는 지원이 더 필요한 지역, 학교, 학생들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봤을 때 태어난 지역은 달라도 모두가 공평한 교육, 가능성의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혁신지구부터 혁신학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활을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혁신학교 추진의 다양화

인천에서의 혁신학교와 학교 혁신은 중심학교로서 혁신학교와 학교 혁신에 대한 일반학교의 정책 공모 사업 참여로 전개된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행복교육 추진에는 학교와 교사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준비정도와 여건에 따라 참여의 정도가 다양할 뿐이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교 혁신의 모습이다.



혁신학교 선정과 관리

혁신학교 선정은 인증형, 공모형, 지정형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증형은 학교 운영이 혁신학교 운영철학에 적합한 학교를 발굴하여 인증해주는 방식이고, 학교 공모형은 혁신학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예비학교 기간을 거쳐 심사를 통하여 정하는 방식이며, 지정형은 신설교나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 등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초, 중, 고를 대상으로 하고 학교급별, 지역별로 안배하여 이루어지며 교육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4년 단위로 하고, 4년차 종합평가를 통하여 연속해서 지정받을 수 있다.

선정방법은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와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을 기초로 한 운영계획서, 심층면접, 현장 실사,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서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진다.

혁신학교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는 매년 혁신학교 평가지표를 참조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2년차에 중간평가와 4년차 종합평가를 하며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평가는 제외한다.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

혁신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 받고, 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정원의 30~50% 내외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학급당 인원은 25명 내외를 목표로 하고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만기가 되지 않은 교사도 혁신학교에 전보를 희망할 경우 초빙 가능하다.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업무 전담인력과 협력교사, 상담, 사서 교사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 받는다. 재정지원은 교당 5천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 원 내외에서 지원 받게 된다.

혁신학교 추진체계

혁신학교 지원체계는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혁신학교추진단을 구성하여 혁신학교 정책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여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관내 혁신학교를 지원하도록 한다. 혁신학교와 예비학교, 정책공모 학교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단을 조직 운영하고, 혁신학교와 예비학교, 정책공모 사업 학교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서로 배워나가도록 한다. 학부모 네트워크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혁신학교가 지역의 문화 활동의 중심이면서 마을의 학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혁신학교 직무 연수

혁신학교 동력확보와 지속성,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사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혁신학교 직무연수(15시간), 기초연수(15시간), 컨설턴트 양성 연수(120시간), 온라인 연수(30시간)가 이루어진다.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혁신학교 관리자 연수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실장 연수 등이 이루어진다.

교육혁신지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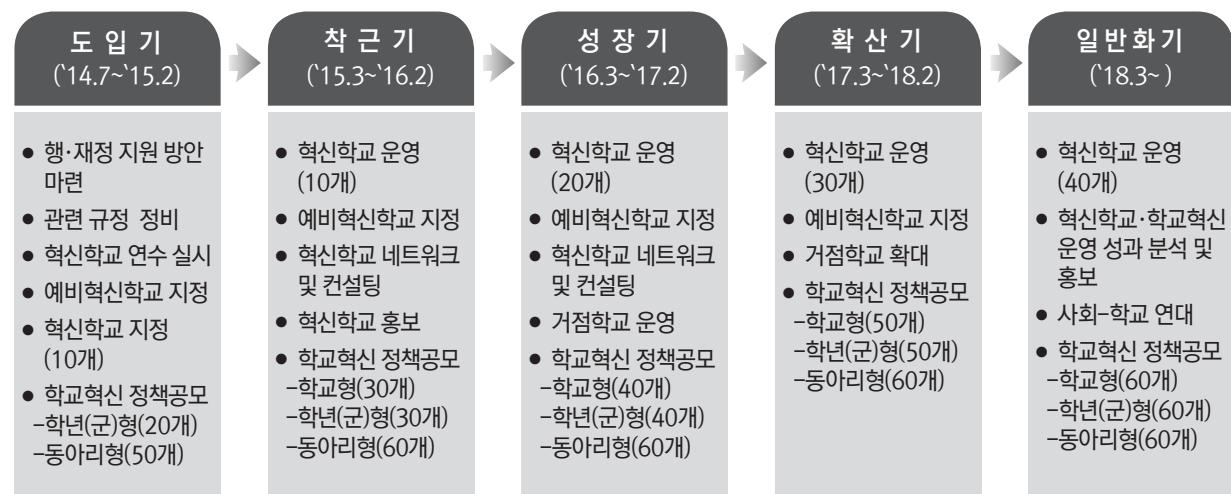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교육혁신지구에서는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 학력향상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환경 개선, 인적 자원 우선배치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협력교사(문화예술, 기초학습 등)배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방과 후 학교 운영, 방과 후 전담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며 소규모 테마 체험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태어난 지역이 달라도 누구나 출발점이 같은 공교육, 가능성의 평등함을 위하여, 학교-교육청-지역사회-지자체가 새로운 교육협력 시스템 구축한다.

혁신학교 연차별 계획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은 아래 표와 같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산시켜갈 계획이다. 1년차에는 10개의 혁신학교와 학교 단위 정책공모 학교 30개, 혁신학년 30개, 동아리 60개에서 출발하여 5년차에는 혁신학교 일반화기로 혁신학교 40개, 학교 단위, 학년단위, 동아리 단위 각각 60개씩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학교 추진은 단순히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단위 학교 문화와 실정에 맞게 확산시켜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통해 학교 급별로 서로 소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혁신학교 벨트를 통해 초, 중, 고 혁신학교를 수직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6. 일반학교에서의 학교혁신 정책공모사업

중심학교로서 혁신학교의 추진과 일반학교에서의 학교 혁신의 추진을 위해 정책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금까지 학교 단위 자율성과 교사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위로부터의 개혁 작업이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에 근거한다.

일반학교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교사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학교 혁신과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선택권을 주고 교육청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교 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학교, 학년, 동아리 등 참여 단위 다양화를 통해 학교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한다. 동아리에서 학년, 학년에서 학교 정책 공모 학교에서 혁신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내실 있게 학교 혁신이 추진되도록 한다.

정책 공모 사업 영역은 혁신학교 4대 중점과제와 같다. 이를 학교단위 실정에 맞게 세부화하고 구체화 시켜 추진해 나가면 된다.

영역	민주적 학교 운영체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사업 제목	1) 업무 경감 및 효율화 2) 민주적 학교운영 3)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만들기 4)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1)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만들기 2) 학교 경계 세우기 3) 회복적 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	1)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2) 함께 실천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특성화 2) 배움 중심의 수업개선 3) 학습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

학교혁신 정책공모사업 참여 유형

지원 유형	학교형(A형)	학년(군)형(B형)/동아리형(C형)
지원 형태	학교 혁신 추진 영역 중 (1.창의적 교육과정 2.전문적 학습 공동체 3.윤리적 생활공동체 4.민주적 학교운영체제) 1개 영역 이상 자율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군)형(B형) 학년 단위로 1개 학년(군) 이상 운영 동아리형(C형) 1. 교내 교사 5명 이상(동학년, 학년군, 학년간) 2. 학교 간 10명 이상
지원 금액	500만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군)형(B형) 300만원 내외 동아리형(C형) 100~200만원 내외
지원 자격	희망하는 모든 학교	희망하는 모든 학교 학년(군), 교과 동아리
지원 내용 (아래 영역 참고)	기본 : 학교 혁신 모든 영역(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혁신 교과/학년(군)학습 연구 동아리(동학년(군), 학년간, 학교간) 문화예술교육, 진로 체험교육 활성화 등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등 	

정책공모 사업은 크게 학교형, 학년형, 동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형을 추진하는 시기는 2015년부터이고 학년형 20개, 동아리형 50개는 2014학년도 2학기에 곧바로 시작된다.

학교형은 혁신학교 4대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을 학교 단위로 추진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신청하면,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교사들의 자발성과 민주적 의견 수렴 정도, 계획의 충실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고 5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년형 정책공모 사업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되는데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혁신학교 4대 중점과제를 선택하여 사업에 응모하면 된다. 대개의 경우 학년교육과정과 교육활동, 이를 뒷받침할 전문적 학습공동체로서 동학년협의회 운영계획 등을 계획서에 담아 신청하면 된다.

동아리형 정책공모사업도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로서 운영계획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학교, 학년, 동아리 단위로 정책공모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됨으로써 인천의 모든 학교와 교사들이 행복교육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미래형 학교 만들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7. 사람과 민주주의, 마음과 문화로 시작하는 행복교육

민선교육감 2기를 맞아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그 핵심적인 방법이자 목표는 민주주의이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배움이 일어나는 현재적 삶이 행복해야 한다. ‘행복한 학생이 공부도 잘한다.’라는 관점에서 돌봄과 책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해가야 한다.

이러한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 또한 교사의 자발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학생들과 배움의 관계 성립과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삶을 가꾸는 의미 있는 수업을 전개하는 것도 교사이다. 학교가 바뀌기 위해서는 교사의 개인주의적 문화, 교실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교사 개인이 모든 학생들에 대한 돌봄과 관계의 정립, 교육활동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 단위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이라는 실행적 과제를 동료들과 같이 실천하고, 성찰과 학습을 통해 진전시켜 나갈 때 동료교사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고, 교육적 성취를 통해 자존감과 교사로서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교육행정은 학생들의 성장과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수업과 교육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교사들과 각각의 협의체에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적인 책무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지원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같이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교육이 모두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교실수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창의·인성교육 실현 방안



“교사의 꽂은 수업이다.”

“교육자는 자긍심으로 살고,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사의 질은 학습지도에 관한 전문적 권위와 학생과의 인격적 만남을 전제하는 도덕적 권위에 의해 가름된다.”

I. 들어가는 말

최근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두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성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규정하여,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¹⁾을 고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²⁾”를 국정과제로 삼고, 학교생활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학교수업의 내용·방법 및 평가방식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되는 미래사회는 지식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결국 인성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듯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시위주 및 경쟁 중심의 학교생활, 성적 지상주의, 강의식 수업, 교사의 무사안일 등이 문제이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실수업을 위해 창의·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장

김윤성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3-14호: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2012.7.9.)
2) 국정과제: 66-1.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

성모델학교 운영,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컨설팅장학 실시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실수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실수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업의 변화 방향과 ‘배려’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창의·인성교육의 실현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II.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실수업 변화

교사가 변해야 수업이 변화한다?

교사,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등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특별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고, 공인된 자격을 요구하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직업윤리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나 될 수 없는 전문가이기에 이들에게는 사회적 지위와 대우 또한 높게 마련이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이런 ‘~사’자 붙은 전문가 가운데 교사는 웬지 모르게 사회적 지위와 대우 면에서 약해 보인다. 다른 직종과 비교해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고 또 아무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교사는 임금과 부모와 견줄 정도로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교육 현장을 보면 교사의 권위는 실추되어 있으며 학생,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따라 교사의 사기는 떨어지고, 무사안일에 빠져 교실수업 개선의 의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놓아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실수업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수많은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교사의 변화가 교실수업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동안 인성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의 인성교육이 추상적인 덕목 주입과 행사·캠페인 위주의 일회성 교육으로 인식되어 실효성이 미흡했으며,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부족, 사회 전반의 총체적 노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해 행복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변화를 토대로 교실수업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행복한 교실수업을 위한 인천 교육의 방향

1. 교육과정과 창의·인성교육의 연계

최근 들어 학교현장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을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교실수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큰 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 한 후 교실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른 인성과 창의성이 함양되도록 수업의 내용·방법 및 평가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초·중등학교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 인성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등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정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1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규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 중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자.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렇듯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에서 학교급별 특성 및 학생의 발달을 고려하면서도 학교에서의 실천적 인성교육 실현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초·중·고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 함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별 목표에 ‘인성교육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요즘 새롭게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인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을 함양시키자는 것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 또한 교실수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 창의·인성모델학교 운영

우리교육청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교실제 구축 등 창의적 수업여건 조성과 더불어 창의·인성 수업모델 확산을 위해 인천 관내 초·중·고 12교를 창의·인성모델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학교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창의·인성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구체적 운영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초등학교]

■ 벤치마킹 특화 프로그램

[교과] 2S 창의·인성 수업을 통한 4C 신장³⁾

창의·인성 모델 벤치마킹 포인트

- 스토리텔링 기반 수업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돋는 수업 모델을 제시
-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과형 융합 스팀수업모델을 제시
- 창의인성수업을 통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과 창의·인성모델학교 정기 컨설팅을 연계

3) 4C는 STEAM 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말하며, 융합적 지식 및 개념형성(Convergence), 창의성(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를 뜻한다.

[창체] 또래조정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창의·인성 모델 벤치마킹 포인트

- 또래 조정 양성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 심성수련 및 또래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의 다양한 효과 검증
- 특화사업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여 일반화 기여

3.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학벌 등 외형적 성취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인성교육이 약화되고 있으며, 학교수업에서도 진학을 위한 성적향상이 중요시 되어 학생의 참여를 강조하는 수업 보다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학교수업의 내용, 방법 및 평가 방식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성교육의 7대 핵심 덕목

- 교육기본법, 교육과정 등에서 제시된 주요 인성을 바탕으로 미래인재에게 요구되는 친사회적 인성을 7대 핵심 덕목으로 선정하고,
- 학생들이 7대 덕목들을 학교급별 학년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인성교육 추진



■ 인성교육 중심 수업의 개요

- (수업 내용) 인성 덕목 및 역량 기반으로 학습자 삶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 (수업 방법) 지식 전달위주 수업을 협력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학생참여, 활동중심 수업으로 전환
- (평가 방법) 프로젝트 평가, 동료평가 등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방법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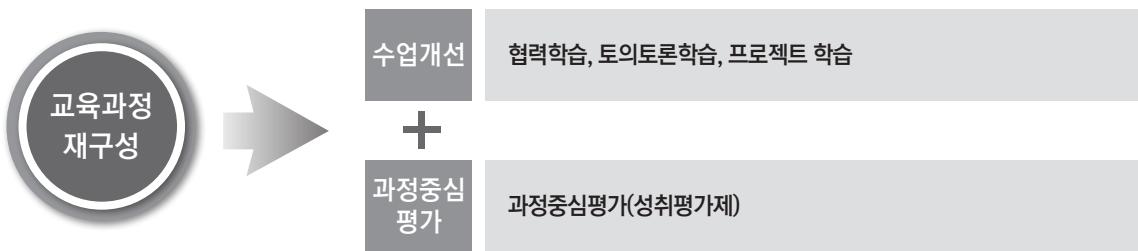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도 2014 인성교육 강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확산을 목표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천적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규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른 인성이 함양되도록 인성교육 중심수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5개 교육지원청별로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 컨설팅 지원단의 역할

- (연수 및 학습) 학교 교육과정 관련 다양한 요구에 대한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 (맞춤형 지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개선 및 과정중심 평가 컨설팅
- (학교역량 강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 구현에 부합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사례 발굴)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 관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4.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도입된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교과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우리교육청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을 통한 창의체험교육기부자원 매칭서비스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자 연수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컨설팅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용 우수 학급 공모 및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 권장

5. 교사의 수업 변화를 지원하는 컨설팅장학

장학의 개념과 지향이 컨설팅 형태로 바뀐 것은 2011년부터이다. 전통적인 지시위주의 장학에서 지원형태의 컨설팅장학으로 바뀌며, 우리 교육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행초기 컨설팅장학에 대한 거부감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소극적이었던 교사들이 최근에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컨설팅장학을 신청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교육력 강화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컨설팅장학을 적극 활용하는 등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컨설팅장학은 교실수업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교육의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장학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실수업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6. 창의·인성 교실수업 개선 지원

우리교육청에서는 창의적 수업방법 개선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우수 수업기술의 공유를 통해 교사의 교수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의·인성 교실수업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수업연구발표대회 및 수업우수교사 인증제

평소 학생의 수업만족도가 높은 수업을 주도하는 우수교사 발굴을 위해 수업연구발표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예선 1차, 2차에 걸쳐 교수·학습과정안 심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본선에서는 현장수업 실사를 통해 우수 수업 교사에게 연 구점수 1~3등급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수업연구발표대회 입상자(초등 1등급, 중등 1·2등급)에 대해 수업우수교사 인증제를 실시하여 성취동기 강화와 우수 수업기술을 확산시키고 있다.

■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교육 전문성 확보와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특별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 20명(초등 10, 중등 10)을 선발하여 장학지원 활동 및 연수 지원을 하고 있다.

■ 수업선도교사제 운영

수업을 선도할 초, 중등 우수 교사 47명을 선발하여 우수 수업 공개를 통한 수업개선 선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업 동영상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 수업개선 연구학교 운영 및 장학자료 개발·보급

2014년에 수업개선 연구학교 3교(초1, 중1, 고1)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개선 협의 및 공개 수업을 실시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 수석교사제 운영

2014년에 초, 중등 수석교사 72명이 활동 중이며, 수석교사를 활용한 수업컨설팅 실시와 수석교사의 공개수업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7. 과정과 성장을 중시하는 평가방법의 개선

교실수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창의·인성교육이 실현되고, 교실수업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의 창의·인성 계발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방식의 모색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서술형 평가의 확대 및 수행평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결과중심의 평가에서 과정중심의 평가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에 따라 수업방법에 맞는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 프로젝트 평가, 동료평가 등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III. 맺는 말

교육의 패러다임이 창의·인성교육으로 변화하고,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실수업의 변화가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변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실수업의 변화는 교사에게서 출발을 한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 수업모델을 개발·보급 하더라도, 실제 수업을 하는 교사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직접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선다.”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교육 공동체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여 요즘 학교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교육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교육공동체인 학생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교사에게는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부단한 자기연찬이 필요하며, 소명의식과 책무성을 제고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교육 청 교육지표인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수업의 변화, 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창의·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우리교육청에서는 창의·인성모델학교 운영,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컨설팅장학 실시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교실수업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미래 핵심역량 육성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 개선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1. 미래의 고교 교육 변화

가.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

OECD는 2001년에 미래의 학교교육 발전 방향을 6가지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시하였다.¹⁾ 6가지 시나리오는 현 상태 유지, 학교 강화, 학교의 폐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각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학교의 조직과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시나리오	학교의 조직과 구조
현 상태 유지	1. 관료적 학교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체제의 강력한 중앙집중적 성격 지속 - 교실에서 교사의 주도성이 계속 유지 - 지역사회와의 연계 비활성화
	2. 시장 모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화, 바우처 시스템 등 학교 경영 형태 다양 - 개별화 및 홈스쿨링이 번성하고, 조직 다양화 - 시장 모델이 중등교육 수준에서 강력 발전
학교 강화	3. 핵심적인 사회센터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덜 관료적인 새로운 조직 형태가 강해짐 - 학교의 ‘높은 벽’이 붕괴, 학생 집단 다양화됨 - 초중고등 학교급간 구분 불명료해짐
	4. 핵심적인 학습조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조직, 팀 중심 접근법이 강조됨 - 팀 중심 접근법, R&D에 대한 새로운 투자 - 학교, 제3의 교육, ‘지식 산업’ 간의 연계 확대
학교 폐지	5. 학습자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이 개인적 수준, 학습자-부모-전문가 상호망을 통해 일어남 - 기초 지식과 사회화를 위해 일부 초등학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공립학교 유지
	6. 교사 이직 및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과 신규 총원 미흡으로 교사 부족 발생 - 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평가 방법 개발 - 부유한 학부모는 사교육 옹호하고 공교육 저버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장

김성기

1) <http://classroom.re.kr/uploadfile/content/content13/second08/data01/sub06/>

이런 시나리오에 기초할 때 현 정부의 중등교육 핵심정책인 자유학기제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는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 일반고 다양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등 학교 교육의 공정성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온 치(Keon Chi)는 미래사회를 위한 행정부가 되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²⁾

퇴보하는 행정부	선행하는 행정부
기성 세대의 관심사만 다루기	미래 세대의 관심사를 다루기
단기적 대응	장기적, 전략적 대응
개별 부처의 개별 대응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 국가적 대응
시급한 문제의 부분적 해결	복합적 문제의 전체적 해결

미래 교육의 시나리오와 케온 치의 전략을 근거로 우리교육청의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생의 관심사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둔다.

둘째, 인천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고려하여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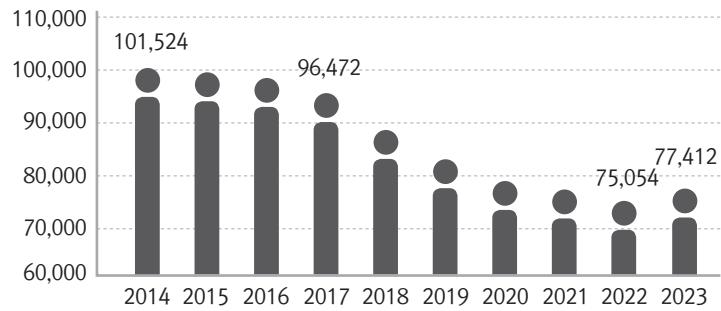
셋째, 교육청-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간의 일반고 역량 강화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

넷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단기적 해결이 아닌 체계적, 전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나. 인천 고등학교의 10년 후 두 가지 시나리오

오른쪽 그림은 2014년 인천의 학교 현황³⁾ 자료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 고등학생 수의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 2014년 4월 1일 현재 101,524명의 고등학생이 2022년에는 75,054명으로 26,470명(2014년 대비 26%) 감소하게 된다.

이런 학생 수의 감소에 대응하여 현재 학급수(3,370학급) 유지정책과 현재의 급당 학생수(30.1명) 유지정책 두 가지



2) Keon S. Chi, 'Four Strategies to Transform State Governance', 2008.,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연구백서201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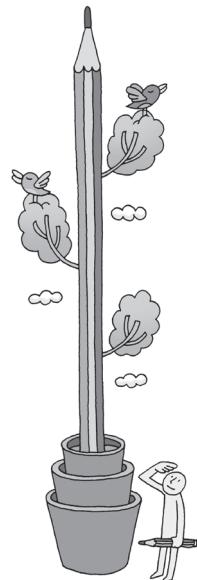
3) <http://www.ice.go.kr/civil/faq.asp?mode=view&page=1&idx=232344&bid=M04>, 인천의 모든 고등학교를 합한 학생수임.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급수 유지정책에 의할 때 2022년에는 고교 교사 6,811명이 3,370학급에서 교사 1명이 학생 11명을 지도하게 된다. 이런 경우 교사는 학생 지도 부담이 경감되고,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진다. 교육수요자는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급당 학생수 유지정책에 의할 때 2022년에는 급당 학생수가 30.1명으로 계속 유지되므로 교사가 1,707명 감원되어 5,104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교실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교원이나 교육수요자들은 모두 교육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므로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시나리오가 주는 시사점은 교육수요자의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를 교육 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게 될 경우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기능 최소화를 요구할 것이고, 결국 OECD의 6가지 시나리오 중 학교 폐지가 인천 교육에 나타날 가능성에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는 향후 10년의 인천 교육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고,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현상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 변화(개별화교육, 맞춤형교육)를 미리 예측하여 질 높은 고교 교육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속에 인천 고교 교육의 향후 10년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천 일반고 교육 개선 방향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3-7호)에서는 고등학교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2012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연구보고 RRC 2012-4)에서는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목표에서 지식, 진로개척능력, 자주적(평생)학습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사회적 책임의식 등 여섯 가지를 고등학교에서 길러주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다.

학교가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케온 치의 전략에 근거할 때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미래 세대의 관심사 다루기), 지속 가능한 교육과정(장기적, 전략적 대응), 학생·학부모·학교가 공감하는 교육 계획(비전과 목표의 공유)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종합 계획(전체적 해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교과협의회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교원의 수급을 주요 관점으로 삼아 편성, 운영된 점이 없지 않다.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해 학생의 진로 희망은 문과, 이과로 이분화되어 고려되었다. 학생의 진로 실현을 위한 수단인 대학 진학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력을 선발적 기능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보니 모든 학생의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달보다는 학생 서열화하는 교육 및 평가가 이루어졌고, 성적 산출의 공정성을 위해 모든 학급에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시기에 제공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교사 주도의 교실 수업이 진행되었고, 학생의 참여보다는 교사의 설명이 주가 되는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유로 고교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되려면 문·이과 계열 정치 극복, 학생의 맞춤형 지원, 교사 주도의 수업 지향,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 다양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 학생의 활동 중심 수업 등을 위한 교육활동 개선의 폭과 깊이가 향후 10년 이후의 고교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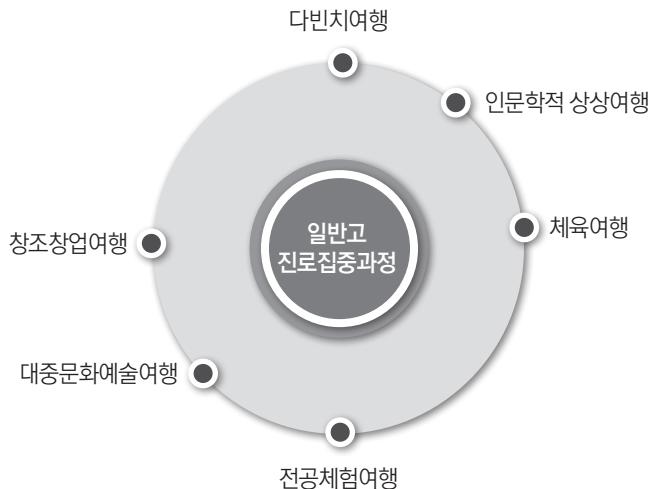
2.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집중과정 다양화

가.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의 기본 구조

우리교육청은 일반고가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고교가 될 수 있도록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2014년에는 이를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 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크게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집중과정, 일반고의 교육역량 장애 요인 최소화, 다양한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핵심은 진로집중과정이다.

진로집중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희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전의 문과, 이과 이외의 1개 이상의 과정을 추가 개설한 과정이다. 진로집중과정은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를 고려하여 개설 시기가 다양화된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목표가 선명해진 중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고1부터 운영할 수도 있고, 고 1 시기에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2학년부터 개설하기도 한다.



진로집중과정 학급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서는 다빈치여행, 인문학적 상상여행, 창조창업여행, 대중문화예술여행, 체육여행, 전공체험여행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진로집중과정을 통한 학교 다양화

진로집중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탐구하도록 설계된 교육과정⁴⁾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진로집중과정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국가 사회적 요구보다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교육과정이며, 학문 중심이 아닌 진로 중심 교육과정이다. 진로집중과정은 교육과정이므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으로 구현된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므로 진로집중과정 고유의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지도 인력 등을 동시에 고려한다.

진로집중과정⁵⁾은 문·이과로 획일화되어 양분된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근거로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계획되는 교육과정이다. 이는 기초영역 중심의 기존 교육과정이 지난 한계와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교육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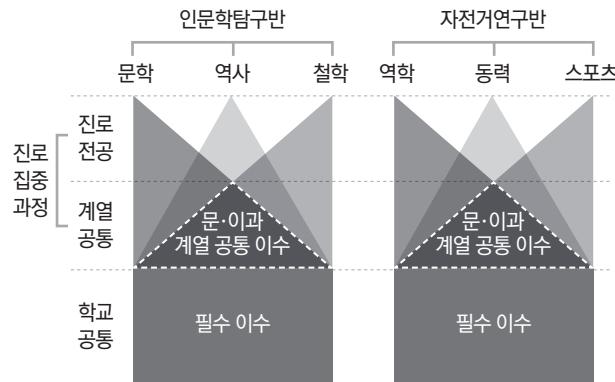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진로집중과정은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학교 공통과정(국어, 수학, 영어, 교양 등), 종전의 문·이과 단위로 이수하는 계열 공통과정(사회, 과학 등)을 더하여 진로집중과정 학생들만 이수하는 진로전공과정(관련 교과목의 심화과목, 혹은 과목 신설)을 이수하게 된다.

진로전공과정은 그동안 개설되지 않았던 소수선택과목이나, 교육과정 편제표에 없는 새로운 교과목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야 하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교는 진로집중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청은 진로전공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개발,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네 가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4년 현재 일반고 대부분은 진로집중과정을 편성하였다. 그 중 10개교는 1학년 1학기부터 박사급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8개교는 1학년 2학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1학년 진로집중과정 운영학교는 학급 편성에 큰 애로를 겪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진로집중과정 중점학교를 지정, 중점학교에 신입생을 우선 배정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일반고 진로집중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2014년 3월 31일 고입제도를 개선하였다.



4) 하화주(2013).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집중과정 구현. 교육부 주관 진로집중과정 정책세미나 자료.

5) 하화주(2013). 일반고 교육과정의 문제점

다.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 소개

진로집중과정이 다양화되면 일반고가 무지개처럼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고가 개설 의지를 갖고도 나서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일반고 지원을 위해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 프로젝트는 일반고에서 개설하기 힘들지만 필요성이 큰 과정을 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하여 학교가 진로집중과정 편성, 운영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은 청소년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다빈치 여행(11개 대학 연계), 서울대와 함께하는 인문학적 상상여행, 중앙대와 함께하는 창조창업여행, 동국대와 함께하는 대중문화예술여행,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체육교육 중심학교, 선생님과 함께하는 전공체험여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학술 동아리를 다양화하기 위해 인하대 WISET 사업단과 함께 인천 청소년 학술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소년 학술제는 연구 논문발표 분야와 연구 포스터 발표 분야로 나누어 개최된다. 연구 논문발표 분야 참가자는 4월에 사전 심사하여 논문을 지도할 대학교수를 팀당 1명씩 연계하였다. 현재 이 분야에는 160팀에 783명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이다. 모든 팀에는 교사 1명과 교수 1명이 참여하고 현재 160명의 교수가 고교생을 지도하고 있다. 포스터 발표 분야에는 학교 자체 과제연구를 진행하는 학술동아리가 참가한다. 학교 자체 연구는 대학과 연계하거나 재직 교사의 지도로 연구한 학생들이 참가한다. 이 중 대학과 연계하여 자체 연구를 진행하는 팀은 73팀, 325명이 있다. 참가 학생들은 11월의 학술제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서울대와 함께하는 인문학적 상상여행은 프랑스의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바칼로레아 평가를 벤치마킹하여 인문학적 상상력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우리교육청과 서울대학교는 공동으로 인천인문에세이 평가 문항⁶⁾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였다. 학교는 문항을 이용하여 예선을 치렀고, 예선에는 3,30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 중 선정된 중고등학생 414명과 지도교사 84명은 사전 공개된 평가 문항에 답할 수 있도록 인문학 프로그램(10회차)에 참여한다. 1~7회는 인문학 강연과 공연을 보고 이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8~10회차는 제공된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쓰게 된다.

중앙대와 함께하는 청소년 창조창업여행은 고등학생들에게 창조경제, 경영 및 창업에 대한 이해를 돋고, 진로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하여 고등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마인드 제고와 창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관련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병행하여 교사들의 경영·경제교육 지도역량과 진로집중과정 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조창업과정은 일반창업과정, 기술창업과정, 서비스창업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고, 학생 342명 교사 43명이 참여한다. 각 과정은 이론 및 기업가 정신 함양 강연과 창업 계획서 작성 등 실기 수행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학생과 공동으로 행복주식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11월에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

6) 제1회 인천인문에세이평가(IHET, Incheon Humanitas Essay Test) 문항

1. 나다움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나답게 사는 것인가?
2. 행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3. 의무를 다한다는 것과 권리행사를 한다는 것은 대립되는가?

동국대와 함께하는 대중문화예술여행은 일반고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대학에 위탁 개설하여 고교생의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대중문화예술여행은 공연예술(90명)과 실용음악(90명) 등 두 분야로 나누어 운영된다. 대중문화예술여행은 7월 12일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20일간 140시간 운영된다. 이 과정 신청자는 총 505명이었지만 이 중 180명(교사 15명 포함)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동국대 예술대학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 후에는 발표회를 할 예정이다.

체육계열 희망학생을 위해서는 총 10교의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체육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중심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 교과연구회가 일반고 다양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국어교과연구회는 문학캠프 「문학, 이야기 속으로」, 도덕·윤리교과연구회는 인천광역시 「윤리·철학 한마당」, 지리교과연구회는 「인천 땅 바로 알기 지리 캠프」, 역사교과연구회는 「인천역사 과거대회」, 일반사회 교과연구회는 「북 콘서트」 등, 「과목별 경시대회」, 「토론면접캠프」 등을 개최하여 일반고 학생의 전공 적합성 검증을 위한 교과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라. 지속가능한 고교 교육 개선 체계 구축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진로집중과정 뿐만 아니라 행복여행 프로젝트 또한 교원들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선뿐만 아니라 교원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올해 교육역량강화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신설하였다. 연구대회는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행복여행, 교육과정 개선, 기초학력, 자기주도학습 지원 등에서 교육역량강화 성과가 우수한 교원을 발굴하여 그 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한 것이다.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는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법과 운영 역량을 갖도록 사제동행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으로도 부족한 학생들이 일반고에 있다. 고등학교 생활 부적응학생을 위해서는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진로적성을 찾아주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3. 전망과 과제

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요약

지금까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일반고 진로집중과정 운영, 진로집중과정 운영을 위한 행복여행,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지원제도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진로집중과정은 모든 일반고에서 운영하게 되며, 그 중 일부 학교를 진로집중 중점학교로 선정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진로집중과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다빈치여행, 인문학적 상상여행, 창조창업여행, 대중문화예술여행, 체육여행, 전공체험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학 혹은 교과연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육역량 강화에 기여한 교원을 우대하기 위해 연구대회를 신설하였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직업교육 희망 학생을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2014년 진행 중이다.

나. 미래 고교 교육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핵심은 진로집중과정 다양화이다. 진로집중과정이 다양해지면 중학생의 일반고 선호가 증가할 것이다. 일반고 선택도 지금처럼 단순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적절한 집중과정을 개설한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중학생의 고교 선택을 학교가 상담해야 하므로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중3 담임교사의 상담 역량이 강화될 것이고, 고교 선택의 시기가 중 1, 2학년으로 앞당겨지게 되므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대학 진학을 위해 우수 학생들이 특목고, 자율고 중심으로 진학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더 이상 일반고는 특목고에 비해 부족한 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일반을 지칭하는 위상을 회복할 것이다.

중등교육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일반고 진로집중과정 다양화이다. 현재 진로집중과정은 과정에 대한 정보, 교과용 도서, 수업 인력, 운영 프로그램 및 지원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개설하는 진로집중과정의 고유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교사 연수를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대(인문학 등), 인하대(이공, 융합과정), 중앙대(창업과정), 청운대(로봇 등 융합 과정)와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관련 진로집중과정을 희망하는 학교와 대학을 연계해주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이 외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진로 희망 학생을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4년 3월에 중학교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4학년도 고입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진학 희망 중3 학생은 395명이었고, 이 중 실제로 진학한 학생은 171명이었다. 이 학생 중 상당수는 타시도 고교로 진학한다. 현 중3 학생 중에는 대중 문화예술분야 진학 희망 학생이 767명인데, 올해 동국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도 180여명 정도만 수용 가능하다.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고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문화예술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일반고의 직업교육 희망학생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창업여행, 진로변경전입학제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희망 학생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직업교육 희망학생 중 진로변경 전입학 미신청 학생은 희망하는 직업교육 분야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특성화고의 학과 증설 및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른 국제화교육

-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를 중심으로

I . 교육국제화특구의 이해

1. 교육국제화특구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2012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연수구, 인천서부(서구·계양구), 대구북구, 대구달서구, 전남 여수시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였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글로벌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국제화 역량 제고와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2.7.27 제정·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계 주요 강국과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등은 이미 교육개혁, 학습혁신을 핵심적인 발전전략으로 인식하고, 우수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지역을 선정,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특구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국제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제화 특구 사업에 응모하게 되었다.

인천은 그 동안 GCF 사무국 유치,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교육포럼 유치 등 국제도시로서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를 계기로 국내 유입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이들을 위한 정주 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천이 아시아의 교육 혁신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 교육도시로의 변신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화 사업이 대학 등 기관 중심으로 소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국제도시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계층이나 일부 기관만의 국제화가 아닌 초·중등교육 및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단위의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 추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구 지정에 앞서, 인천연수구와 인천서부(계양구·서구)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특구 지정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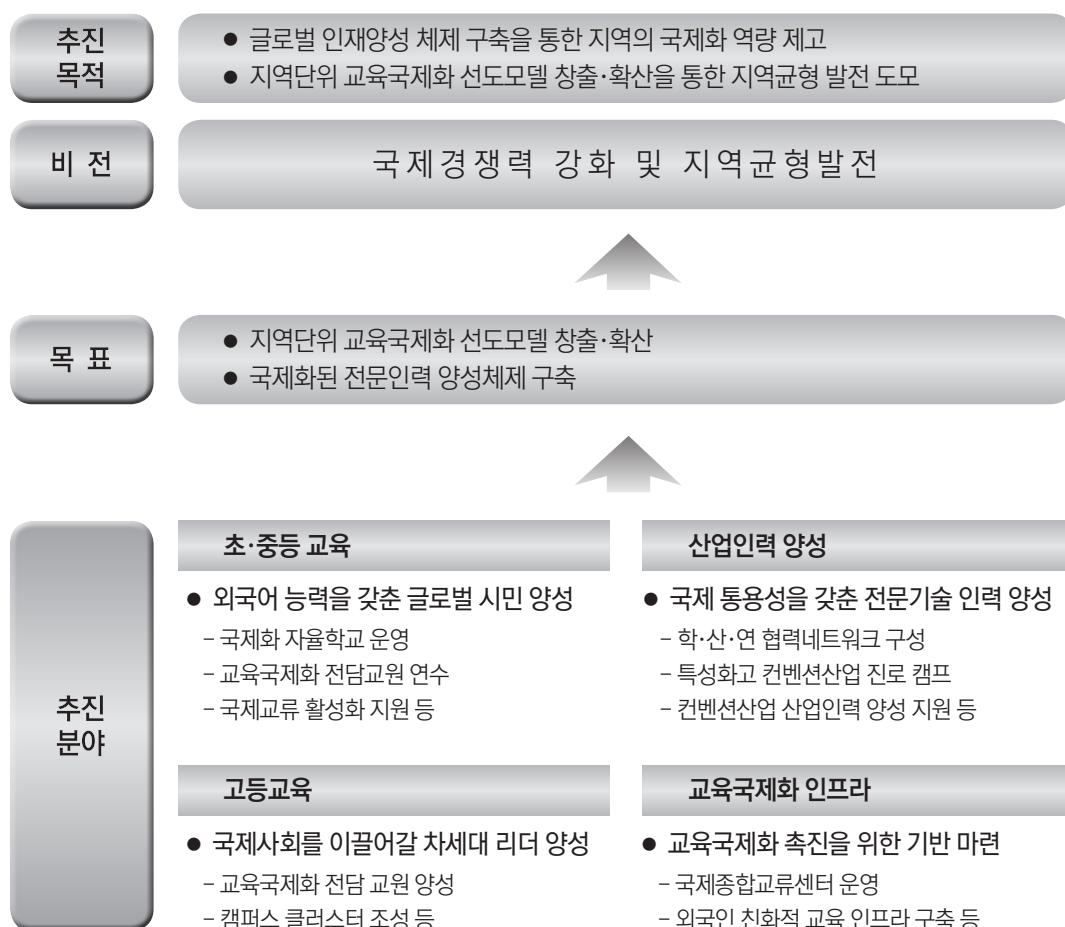
박윤국

방향을 모색하였다. 단위학교가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도록 중앙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활동 운영의 폭을 넓히는데 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자체(구청)와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대학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유도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초중등학교, 대학 등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이 의도한 교육성과를 제고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방향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교육 및 국제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정되어 육성되는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구사업은 아래의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확산 및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4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는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교육국제화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표 1> 교육국제화특구 추진방향



II.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 운영

1. 추진 배경

교육국제화특구의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이다.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학사운영 등 자율권이 부여된 학교로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국정·검인정 또는 자체 개발한 도서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는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르는 국제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국제화 자율 학교 모델 창출이 이 정책추진학교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특화된 국제화 교육과정 모형 개발은 외국어능력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실용 외국어교육 및 국제화 전략 강화를 통한 글로벌 미래 인재양성, 다문화교육 및 국가별 문화이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확산 등의 중점 실천 전략으로 구체화된다.

2. 운영방향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는 특구별로 국제화 중점 특색 있는 집중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이들 학교는 국어, 사회/도덕(역사포함)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해야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영어뿐 아니라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언어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실용 외국어교육 및 국제화 교육을 추진하고, 미래 국제사회를 대비한 글로벌 자질 함양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정책추진학교는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적용을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지정되어 특구 지역 내 거점학교 역할을 하게 된다. 특구별 지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추진학교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모델을 공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협력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우리교육청은 2013년 12월 특구 내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초·중·고등학교를 공모, 지정하였다. 연수구의 글로벌 미래학교와 서부지역의 글로벌 행복드림학교 총 10개교가 지정되었으며 이들 학교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2월(4년간)까지 운영된다. 특구별, 학교급별 지정교수 및 학교별 추진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 지정 현황

지역	구 분	초	중	고	계
연수구	글로벌 미래학교	2	1	1	4
서 부	글로벌 행복드림(Dream)학교	2	2	2	6
	계	4	3	3	10

〈표 3〉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 운영현황

학교급	학교명	주 제
초등학교	인천명선초등학교	P.E.O.P.L.E. 교육과정으로 함께 사는 세계시민 소양다지기 -Learning to live together with P.E.O.P.L.E.-
	인천청량초등학교	청량 Global Culture Leader를 키우는 글로벌미래교육
	인천당산초등학교	국제화 교육 모델 적용을 통한 창의적 Global-I 육성
	인천창신초등학교	"LIFE" Together as Global Leaders
중학교	신송중학교	'글로벌리더인증제'와 함께하는 3 Step 6 Key 국제화 자율학교프로젝트
	인천양촌중학교	PCS(Potential, Challenge, Share) 계발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간재울중학교	ACE 융합 프로젝트 적용을 통한 행복드림학교 실현
고등학교	연수여자고등학교	내용중심 언어교육(CBLT)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반 국제화 역량강화
	작전고등학교	지역사회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Global Community 미래인재 육성방안
	인천해원고등학교	국제화 교육과정 모형개발 적용을 통한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3. 국제화 전담교원 연수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의 성패는 무엇보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교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프로젝트 수업, 교과융합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수 연수 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중심의 참여 연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연수 대상은 정책추진학교의 학교장(교감), 전담교과교사, 원어민 교사, 제2외국어교사, 외국어교과 이외 교과 교원 등이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영어로 진행하는 교수학습방법, 외국어역량강화, 국제화관련 전문교과, 국제이해교육, 리더십교육, 글로벌 역량강화 등의 연수 과정을 밟게 된다.

4. 국제화 자율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어 국제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학교에서 설정한 글로벌 미래인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학교마다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활동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천명선초등학교: 주제 중심 교육과정 운영



■ 학년 수준에 맞는 내용과 요소와 활동 주제를 선정하여 모든 교과와 연계한 주제 중심 교육과정 운영

주제	주 제
People	일상생활, 우리문화, 감정과 생각의 표현, 행동·권리·책임
Earth	우리 주변의 환경, 생명, 기후·계절·대기·지리
Occupation	인물, 직업 탐색
Peace	지구촌 소통과 나눔, 건강한 삶, 간문화 이해, 지구촌 이슈
Life	경제 사회, 자기 표현
Environment	지구촌 생태계, 에너지

나. 신송중학교 : 글로벌 리더인증제(6 Key)

- 1년에 걸쳐 융합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 인증장’을 수여

Key 1	Key 2	Key 3	Key 4	Key 5	Key 6
특색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글로벌 시민교육 및 인성과 덕성 힘양교육	국제화역량강화 및 글로벌 인재 특기개발 방과후활동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적체험 및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이해교육기반 및 글로벌 인재 특기 개발 동아리활동	글로벌 교수학습자료 개발 활용

다. 연수여자고등학교 : CBLT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반 국제화 역량강화

- CBLT(Content Based Language Teaching)는 내용 기반 영어교육으로 교과의 전문 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동시에 신장하여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과의 경우 과학, 수학, 예체능교과 교육과정의 20% 내외를 재구성하여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Team Teaching을 통하여 교과 내용과 외국어를 동시에 학습하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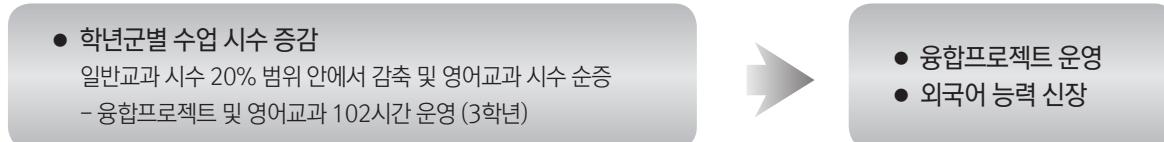
교과	교육 내용
지리교과	정규시간 활용하여 세계음식, 종교 부분의 교육과정을 원어민과 지리교사의 team teaching으로 진행
과학교과	정규시간 및 대학과 연계한 영어로 진행하는 과학 융합 캠프 운영
예체능교과	연구 수업(국제반) 및 공연(합창제) 등을 통한 CBLT 적용
영어교과	English book bucket을 통한 문학/비문학 읽기
진로활동	다국어로 진행하는 글로벌 커리어 체험 및 진로활동 시간을 활용한 진로에 맞는 영어도서 읽기
화상 영어토론 수업	‘내 지역 바로 알기(지리 및 역사)’ 주제로 진행되는 미국 현직교사와의 화상 영어토론수업

■ 외국어 다독 프로그램 (Extensive Reading) 운영

수준별 도서구입	Book Report (영문 독서록) 제작	주 1회 영어원서 읽기 수업 실시	외국어 다독 프로그램 관련 대회 운영
2013 Yeon-su Edu-up Project "Book Bucket English Reading Program" 운영교	- 다양한 유형의 영문 독후감 작성유도 - 쓰기 능력 신장	- 수준별 모둠 구성 - 모둠별 책 배부 - 다양한 독후활동 실시	- Oral Presentation - Super Readers 수상 - Book Festival 개최

라. 인천창신초등학교 : “LIFE” Together 융합프로젝트 국제화 자율 교육과정

■ 학교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국제화 자율 교육과정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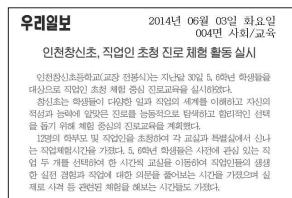


■ “LIFE” Together 융합프로젝트 교육주제 운영

- 융합프로젝트 주제는 학년별 주제 3학년 ('You & I'), 4학년('Area'), 5학년('Nation'), 6학년('World')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글로벌리더 역량강화를 신장 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한다.
-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년별 연계성이 있게 확대 및 심화되도록 융합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마. 인천해원고등학교 : 국제화 교육과정 모형 개발

과제	국제화 교육과정 모형 개발 및 적용	창의체험 활동 및 국제교류 활동 활성화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국제화 관련 학교 특색 사업
우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표시과목 신설 : Math I, Math II, Critical Reading, English Writing, Essay Writing, Essay Presentation, Chemistry I, Physics I, Micro Economics 등 · 국제특화 교양과정 개설 : 과제연구, 세계사, 세계지리, 아랍어, 프랑스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기관 MOU 추진 · 국제화 관련 동아리 조직 · 해외자매학교 결연 및 문화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P, AP 과정 개설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원글로벌 인증제 실시 · 해원초, 해원중과 MOU 맺어 지역연계 교육과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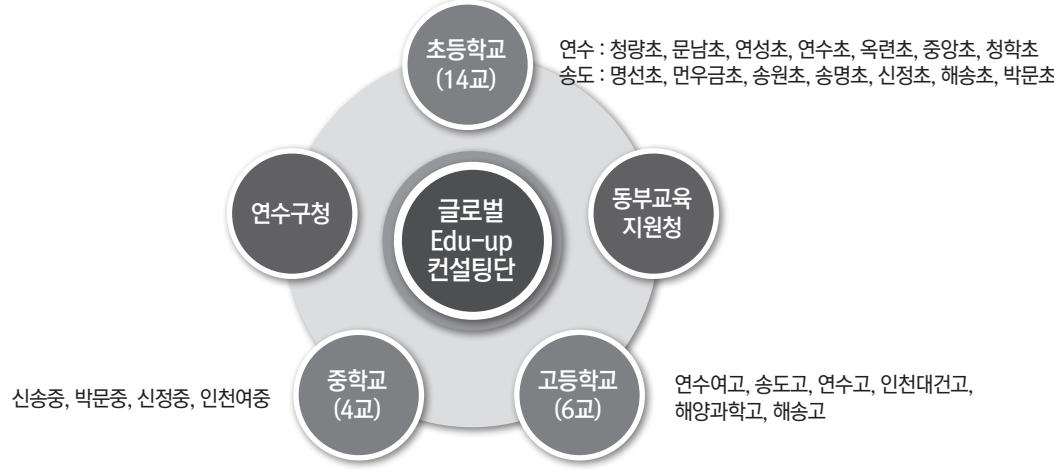
5. 연수구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우수사례

[글로벌 Edu-up 및 정책추진학교 참여 학교 협의체 조직 및 컨설팅단 운영]

가. 사업별 참여 학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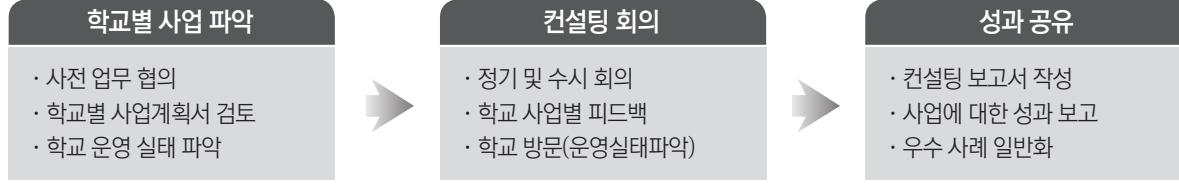
사업명	참여 학교 수		
	초	중	고
정책추진학교	2	1	1
글로벌 드림스쿨	12	3	5
글로벌 동아리	15교(27개)	8교(13개)	7교(17개)

나. 글로벌 Edu-up 컨설팅단 조직



* 청량초, 명선초, 신송중, 연수여고 : 정책추진학교로 중심학교 역할 담당

다. 글로벌 Edu-up 컨설팅단 활동 방향



III. 맷음말

2014년은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첫 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인천 연수구와 인천서부(계양구, 서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은 되었지만, 법령 제정, 예산 확보, 운영 학교 공모 및 지정 등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중점 추진 사업으로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를 공모하여 초·중·고 총 10개교를 지정하였다.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간 6개월은 기반 조성은 물론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시간일 것이다. 따라서 아직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대한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및 확산이라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이 많다.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 지정교가 처한 다양한 현안 과제를 파악하여 맞춤형 컨설팅, 운영교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우수사례 발굴 일반화 등 교육정책 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추진학교 구성원의 열정이 교육국제화 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낳고, 그러한 성공들이 일반학교로 확대될 때,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으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불기 시작하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우리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성공적 모델로 안착할 것이다. ◎



원도심 지역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¹⁾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배은주

1. 원도심(구도심)과 행복교육²⁾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내 지역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것은 도시의 공간 확장을 위해 신도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도심들이 쇠퇴하게 되는 도시불균형의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도심지였던 구도심과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심 사이의 불균형적 발전은 인구와 주거 환경, 산업 발전의 격차 뿐 아니라 교육격차까지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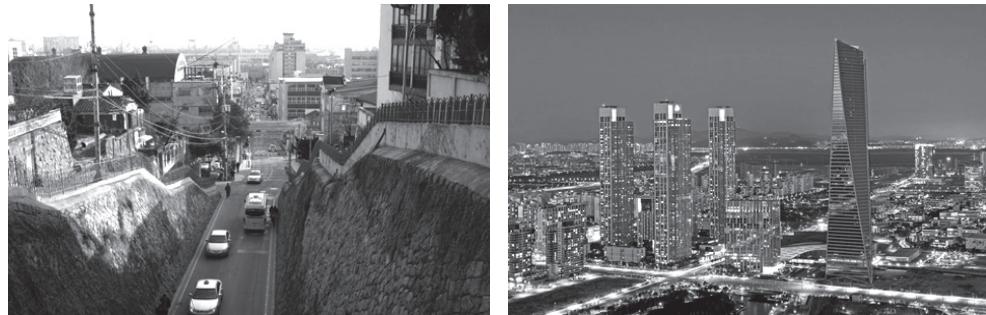
신도심에 밀려난 과거의 도심지 일대를 가리키는 구도심은 과거의 도심지였기 때문에 현재에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의 재생만으로 활성화될 수 없고, 더불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활성화를 꼽는다. 최근 교육격차가 지역격차의 결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격차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게 됨으로써,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발전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배은주·한미경,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도심 지역의 교육활성화는 ‘삶의 질 제고’라는 큰 틀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원도심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낙후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발전은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1) 이 글은 2014년 필자가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행복교육 현장토론회(2014. 5. 30.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2) 원도심이란 용어는 도시가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도심지 역할을 하였던 지역을 의미한다. 원도심이란 용어는 학술용이나 행정용어로서 일반화 된 것은 아니며, 당초의 도심이라는 공간적 정체성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다(임병호, 2005). 그런데 구도심이란 용어가 과거의 것, 낡은 곳, 지나가 버린 곳이란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원도심이라는 용어를 행정단위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은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육은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의 실천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의 참여 과정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즉, 교육의 궁극 목적은 개인의 행복이고, 교육의 과정에서도 개인들은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결과 개인들은 교육 이전보다 더 행복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민들이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온전히 학교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할 것이다. ‘행복교육’이라는 최근의 키워드가 원도심 지역의 교육에 매우 적합함을 새삼 실감한다. 그렇다면, 원도심 지역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2. 원도심(구도심) 지역의 교육현황과 문제: 인천광역시 사례

원도심 지역의 행복한 교육의 실현을 논하기 전에 원도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과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고려하여 행복한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도심 지역의 여건은 도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도시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기에 특정 도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도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원도심 지역 교육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도심 지역의 교육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들 수 있다. 원도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신도심 지역보다 대체로 낮은 편이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양호한 계층은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심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계층이 주로 남게 된다. 이로 인해 교육복지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교육복지 지원을 받게 되는 학교도 많은 편이다.



3) 교육은 학교와 개념상 같지 않다. 학교는 교육을 실현하는 다양한 기관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의 교육은 아동청소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언급한다.

둘째, 줄어드는 학생 수를 들 수 있다. 원도심 지역의 인구는 신도심 지역보다 적은 편이다. 신도심이 조성되던 초창기에 원도심 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것은 신도심의 조성에 따라 사회경제적 배경이 양호한 계층이 원도심 지역을 먼저 빠져나간 탓도 있고, 원도심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던 다양한 기능체들이 이전한 탓도 있다. 원도심 지역을 떠나 신도심으로 이주한 인구가 늘어나면서 원도심 지역의 학생수도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신도심 지역에는 학생수의 증가로 학교 신설의 요구가 커지게 되어 학교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시키는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천에서는 원도심 지역의 학교들이 이전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인구수와 학생수의 감소는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낮은 교육분야의 예산투자를 들 수 있다. 원도심 지역은 인구도 적고 학생수도 적고, 이에 따라 학교수도 적으므로 자연스레 교육예산 투자도 감소하게 된다. 원도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교육분야의 예산 비율이 적은 편이다.

넷째, 열악한 교육환경을 들 수 있다. 원도심 지역의 교육환경은 한 마디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청소년시설도 열악하고, 학교도 낡았고, 사교육환경도 좋지 않다. 이미 원도심 지역은 도심으로 형성된 지 오래되어 각종 시설과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높고, 최근에 필요한 여러 사회문화적 시설이나 기관들의 배치율도 낮아 교육을 지원할 사회적 기관도 적은 편이다. 학교도 설립된 지 오래되어 교사건물도 낡았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계층이 밀집해 있다 보니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 사교육환경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다섯째, 낮은 학력을 들 수 있다. 교육과 가정배경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 지역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2010년과 2011년도의 인천 지역 국가수준학업성취도를 비교한 배은주(2012)에 따르면, 인천 원도심 지역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신도심 지역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특기할 만한 것은 인천의 원도심 지역에는 특성화고교의 배치가 높은 편인데 특성화고교의 학력은 신도심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학진학률도 신도심 지역에 비하여 4년제 대학진학률은 낮고 전문대학 진학률은 높으며, 고교졸업 후 취업률도 신도심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여섯째, 높은 학교부적응을 들 수 있다. 원도심 지역 소재의 학교들이 신도심 지역 소재의 학교들보다 학교부적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들 중에서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중단자의 비율이 원도심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정배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원도심(구도심) 지역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원도심 지역의 행복한 교육은 교사나 학생, 학부모 어느 한편의 행복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의 행복은 학생의 행복 없이 성취될 수 없으며, 학생의 행복 역시 학부모의 행복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행복한 교육 실현은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계층배경이 낮은 지역일 경우 경제력에 기초한 교육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의 환경이나 가족관계 등 아동청소년들 둘러싼 포괄적인 체계나 환경적 요소들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김광혁, 2009). 따라서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도심 지역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원도심만의 교육경쟁력을 갖자

신도심이 형성되면서 원도심 주민들은 같은 도시 내 지역격차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패배, 낙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⁴⁾ 이는 신도심과의 끊임없는 비교 때문이다. 원도심을 신도심과 비교하게 되면, 원도심의 재생이나 활성화의 궁극 도달점은 신도심으로 설정되기 쉽다. 하지만 깨끗하고 세련된 현대식 건물, 대단지 아파트, 잘 정비된 도로망,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과 녹지 등의 이미지를 가진 신도심이 원도심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문에서도 지금까지 원도심 지역은 항상 신도심과 비교하여 낙후된 학교환경 개선, 뒤떨어진 학력 향상 등에 치중해 왔다. 그런데 원도심은 현재의 상태로는 절대로 신도심을 따라갈 수 없다. 우선 주민의 계층구조가 다르고, 직업세계가 다르고, 학력구조도 다르다. 또한 물리적 환경도 다르고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다르다. 그러니 무엇을 한다 해도 신도심을 따라가기에는 항상 버거울 뿐이다. 그러니 원도심은 신도심을 모델로 삼거나 표준으로 삼아서는 곤란할 것이다. 원도심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원도심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원도심만의 교육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주관적 행복지수가 높은 학교를 지향하자. 연세대학교와 한국방정환재단이 보고하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국제비교(2013)’ 설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교육성취도를 측정하는 ‘교육지수’는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반면, ‘주관적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상황 적응’, ‘외로움’ 등 6가지 영역에 대해 5년 연속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원도심 지역의 학교들은 성취도를 평가하는 ‘교육지수’보다는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높은 학교를 지향함으로써 원도심만의 교육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주관적 행복지수가 높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둘째,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학교를 지향하자. 학교교육 관계자들이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지기를 희망하는 점과 학교가 공동체적 속성을 많이 드러내 보이기를 희망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원도심 지역처럼 학생수가 적다는 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원도심 지역 학교는 이점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기보다는

4) 박준식·김영범(2011)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이규환·서승제(2009)는 서울시 자치구 간의 지역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이 주민들에게서 나타남을 주장하였다. 배은주·한미경(2011)의 연구도 원도심 지역주민과의 면담에서 “어디 눈 갈 데가 없다”는 식의 부정적 정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학급당 학생수의 축소를 과감히 시도하고 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행정위주, 실적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가 구축되도록 교장과 교사, 교육청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그라우어 학교장 스튜어트 그라우어(Stuart Grauer, 2013)가 지적하듯, 작은 학교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다. 또한 예체능 학습, 야외학습, 토론학습 등 대규모 학교가 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참여와 책임감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학교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복지가 탄탄한 학교를 만들자. 원도심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개별적 학습욕구도 반영하여 학교마다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복지사업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복지가 튼튼하여 학부모가 방과후 보육의 걱정이 없는 학교, 학생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학교, 이것이 원도심의 교육경쟁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원도심을 방과후의 자녀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에서 받은 소외와 상처를 보듬어주는, 청소년 자살이나 가출·아동학대 같은 무서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자신의 재능과 끼를 인정해주고 이를 통해 진로를 모색하게 도와주는, 진정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학교와 지역사회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원도심만의 교육경쟁력을 상상해 내자. 여기에 ‘자유학기제’와 ‘자율학교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학교가 교육책임의 주체가 되자

원도심 지역에서 학교는 신도심과 달리 매우 중요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기관이 그리 많지 않은 원도심 지역에서 학교는 자녀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 원도심 지역 학부모들의 학교의존도가 높다는 점 또한 학교의 중요성을 증명해준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의 대표적 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조용환, 1997). 이를 대중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곳이 학교이다. 학교는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단위에 자율성과 책무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학교가 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된 학교단위책임경영이 가능해야 한다. 학교단위책임경영은 학교장 개인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운영이 필수적이다. 학교가 져야 할 교육적 책임을 사교육에 슬그머니 양보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나 학부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운영계획과 교육과정 수립, 학교예산운용, 자율장학과 교내인사 등 모든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모든 교사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단위경영의 주체가 되고 동시에 학교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민주적 운영체제를 실행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를 확대해야 한다.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주장된 바 있으며, 실제 혁신적·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들을 보면 공모제교장인 경우가 다수 있다. 또한 공모제교장제도의 활용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의욕적인 교장과

뜻을 함께 하는 교사들을 초빙할 수 있도록 초빙교사제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도심 지역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모제교장제도와 초빙교사제가 확대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로, 학습복지의 개념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학교가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의 전 영역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차원의 맞춤형 돌봄 체제’(이수광, 2014)로서의 ‘학습복지’의 개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수준과 선호하는 학습양식에 맞는 학습기회를 보장하여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균형 잡힌 인격적 성숙이 가능하도록 학습의 전 영역에서 촘촘한 돌봄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이수광, 2014), 원도심 지역의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학습복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인맞춤형 수업체제’를 설계하는 것이며, 이는 ‘보편적 학습설계’란 개념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원도심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 학력격차가 심각한 편이며, 이를 해소하며 함께 교육력 제고를 이루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수학습설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그것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 설계이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이수광(2014)이 주장하듯, 교사인력의 추가적 지원, 누적된 학습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섬세하게 조직된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이보다 먼저 자존감과 학습동기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적 특성 함양 프로그램 투입, 민주적 학교운영, 교육재정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로, 피드백이 목적인 평가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맞춤형 수업체제’를 설계한다면, 현재의 선택형이 주를 이루는 평가방법으로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것은 현재의 평가체제가 학생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보다 더 적절한 교수학습과정으로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변별력을 위주로 한 서열화와 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맞춤형 수업체제에 보다 적합한 평가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역량 평가, 과정평가, 질적 평가 등을 통해 피드백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사례처럼(지명숙, 2013), 비판적 사고력을 중시하는 논술형 평가, 구술 평가, 보고서 평가, 토의·토론 평가, 정의적 능력 평가 등 평가방법의 다양화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평가의 혁신은 수업의 변화 없이 가능하지 않다. 학교가 교육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진실된 배움이 일어나도록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더불어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더 나아가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까지 고민해야 함을 말한다.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력과 책임을 가진 원도심 지역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위의 모든 것을 위해서는 행정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원도심 지역 학교의 경우 학생수의 감소로 교사수도 적게 배치된다. 그러나 절대적인 행정업무량은 즐어들지 않기 때문에 교사 1인당 행정업무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정인력의 지원으로 교사의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시켜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의 지원자가 되자

교육은 언제나 ‘지역’이라는 물리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며(윤여각·이희수·양병찬, 2004),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사회는 교육의 소재이기도 하고,



교육을 돋는 자원이기도 하며, 교육의 대상이기도 하다. 원도심 지역의 행복한 교육은 학교가 단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학교가 학교 내의 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교육이 지역사회와 무관하게 고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도심 지역의 교육이 진정 교육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점에서 지역사회는 학교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첫째로, 지역사회는 체험학습의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학습자원이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탐방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곳, 진로체험을 실행할 수 있는 곳 등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의 필요에 따라 연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또한 지역사회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체험학습과 진로교육의 자원으로 지역사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지역사회는 학교와 더불어 돌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계층이 많은 원도심 지역에는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수요도 많은 편이다. 최근 학교에서도 돌봄사업을 실시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돌봄이 제공되고 있다. 지역사회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층을 위한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등을 통해 돌봄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돌봄은 학생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이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돌봄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기에 지역사회의 돌봄기관들과 그 역할을 나누어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서로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돌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사회는 돌봄을 공유하면서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의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지역사회는 학교 밖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학교 안 교육은 학교가 주체이지만,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될 수 있다. 학교 밖 교육은 먼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을 생각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교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이나 분야의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학교교육과 관련이 깊은 것도 있지만 이 또한 다루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교 밖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의 보완적, 보충적 성격의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집중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교육도 있다. 대안교육의



부류에 들 수 있는 이것은 대안학교(미인가, 도시형대안학교)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청소년센터(예컨대, 서울시 하자센터)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학교 밖의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이들이 요구하는 교육적 욕구를 이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 밖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도시형대안학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원도심 지역의 경우 학교부적응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체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학교 밖 교육의 주체인 지역사회와 학교 안 교육의 주체인 학교가 서로 연계 협력하여 아이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미래의 경쟁력은 행복한 학교에서

탈산업화와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의 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의 획득보다는 핵심적인 역량을 터득하여 적절하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정보활용력 등의 핵심역량은 교육과정의 구조와 수업방법, 학교문화까지 바꾸는 포괄적이고 근본적 차원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제대로 길러주기 어렵다(홍원표·이근호, 2011). 핵심역량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생들은 이전의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화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학습자들은 학교에서 행복할 것이다. 행복한 학교는 학생들을 이러한 학습자로 만드는 학교이며,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학교이며 입시위주가 아닌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김성열, 2013).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은 핵심역량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며,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전인교육(全人教育)’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장의 민주적·변혁적·지원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교사들의 주도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과 인력의 지원, 예산 지원, 자율학교 지정 같은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학교 정보를 공유하며 학부모를 이해시키고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탄탄한 지지와 지원을 받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원도심 지역의 학교들은 학력향상이 아닌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다면, 학력 향상은 그 결과로서 따라오게 될 것이다. ◎

스마트교육의 이해와 추진 과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본부장

김진숙

2011년 6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이 발표된 지 어언 2년이 지났다. 스마트교육에 대한 이해와 오해가 상존하고, 정책 추진의 시급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책 추진 단계마다 현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특히 논란이 있는 정책일수록 다시 한 번 방향을 확인하고, 현장과의 괴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정책 추진 전략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야말로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필자는 스마트교육을 전담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지난 2년간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의미있는 변화를 지켜본 귀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장의 변화를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고, 예측보다 더 앞서나가는 사회 변화와 다른 나라의 발빠른 정책 추진 동향에 조급함도 느껴보지만, 지금은 조급함보다는 느긋함으로 기본을 다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런 관점에서 본 고는 지난 2년간 스마트교육 연수 과정에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스마트교육을 이해하고, 현재의 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스마트교육이 뭐예요?

스마트교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교육의 변화, 교실 수업 개선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아직도 필자는 연수를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께 가장 먼저 “스마트교육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라고 질문을 드린다. 2년 전에는 10명 중 7명 정도가 “모른다”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이라 대답하였다. 지금은 그래도 다양한 답변이 나온다. 지난 2년간 약 17만 명의 선생님들이 짧던 길던 스마트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은 결과(교육부, 2014)가 아닐까싶다.

다양한 답변의 공통적인 단어는 “미래교육”, “학습자 역량”, “맞춤 교육”, 그리고 “스마트기기 활용”이다. 모든 답변은 다 정답이고, 이를 답변을 엮어보면 스마트교육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스마트교육은 미래 교육에 대응하면서, 학습자 역량을 키워내기 위한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것이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 소위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21세기 학습자 역량,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협업 능력 등은 모든 정책이 지향하는 비전이자 목표이다. 그렇다면 스마트교육만이 모든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한 논리보다는 스마트교육이 갖는 차별성을 찾아보아야 한다. 스마트교육이 다른 정책과 갖는 차별성은 바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다. 스마트교육이라는 정책 명칭에서 주로 인식되는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활용이라는 점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기기라고 하는 하드웨어 개념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활용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왜 전면적인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동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행태를 바꿀 정도로 우리 가까이에서 발달하고 있다. 그 특성에서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보화가 가을 하늘 별자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별자리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단순한 정보였다면, 요즘의 기술은 현재 하늘에 떠있는 별자리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데까지 발달하고 있다. 창의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탐색 속에서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현실 세계와 거의 유사한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정보의 제공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보의 교류는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위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과 더불어 거의 지구촌 전체와 교류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다. 내가 인식하는 세계에서 친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 기회는 올바른 의사소통과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더 중요한 특성은 바로 새로운 정보의 생성이 쉽다는 것이다. 디지털세대로 불리는 요즘 아이들은 단순히 제공되는 정보에 만족하기보다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고 편집해서 나만의 정보를 만드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 각 지역의 스타일로 패러디된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들의 기발함에 놀라울 정도이다. 이런 작품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에 직면했을 때 사진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간단한 편집 도구를 활용해서 나만의 정보로 만들고, 댓글을 통한 피드백을 받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기술은 실세계와 가까운 정보의 탐색을 통한 사고의 확장,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기회의 확대, 그리고 창의적인 정보 생성을 지원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교육은 단순한 인프라 보급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사회로의 변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면적인 교육 체제(교육 내용, 방법과 평가, 그리고 교육 환경)의 변화를 통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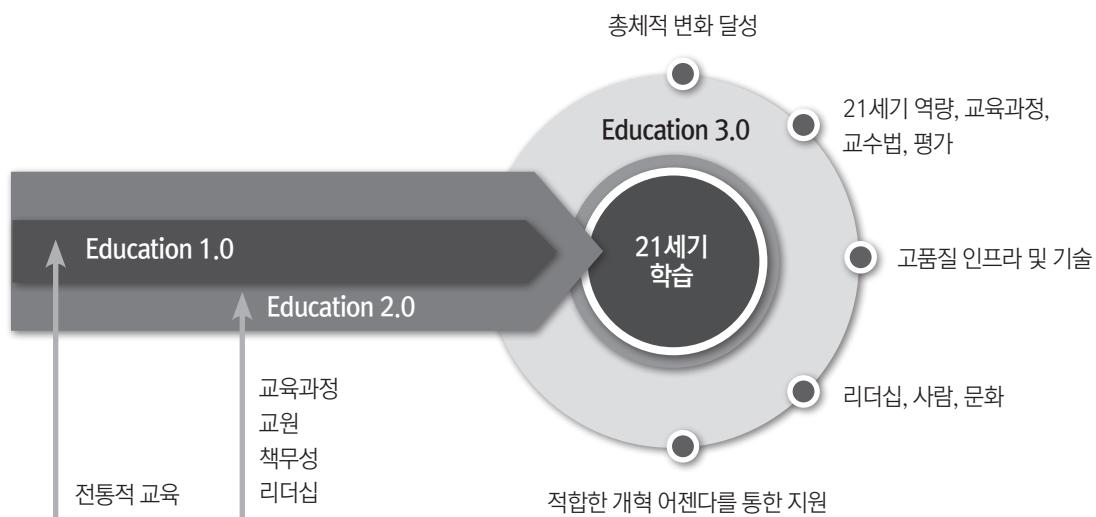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스마트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올바르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다.

스마트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학교의 모습은?

스마트교육이 그리는 미래 학교의 모습은 결국, 학습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전통적인 학교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형태로 발전되게 될 것이다. 즉, 물리적 학교 공간에서 지역사회·글로벌로의 학습 공간의 확대, 특정 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교육에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학습 시간의 확대, 교과지식 습득에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의 확대, 제도권 학생 중심에서 평생학습자로의 수요자의 확대 등으로 발전될 것이다. 미래 학교는 학습자의 수요에 중심을 둔 교육이 실천되는 학교라 할 수 있다. 교육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뒷받침될 때 천편일률적인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학교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스마트교육이 그리는 발전된 학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Cisco에서는 교육 1.0, 교육 2.0, 교육 3.0으로 발전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교육 1.0은 교사 중심의 일방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19세기형 전통적 공교육을 의미하고, 교육 2.0은 20세기 후반 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교육 차원의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는 20세기형 교육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교육 3.0은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열린 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를 포함한 총체적 교육개혁을 달성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쌍방향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21세기형 교육이다. 교육 3.0이 목표로 설정한 ‘학습사회’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과 최첨단 학습이론을 활용해 글로벌 교육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 3.0의 비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최상덕 외, 2011, 재인용).



[그림 1] 교육 3.0과 21세기 학습

이러한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호주, 미국, 일본, 싱가폴에서는 Future School, Ino School 등 의 스마트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보 접근이 가능한 인프라 환경 구축과 교수학습활동에 활용될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통해 직면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학습자 역량을 키우는데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교육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요즘 세대의 스마트기기 활용은 게임에의 몰입, 무의미한 채팅, 유해 정보에의 노출, 시력 등 신체 기능 약화 등의 역기능뿐 아니라, 단순한 정보의 검색·활용으로 인한 깊이 있는 사고의 제한, 사이버언어폭력 등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우려를 충분히 낳게 할 만하다. 그러나 스마트기기 활용을 단순히 금지, 저지하는 것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려가 있으니 스마트교육 정책은 절대로 추진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게 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사회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지금과는 다른 차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75%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안에서만, 내 눈앞에서만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안심 해서는 미봉책에 그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올바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별하게 하고, 정보를 어떻게 자신의 지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남들과 어떤 방식으로 올바르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학습 활동 측면, 윤리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할 때이다. 21세기 학습 역량의 모든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다루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바로 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스마트교육의 주요 과제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다루어지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습 사례가 개발되고 있으며 각 부처나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교재와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정보는 에듀넷(www.edunet.net)의 “정보통신윤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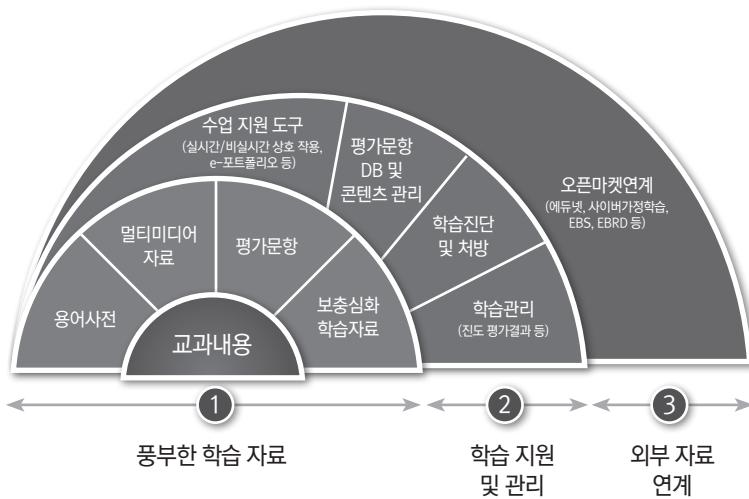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된다는데, 스마트교육과의 관계는?

스마트교육 정책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이다. 가끔 선생님들 사이에서 두 과제와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디지털교과서 보급보다는 스마트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 스마트교육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 교육 방식, 그리고 교육 환경의 종합적인 교육 체제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내용 변화의 가장 구체적인 핵심 과제이다. 교과서의 변화를 통해 교실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고, 학습 평가가 단순히 결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실 수업에서의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로 엮이고 이어지는 유기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디지털교과서 보급은 스마트교육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디지털교과서인가? 교과서가 교육과정, 즉 교육의 목표와 내용, 평가, 편제를 담고 있는 교재이고, 교실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는 중요한 학습 자료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과서는 인쇄된 자료 형태이기 때문에 한정된 내용, 텍스트·삽화·그림 등으로 표현되는 단편적인 형태, 최신의 정보 제공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교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은 이러한 서책형 교과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발되었다. 디지털이기에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자료 연계를 통한 최신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활동이 기록되고, 관리되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서책형을 보완할 수 있는 교재가 하나 더 개발되어 교실 수업 현장에 제공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개념 정립을 위해 2012년 6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따른 교과서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교과서의 개념을 ‘기존 교과 내용(서책형 교과서)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보충·심화학습 내용 등 풍부한 학습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부가되고 교육용 콘텐츠 오픈마켓 등 외부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한 학생용 교재’로 정의하고, [그림 2]와 같은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2014년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과학, 사회과의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과학, 사회 교과를 디지털교과서로 선정한 이유는 교과의 특성상 다양한 자료와 최신의 정보 제공, 그리고 실험, 토의토론 등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기반한 수업 방식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하기 보다는 보다 면밀한 효과성 검증과 수업 방식 개발 등을 위해 연구학교 중심으로 서책형과 함께 병행 활용되도록 보급되고 있다.



[그림 2] 디지털교과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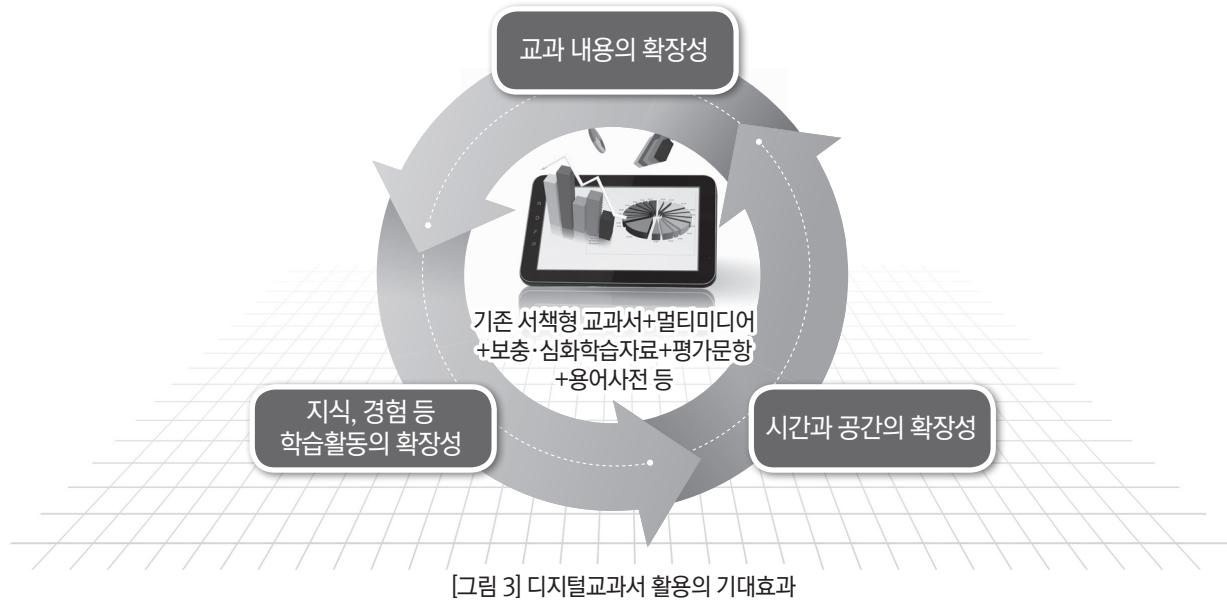
※ 출처 :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따른
교과서 개선 계획(2012.6,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활용, 우려와 효과는?

먼저,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되는 문제, 우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교과서에서 클릭만 하면 자료가 나오고,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고, 교류하는 경험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는 교과서와 교실 수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실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용하는 수업 교재이다. 어떤 수업도 아이들에게 디지털교과서만 들여다보고 있도록 수업하는 교사는 없다고 본다면, 교과서의 개선은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기획과 설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현재 연구학교에서 행해지는 아주 보편적인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흐름을 살펴보면, 교사는 그동안 서책형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아이들에게 개념 이해를 위해 보여주고, 아이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과학시간이라면 직접적인 과학 실험전에 필요한 실험 방식이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이나 시뮬레이션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수업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에 의해 전달되는 개념이나 원리의 습득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 보고, 분석해 본 결과를 토대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회 시간에 많이 활용되는 토의토론 수업 방식 역시 디지털교과서와 연계된 학습 커뮤니티인 위두랑을 활용하여 몇몇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이 아니라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학습 활동 결과물이 기록되어 향후 수준별 보충이나 심화학습 자료로도 활용되게 된다. 나아가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은 교사-학생 간 수업 방법과 교수·학습전략에 따라 교실 내 및 교실 밖에서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학생이 먼저 교사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 교사가 답변과 보충 설명을 하는 등 교실 밖에서의 상호작용으로까지 확장된다. [그림 3]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교과내용, 학습활동, 시간과 공간의 확장성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관련한 효과성 연구는 이미 2008년부터 지속되어 왔다. 최근 KERIS에서 발표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정책 연구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등에서 디지털교과서 활용 집단이 서책형교과서 활용 집단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교과서 활용은 도시에 비해 농산어촌 지역,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보다는 낮은 학생에게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보다는 21C 학습자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학습몰입도 향상 등에서의 성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RIS, 2014).

위와 같은 정량적 효과 이외에 연구학교에서 보고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정성적 의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학교의 학생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디바이스를 활용하니 학습이 흥미로워진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일시적인 정보통신기술의 신기효과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 모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 좋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선생님과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다. 학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집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것도 염려가 되는데, 학교에서까지 사용하는 것에 의구심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이가 집에 와서 숙제를 해야 한다고 열심히 인터넷의 정보를 뒤지고, 파워포인트에 그럴 듯하게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과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을 보니 기우였다는 의견을 보인다. 또한 아이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갔을 때 학급 커뮤니티에 수시로 사진과 글이 올라오니 안심이 된다고 또 다른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선생님들의 의견은 대체로 이러하다. 지금과는 다른 수업을 시도해야 하니 어려움은 있지만 아이들이 정보를 찾고, 자신들이 찾는 자료 하나를 가지고도 깔깔대고 웃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교실이 조용하지 않고 북적대고 활발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보람을 찾게 된다고 한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역량을 발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반성하게 된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하신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교육적으로 올바르게 적용되고, 익숙해 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시간 확보,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해 질 수 있는 경험 확대, 수업 시행 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교사 간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는 학습 교재의 개선이라는 관점보다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환경 구축에 따른 수업 관리,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기능, 예산 투입의 효용성 등이라고 볼 때 이는 다른 관점에서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수 있다.

스마트교육이나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특히 효과성 관련 연구 자료는 에듀넷(www.edunet.net)의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교육과 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및 과제는?

지금까지 스마트교육 및 디지털교과서의 개념과 교육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 교원 역량 강화

스마트교육이나 디지털교과서가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한 학습자 역량 강화를 추구한다면, 무엇보다 수업의 기획과 설계의 중심에 있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KERIS,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연수를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교원 연수와 교과연구회 지원 등으로 구별되어 추진되고 있다. 연수는 일반 교원들의 수업능력 신장과 전문성 개발에, 교과연구회는 수업모형 개발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원 연수는 창의성,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등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디지털교과서 활용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해 소통의 문화와 스마트 기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와 관련된 교사의 전문성 개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우수 인적 자원을 양성·확보해 일반교원과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선도 교원과 강사교원 연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400여명의 선도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찾아가는 연수는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의 맞춤형 연수로 학교급과 학교 환경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도 오프라인 연수와 병행하는 원격연수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교육청 원격연수에 참여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사들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교과연구회는 사회·과학·영어를 중심 교과로 해 시·도 교육청별 19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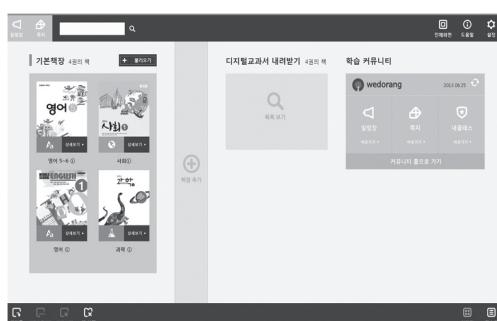
디지털교과서 연구회 17곳, 전국 단위 교과연구회 15곳을 지원하고 있다. 교원 역량 강화 연수는 정책의 성공적 현장 착근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스마트교육·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2014년에 운영되는 163개의 디지털교과서 및 스마트교육 연구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PC와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학교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환경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디지털교과서 및 디지털 콘텐츠, 다양한 교수·학습도구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현장 적용에 앞서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연구학교 운영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추진 단계가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관련 과제를 연구·개발하고 적용해 봄은 물론, 교육적 효과를 검증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끊임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각급 학교 선생님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교수학습지원체계 1단계 조성

디지털교과서 활용 플랫폼¹⁾과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2013년 5월 개발(뷰어, 학습커뮤니티)하여 2014년도 연구학교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PC 환경뿐 아니라 iOS 및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도 호환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각 가정에서 새롭게 디바이스를 구입할 필요 없이 기존 PC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의 학습 커뮤니티인 위두랑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학습 활동, 토론과 협력 활동 등 개인별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 커뮤니티의 활용은 연구학교에 국한되어 보급되고 있으나,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4] 디지털교과서 책장과 학습커뮤니티



[그림 5] 학교수업과 가정학습을 연계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위두랑'

1)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은 개인별 맞춤형 학습과 교사·학생 쌍방간 상호작용의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으로 디지털교과서 보기 기능을 포함해 공유 및 협업이 가능한 교수학습지원 플랫폼으로 구축. 첫 번째 단계로 2013년 5월에 뷰어와 학습커뮤니티가 개발됐다. (교과서 전송 서비스, <http://book.edunet.net>)

● 역기능 대처방안 마련과 의견수렴

학교 현장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관련해서도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등으로 시범운영을 범주화하면서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진단해 대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년에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른 역기능 진단 및 대처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2013. 10~2014. 2.)’를 수행했으며, 2014년에 예방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4년 시범운영을 앞두고 학부모 설명회를 비롯한 시·도 교육청 협의회 운영, 학교장 및 교사 대상 정책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박람회 개최, 국제 심포지엄 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홍보하고 정보 교환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어떤 정책이든 현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확대가 어려운 만큼, 공감과 인식 제고를 위한 과제는 교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정책의 확대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스마트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율성에 기반한 유연한 학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스마트교육 도입과 관련해 학생, 교원, 학부모, 연구자, 관련 업체 등의 관점과 요구사항이 각각 다르므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해 체계적이고 타당성 있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너무 급하지는 아니하되 방향성은 가지면서 정책이 추진될 때, 준비된 학교, 준비된 교사가 이미 준비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육의 진일보된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 믿는다. ◎

※ 스마트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관련 자료는 에듀넷(www.edunet.net)의 “스마트교육 이해” 참조





현장르포

원도심 지역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 –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를 가다

지난 몇십 년간 진행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고속 발전을 이끌어내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진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는 도·농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교육격차의 문제로까지 발전하며 빈부격차와 교육격차 문제가 서로 악순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먹고 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측면에서 바라보던 교육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도심 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조망해야 하는 시점을 맞게 되었다.



인천불로초등학교 교사

윤정

2014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의 주최로 ‘원도심(구도심) 지역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행복교육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는 교육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문제들에 대해 권역별로 1~4개 시·도들이 모여 지역의 관심과 요구에 부합하는 주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도간에 상호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나승일 교육부차관, 구자문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 교육관계자, 시·도별 교육정책네트워크 담당자와 교육청 담당자,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교원 및 학부모 등 4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토론회장을 가득 채웠으며, 그 열기 또한 대단하였다. 토론회는 배은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오장길 서울동작교육지원청 초등 교육지원과장의 현장사례 발표, 이해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한 6명의 지정 토론자의 토론과 종합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배은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도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도심(원도심)들이 쇠퇴하게 되는 도시 불균형의 문제가 등장하였고,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불균형적 발전이 주거와 산업 발전의 격차 뿐 아니라 교육격차까지 초래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원도심 지역의 교육현황과 문제로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 줄어드는 학생 수, 낮은 교육 분야 예산투자, 열악한 교육환경, 낮은 학력, 높은 학교부적응을 들었다. 이에 대한 원도심 지역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해결 방법으로는 원도심만의 교육경쟁력 갖기, 학교가 교육책임의 주체가 되기,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의 지원자가 되기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관적 행복지수가 높은 학교,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학교, 교육복지가 탄탄한 학교, 학교 단위경영책임제 강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 확대, 학습복지 도입, 피드백이 목적인 평가폐려다임으로의 전환, 행정인력지원, 체험학습의 지원, 돌봄 공동체 형성 등을 실현 과제로 제시하였다.

현장사례 발표를 맡은 오장길 서울동작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은 서울교동초등학교의 운영 사례를 들어 도심 속 소규모 학교 행복교육의 실현 방향을 제시하였다. 발표를 통해 첫째,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감소, 둘째,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활동, 셋째, 텃밭가꾸기를 통한 식생활 개선 활동을 통해 사교육 없는 학교의 구현과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식습관 개선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며 소규모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와 현장사례 발표 이후 6명의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태용 인천신흥중학교 교장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이 행복한 원도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4가지 사항을 제언하였다. 제언사

향으로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해주는 제도적인 뒷받침, 실천적이고 협신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과감한 변화와 인력지원, 창조경제에 걸맞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특성화 고교 형태와 운영, 교육 수요자들의 필요와 형편, 접근성과 활용 빈도를 충분히 고려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선행을 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한 국가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인환 계수중학교 학부모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시발점을 원도심의 학교 이전 문제라고 보았다. “학교가 없는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발전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학교가 떠나면 학부모(주민)가 떠나게 되고, 결국 원도심의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도심의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장의 새로운 리더십과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순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임광례 창덕여자중학교 교무부장은 도심의 공동화 및 취학 학생 감소로 폐교의 위기에 처했던 도심 속 작은 학교를 ‘정원학교’로 활성화시킨 창덕여자중학교 사례를 소개하였다.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지수 상승 및 다양한 체험활동 경험 제공,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초빙교장제의 활용, 교직원들의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결 방법으로 제언하였다.

강소영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은 전주의 원도심 지역 초등학생 수 급감 문제를 지역사회활동가의 학교 지원체계 구축, 원도심 생태문화 협장체험교재 개발, 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역마을축제와 함께하는 교사 워크샵, 원도심 교육포럼 등의 지역사회학교 만들기 운동을 통해 원도심 지역을 대안적인 삶과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시민들

의 마을 공동체로 만들어, 공동화되는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를 발표하였다. 강소영 사무처장은 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 사업을 통해 3가지 시사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경제(물질)의 활성화가 아닌 정신과 행복의 활성화, 둘째, 지역사회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셋째, 학부모와 지역민의 교육 주체화를 제시하였다.



조동섭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배은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과 이해를 표하면서도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우선 주관적 행복지수만 높은 학교를 지향하기보다는, 원도심 학교에서도 교육지수와 행복지수 즉, 학업성취도와 행복교육을 동시에 추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대부분의 과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구청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원도심 지역에도 우수학교를 통한 교육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국제학교, 특목고 등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원도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패배, 낙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치유하기 위해서 신도심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상범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실 행정사무관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투입변수는 비슷한 여건이나,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로 원도심 지역에 교육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



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소외 지역 학교에 교육복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원도심 지역 등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복지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지원 방식을 공급자·프로그램 중심에서 수요자·학생 중심으로 전환, 둘째,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원 배분 방식의 합리적인 개선,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모델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확산, 넷째, 학교의 지역사회 뿐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 강화, 다섯째, 교육복지 최저수준 보장을 위한 '(가칭)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에서는 토론회를 경청하던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각자의 위치와 지역을 대표하여 뜻있는 의견들을 제안하였다.

우선, 발표문에 제시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초·중·고등학교가 구분되어 제시된다면 현장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어려운 자리를 함께 한 토론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거대담론과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 공급자중심의 지원에서 수요자관점의 지원과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들이 제시되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행·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 인력의 활용 경우도 원도심과 신도심을 비교하면 원도심이 신입교사의 비율이 더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고,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원도심 지역의 현직 교장은 “현장에서 학교를 운영하다보면 자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원도심의 학교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을 통감하게 된다. 현장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과 배려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는 교육활성화와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한 각 계각 층의 뜨거운 열정과 숨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토론회 관계자는 토론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후에도 교육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건의가 가능하며,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은 교육부 등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복교육 정책토론회의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정책화·공론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인천굴포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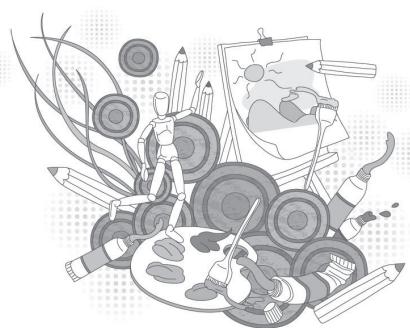
이영실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수업, 문화예술이 내포되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 하던 중 인천 문화예술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문화지원센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백운역 앞의 부평아트하우스 안에 위치한 인천문화지원센터에 찾 아갔다. 넓은 사무실이 폭염으로 인해 후끈 달아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위에 끌어 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문화교육 우상훈 팀장님과 학교 교육사업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진주님에게서 인천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관련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인천문화예술교육의 허브

인천문화예술지원센터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정받아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다. 인천지역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감성을 풍부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감성과 상상력을 불어넣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예산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하면서 지역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었고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기반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교육하는 예술가인 예술강사가 아이들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불어넣기 위해 학교현장에 찾아간다. 국악을 제외한 7개 분야, 연극, 무용, 영화,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도에 149개 학교(총23,010시간), 예술강사 102명이 참여한 규모면에서 가장 큰 학교관련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기관, 단체에서 유·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이 인천 곳곳에서 벌어지며, 아동·청소년의 여가 문화 및 가족 학습문화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세대·계층·가족 간 공동체의 화합을 유도하고 있다.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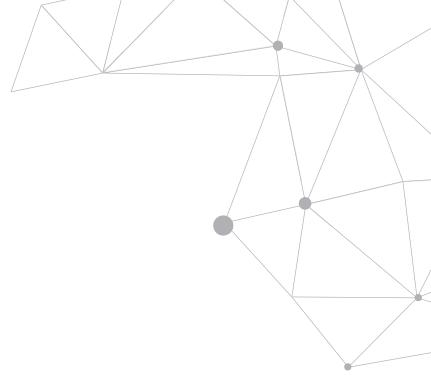
인천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실을 해석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에는 ‘학교기반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과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이 있다.

‘학교기반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은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인 예술강사 파견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공교육 내 적극적인 문화예술교육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2013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지역예술가 및 예술강사·기획자·학교·센터가 협력하여 학업전환기(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겨울방학 전까지)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학업전환기 특성에 맞춰 단기간 동안 집중적(8일간 오후 수업 전체 또는 전일제)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무료한 학업전환기를 신나게 보내고 중학교 시절 마지막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예술가와 예술강사에게는 색다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앞으로 ‘자유학기제’, ‘꿈다락 살리는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학교환경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가와 교육자, 기관·단체 실무자가 함께 성장하다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매개자인 예술가, 교육자, 기관·단체 실무자가 각자의 활동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시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인천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중 하나이다.

‘교사역량강화사업’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주요매개자인 교사의 역할을 고민하는 사업이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교사가 먼저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그 즐거움을 문화예술교육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역량강화지원 1 통합교과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현장의 자생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교사 주도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지원
- PM(교사)구조를 통한 거점학교 선정, 교사협력과 전달연수를 통해 교과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 PM(교사) 총6명(초등교사 3명, 중등교사 3명), 거점학교 5개학교 선정(초등 2개 학교, 중등 1개학교, 고등2개학교), 거점학교별 자체 워크숍, 회의 진행
- 참여교사 OT 진행, 중간워크숍 초등 <나의 몸과 마음>, 중등<가르침도 배움도 아닌 일상을 재생해나가는 사건> 진행, PM(교사)운영회의 총 9회 진행
- PM(교사)와 참여교사 30명 참여, 수혜인원 총 455명, 워크숍, 프로그램 재료비 등 총 15,000,000원 지원

〈지원 교사 및 프로그램〉



참여교사 워크숍 초등
<나의 몸과 마음>



지리실고 예술산책
- 인천해송고등학교

연번	교사명	거점학교(참여학교)	프로그램명	지원예산(원)
1	신성숙	인천효성남초등학교 (인천신흥초등학교)	책이랑 꿈이랑 표현놀이하기	5,025,000
2	김우현	인천주안남초등학교	본다 그리고 소통한다	3,090,000
3	정용미	인천해송고등학교 (인천연수여자고등학교)	지리실고 예술산책	2,000,000
4	김은주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인천옥련여자고등학교)	로봇과 미술, 예술을 통한 교육에 도전하다	2,675,000
5	조수진	인천신흥중학교	삶이 살이 있는 예술교육	2,210,000



교사역량강화지원 2 문화예술교육 특수분야 교사직무연수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역량강화와 인식제고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연수 진행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분야 교사직무연수 기관 지정 신청 및 승인 후 연수과정 운영
-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강의, 체험워크숍, 토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 총 30명의 교사가 참여
- 통합교과형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교과형 PM(교사)이 학교현장에서 실행한 프로그램을 직무연수 참여자와 공유, 전달 연수 진행
- 하계(7월) 연수: <예술과 교육이 만나는 방법> 개최(2012.7.23.~07.27.)



강승숙<오감관찰 노트>



해마루<몸짓열기>



정기훈<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상>



신성숙<교육으로 풀어내기>

교사역량강화지원 3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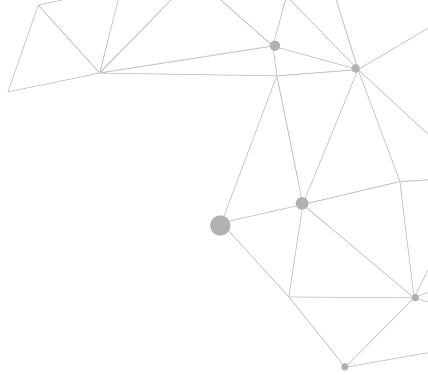
-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연수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 제고
- 진행교사 4명을 선정하여 교사의 수요, 학교협조, 연수내용 등 연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위한 사전회의 진행
- 4개 초등학교(효성남초, 주안남초, 산곡북초, 연화초등학교)에서 진행, 총 154명의 교사가 참여
- 몸짓과 놀이를 주제로 연수 프로그램 <펼치는 몸짓, 만나는 놀이> 운영 (2013.11.08.~11.27.)

<펼치는 몸짓, 만나는 놀이>
-주안남초등학교

<펼치는 몸짓, 만나는 놀이> 프로그램 내용

연번	주제	내용	강사
1	나의 몸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한 몸짓인사	김경순 무용팀
2	공간에 몸짓 그리기	다른감각을 이용한 몸짓 표현하기	
		재료를 이용한 몸짓 놀이, 그룹별 몸짓 놀이	
3	나의 몸과 마음	몸짓이야기와 감상	

<펼치는 몸짓, 만나는 놀이>
-연화초등학교



교사역량강화지원 4 인천교육연수원 ‘초등 문화예술이해과정 직무연수’ 공동주관

- 인천교육연수원과 협력하여 초등 문화예술이해과정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관 협력을 통한 연수의 다각화로 다양한 연수경로 및 연수과정 모색
- 문화예술교육의 기본과정으로 음악, 미술을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과 연수장소 협조
- <행복한 교사를 만드는 힐링 캠프, 문화예술교육> 공동 주관 (2013.11.20.~2013.11.23.) 초등교사 총 70명 참여

<행복한 교사를 만드는 힐링 캠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내용

연번	주제	내용	강사
1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기획하기	이명규
2	커피와 해설이 있는 클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감상• 알기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감상법	인천·신포에타
3	스토리텔링으로 맛보는 미술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 작품 속 스토리 듣기• 학생 수준에 맞는 현대미술 감상법	조이한
4	음악과 연극의 만남, 뮤지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과 연극의 만남, 뮤지컬• 음악, 연극 융합교육으로서 뮤지컬	이은희
5	영화 속 시선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 세대와 '영화'와의 만남• 영화속 이미지 그리고 기호의 의미	권칠인

이번 방문취재를 통해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한정적으로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천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로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의 도입, 예술강사와 담당교사와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담당교사 및 학생의 평가 적극 반영 등을 통해 예술강사의 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동안 인천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는 학교, 교육청과 연계하여 예술강사 지원, 통합교과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도서지역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특수분야 교사직무연수, 학교기반 문화예술교육(중3 학업전환기 문화예술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교육청과의 연계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술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한 절차상의 어려움, 예산의 부족, 학교현장과의 소통 부족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끼를 발견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인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획일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반갑고 의미 있는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중점학교, 학생 뮤지컬·오케스트라, 토요문화학교, 예술 동아리 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 일부 선정된 학교에서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현장과 센터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의 결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지역 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강사 인력풀을 정비하여 문화예술교육 인력이 부족한 학교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등 학교 맞춤 컨설팅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변화하는
인천

아라뱃길과 정서진,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답사하며



인천청일초등학교 교사

이 흥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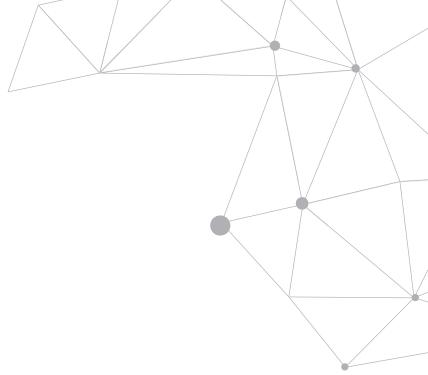
천년의 약속이 흐르는 뱃길, 아라뱃길과의 만남

한강과 서해를 안전하면서도 빠른 뱃길로 연결시키려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경인 아라뱃길의 개척 노력은 2011년에서야 그 결실을 보았다. 천년의 약속이 흐르는 뱃길, 아라뱃길과 낙조의 명소 정서진을 다녀왔다.

경인 아라뱃길은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다. 운하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육지에 만든 인공 수로(水路)를 말하는데, 경인 아라뱃길은 서해(인천 서구)와 한강(서울 강서구)을 연결해 그 사이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인공 수로다. 운하는 불리한 지형의 개선이나 선박의 항로를 단축할 목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다.

이흥순 기자는 지난 2012년 생애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우며 아라뱃길과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자전거를 배운 그 다음 주말, 겁도 없이 아라뱃길 시천동에서 출발하여 여의도까지 달려 보았던 기억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하다고 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날씨가 좋을 때마다 바쁜 교직 생활 중에 스트레스로 답답함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마다 아라뱃길을 위안 삼아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모습, 친환경 녹색물류의 전초기지가 될 아라인천여객터미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71m 높이의 전망대, 아라타워가 있다. 고속 엘레베이터를 타면 단숨에 아라타워 22층에 도착할 수 있다. 아라타워 22층에 가면 정서진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데, 멀리 아라뱃길 서해갑문의 모습, 정서진 건너의 서해의 모습과 하나가 된 느낌이다.



〈아라타워〉

정서진의 노을, 그 매력에 빠지다

정서진의 노을은 구름이 조금 낀 상태였는데도 정말 멋진 풍경이었다. 12월 31일에 정서진에 와서 일몰을 보며 한 해를 마치고, 1월 1일은 정동진에 가서 일출을 보며 한 해를 시작해 보는 여행상품을 개발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떠 올릴 정도로 그 어느 곳에서보다 멋진 노을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노을이 제일인 명소답게 노을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노을종’은 조약돌 모양을 하고 있으며 굉장히 큰 조형물이라 멀리서도 한 눈에 보인다. 또 노을종 주변에는 노을벽, 노을피아노, 노을전망대 등이 있어 장관을 이룬다. 하지만 정서진의 아름다운 낙조 뒤에는 과거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아픔의 시간이 있다.

경인아라뱃길사업의 본격적인 태동은 지난 1987년 굴포천 유역의 대홍수를 계기로 시작된 방수로사업에서 비롯되었다. 굴포천 유역은 한강 홍수위 이하의 저지대로 상습적인 수해 발생 지역이었고, 방수로를 벤길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낙조의 명소로 재탄생되었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Diversity Shines Here),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가다

아시아 각국의 찬란하고 다양한 역사, 문화, 전통, 종교 등을 한자리에서 펼쳐 보이고 우정과 화합을 통하여 인류 평화를 추구하며, 아시아가 하나 되어 빛나는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제17회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시작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역대의 어느 대회보다도 최첨단 기술력과 탄소중립의 환경 친화적인 대회를 지향하며 화합과 나눔, 소통과 배려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감동 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초여름 햇살이 청명하게 내리쬐는 6월에 방문했다.



푸른 하늘로 비상하는 힘찬 날갯짓을
상징하는 주경기장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인천시민 2014명이 참석한
주경기장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인천 서구에 자리 잡은 지상 5층, 거대한 아시안게임의 메카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은 2007년 4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유치가 확정된 후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대지 면적 63만 1천 97제곱미터, 연면적 11만 3천 620제곱미터, 관람석 6만 1천 944석 규모로 4,900억원이 소요됐다. 외관은 빛, 바람, 춤을 모티브로 역동적인 도시 인천과 끊임없이 모여드는 아시아인의 물결을 표현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펼쳐지는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의 개회식, 폐회식, 육상경기, 크리켓 경기가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7일에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준공식 행사가 있었다. 아시아인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는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2014명의 인천시민들이 참여한 의미 있는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다.

주경기장은 우리 고유의 전통 춤사위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끈다. ‘빛을 담다’, ‘바람이 분다’, ‘춤을 춘다’는 세 가지 콘셉트를 바탕으로 개최 도시 인천을 형상화한 디자인이다. 설계 단계부터 청라지구 녹지를 아우르며 서쪽의 연희공원과 북동쪽의 경명체육공원을 연결해 인천의 새로운 녹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계획된 이곳은 성공적인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한 기능성은 물론이고 앞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실용성까지 갖춘 친환경, 다용도 시설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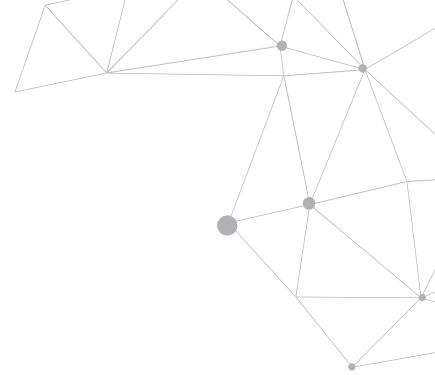
벅찬 만남과 감동적인 성공을 상징하는 ‘Full Moon 2014’

다른 무엇보다도 주경기장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서쪽 출입구 왼쪽 넓은 잔디 광장에 자리 잡은 조형물이 있다. 김성환 작가의 〈Full Moon 2014〉 조형물로서,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는 인천에 ‘동근 보름달이 떠서 어둠을 밝혀 준다’는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좌우로 걸쳐진 구름다리는 달을 관통하여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였는데, 견우와 직녀의 칠월칠석 오작교에서의 만남을 표현한 것으로, 아시아인들이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통해 인천에서 만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 조명 연출을 통하여 달이 차고, 지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고 인천 앞바다를 상징하는 원형의 수변 공간을 주변에 만들었으며, 검고 굵은 붓글씨의 획을 통해 아시아인의 문화적 우수성을 표현했다.



김성환作 〈Full Moon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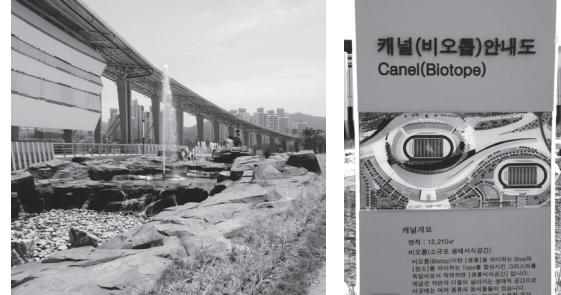


곳곳에 숨어 있는 환경과 예술의 만남의 場

‘친환경적 탄소중립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나눔’의 감동 대회를 목표로 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의 취지에 맞게 주경기장 주위에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여유롭게 휴식 할 수 있는 인공 하천과 많은 예술적 조형물이 있다. 서편 출입구 옆으로 길게 자리한 소규모 생태서식 공간인 ‘캐널(비오톱)’은 12.210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비오톱(Biotop)이란 ‘생물’을 의미하는 Bios 와 ‘장소’를 의미하는 Tops를 합성시킨 그리스어로 ‘생물서식공간’을 의미 한다. 캐널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 공간으로 이곳에는 갈대, 창포, 띠, 부들, 수련, 연꽃 등 20여종의 수생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를 통한 선의의 경쟁과 더불어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아름다운 공간이다.

이외에도 주경기장에는 토지 이용, 교통, 에너지, 생태환경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요소가 도입되었다. 대표적으로 경기장을 따라 흐르며 다채로운 공간을 연출하면서 집수 및 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친환경 장식물들이 있다. 이밖에도 지열, 태양광, 태양열 급탕 시스템, 하이브리드가로등, 유비쿼터스 자전거 대여 시스템 등 경기관람뿐만 아니라 경기 이후 친환경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안내소 우측으로 보이는 고경선 작품 ‘판타지 러너’는 사람들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육상 트랙 위에서 있는 선수들의 마음에서 소용돌이치는 열정과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도 닮아 있다.



캐널(비오톱)



고경선 作〈판타지 러너〉 앞에서



46억 아시아인의 축제, ‘남북 하나’를 꿈꾸다!

이번 아시안게임의 최대 이슈는 북한 선수단의 전종목 참가이다. 지난 5월 23일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 인천아시안게임의 북한 선수단 참가는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대회 슬로건에 부합하고, 남북한 간 긴장관계를 풀고 화해,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남북한 동시 참여뿐만 아니라 ‘남북 하나’의 단일팀 출전도 기대해 본다.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더욱 발전하는 인천의 성장을 위해

2014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 또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이다. 경기장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회 이후 가설 관람석 3만 여석을 철거하고 대형 영화관, 할인점, 아울렛, 연회장, 뷰티클리닉, 스포츠센터 등 대규모 상업 및 문화시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한다. 설계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영화관 유치에 필요한 충분한 높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하드웨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반영하여 주경기장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또 야외 제반 시설 등은 인근지역 거주자 및 서구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된다.

세계인구 60%인 아시아인의 우정과 화합의 장이 될 2014인천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최도시 인천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서해와 동해로 이어지는 평화 벨트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된다. ◎



인천교육에 바란다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꿈꾸며

처음 원고를 의뢰받았을 때 인천교육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앞에 두고 많이 머뭇거렸다. 내가 과연 인천교육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딸 아이의 학부모로서,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을 지도하는 상담심리 전공주임교수로서, 평소에 내가 느낀 비를 조금이나마 풀어놓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다.

2년 전 나는 학교에서 안식년을 맞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었다. 큰 아이와 달리 작은 아이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아 한국에서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했고,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하면서 선생님의 평가적이고 배려 없는 태도에 많이 상처받았었다. 그래서 캐나다의 낫선 환경에서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의 초등학교 생활은 걱정과는 달랐다. 선생님은 아이에 대해 존중하고 학부모를 배려해 주었다. 면담시간마다 다른 교과 선생님과 상담시간을 더 가지면서 아이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알게 해주었다. 아이의 장점을 알려주고 격려해 주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편안하게 연락하고 의견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캐나다에서 첫 학기 사회과목의 주요 주제는 ‘존중(respect)’이었다. 다문화국가인 캐나다는 세계 각국의 아이들이 한 반에 모여 수업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인지 “존중”은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로 다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왕따, 학교 폭력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나와 다르고, 조금 모자라더라도 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를 폭력의 대상으로 쉽게 간주한다.



인천신송초 학부모,
인천대학교 교수

이지연

낯선 환경에서 아이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언어적 장벽에서 오는 외로움 등을 선생님의 관심과 애정으로 극복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여러 아이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그 때문인지 아이는 더 밝았고, 관계를 맺어가는 힘도 생기게 되었다. 학교는 그런 치유의 장이었고, 또 관계의 장이었고, 배움의 장이었다. 아이들은 긴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는 다시 학교에 가기 싫어 했고 나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아야 했다. 담임선생님은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 시킨 했지만, 아이들의 교우관계나 다른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에는 너무 바쁜 분이셨다. 그걸 보면 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자질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올해 새 학년이 되어서 만난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분이셔서 엄마로서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선생님을 만나는 행운이 따라 줄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천 교육의 질이 나아지려면 교사들에 대한 지원과 업무 경감을 통해 교실의 학생들이 행복해지는데 열정을 쓰게 해주면 좋겠다.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교사들을 지도하면서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교사가 많은지 감탄하고는 한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여 하는지를 느낄 때마다 뭉클할 때가 많다. 얼마 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수업시간이 한동안 무거운 분위기로 가라앉아서 지금의 기분을 이야기해 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한 제자는 뉴스를 보면서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양 팔에 아이를 하나씩, 그리고 업은 상태로 수영을 해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그려봤다고 하는 말을 듣고 선생님이 가진 소명의식과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

었다. 그러나 그 소명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과 체제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교사의 소진(burn out)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학교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장이다. 학교는 우리의 인지, 정서, 행동, 사고, 대인 관계 양식 등 다양한 부분이 함께 녹아들어서 성장통을 겪는 과정이자 그 공간이다. 가정에서의 학대나 방치, 다문화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사춘기 등 발달 단계에서 오는 개인적 위기와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표출되고 적절하게 다뤄지면서 아이들의 심리, 사회적 성장을 이끌어가게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 교사로서의 소명과 교육철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사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교사 스스로 아이들과 배우고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면 그 행복한 기운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안전하고, 평화롭고, 서로 배려하는 것을 배우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국가를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많이 배운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한다. 지적인 교육에 치중하면서 남을 밟고 올라가도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가치가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 어쩌면 그런 가치관의 암묵적 동의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인천 교육이 이런 경쟁적 논리보다는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누는 것이 바탕이 되는 성장 교육을 목표로 했으면 한다.

그동안 교육현장에 있는 아이들과 교사들인 제자들을 보면서 많이 답답했다. 이번에 새로운 교육감을 우리 손으로 뽑고 나서,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기대해 본다. ◎



인천교육에 바란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를 기대하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자 경찰이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나는 일부 어린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얼마 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세 명의 친한 친구가 그 중 한 명을 쳐 벌해 달라는 신고를 하였다. 그 친구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는 했지만 평상시 심부름을 자주 시키고 가끔씩 주먹질도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한 친구처럼 보였지만 피해 학생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1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며 피해를 입다 결국 용기를 내어 신고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려준 사례였다.

위의 사례처럼 학교폭력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도 학부모도 학교전담경찰관도 나름대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애쓰고 노력했지만 어른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곳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 역시 지난 학창시절을 회상해 보면 가난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거나,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친구들은 보지 못하였다.

학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친구와 선·후배들이 만나는 배움과 만남의 장소이다. 그런데 정을 나누며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심지어 친구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시대의 흐름이 학생들을 포악하게 만든 것일까?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폭력으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
부평경찰서 형사지원팀장

조순석

로 얼룩지게 만든 것일까? 나는 이것이 어느 특정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는 학교폭력으로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겁이 날 수도 있다. 학교폭력 없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창시절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학교와 교육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이 부분에 더욱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필자 역시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학교 문제로만 생각하는 우리 학부모들의 생각 또한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 내 자녀가 다른 학생을 폭행하여 힘들게 할지도 모르고, 이와 같은 피해로 힘들어하며 말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학교폭력이 학교와 교육관계자들만의 잘못이라고 탓하며 우리 학부모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

요즘 학생들은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선생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므로 학교야말로 청소년 시기의 인격과 지식을 쌓는 장소, 친구가 보고 싶고 선생님의 가르침이 궁금하여 가고 싶은 곳, 크나큰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터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세계에 우뚝 설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학교 탓으로 돌리기보다 각각의 가정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입장 또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범죄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소외감에서부터 탈선이 시작된다고 한다. 최근 잘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친구, 선·후배들이 같은 취미로 모여 활동하는 동아리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이 곧 학생들에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되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제도나 개선책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꼼꼼히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스스로의 의식변화는 물론 학부모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교육계의 아낌없는 노력의 뒷받침이 조화를 이룰 때 폭력 없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먼 훗날 학창시절을 떠올릴 때 행복한 미소가 입가에 번지기를 기대해 본다. ◎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교육 현실

확실히 세상에 단언할 수 있는 일이란 없는 법인가 보다.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겠지만, 미처 부모가 될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아이를 맞이 해야 했던 때만 해도 미래에 우리 아이가 겪어야 할 사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가 자랄 사회는 지금보다는 더 인간적이고, 안정적이고, 심지어는 남북관계까지도 원만해져서 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군대를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는!!!) 정말로 막연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절반쯤은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그런 막연한 기대는 너무도 막연할 뿐이고 현실감이 전혀 없는 것이었음을 나도, 우리 아이마저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말씀을 굳게 믿고 정말 열심히 살면서 기다려 왔지만, 말 그대로 바뀐 것은 정직하게도 ‘강산’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개인적인 성취가 반드시 경제적인 성취, 혹은 사회적인 지위와 비례하지 않아도 모두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성공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같은, 우리가 기대하던 사회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넘쳐나는 공약들 틈바구니에는 분명히 교육에 대한 공약도 장밋빛으로 펼쳐져 있고, 공약이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몇십 년쯤 후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던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공약은 공약일 뿐, 공약은 잘 이행되지 않는다. 일부 지켜지는 공약 또한 결국 방법만 다를 뿐 사회의 변화를



가좌고등학교 학부모,
에이치엠디 개발부장

박홍연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해주지 못하는 교육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과, 몇 년에 한 번씩 천지개벽하듯 바뀌어 버리는 입시요강을 이해하기 위해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입시설명회장을 들락거리며 알쏭달쏭한 입시요강 자체를 공부해야만 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나의 막연한 기대들은 착각을 넘어서 과대망상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물론 내가 너무 선구르고, 조급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사회의 변화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일 것이다. 심지어 교육의 변화를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육자들조차도 생전에는 노력의 결과를 절대 볼 수 없다는 뜻일 것인데, 고작 이십 년 만에 변화라니?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사회적 인재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으며, 훌륭한 인격(人格)의 소유자보다는, 인격적이지 못한 고등바보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유불리’만 따지는 세상의 교육

교육의 역할이 공부 잘하는 학생만을 길러내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도대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케플러의 제 1법칙’이니 하는 것들을 줄줄 외워 섬기도록 하고, 전공이 아니라면 사는 동안 써먹을 일이 절대 생기지 않는 ‘미분과 적분’을 밥먹듯이 반복해서 풀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만약, 공부 잘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면 사교육 뒤풍무니를 쫓아가기도 바쁜 학교보다는 사설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관점의 교육을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그럴싸한 대학교 졸업장일 것이다.

물론, 대학교 졸업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 아들, 딸 역시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대학교 한번 가보겠다고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보쇼, 거 똑같은 입장끼리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지 맙시다.”라고 누군가 이야기 한다 해도 할 말이 없다.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고, 아이들 스스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것이 미안할 뿐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해서 열심히 그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감히 물어본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대학교를 들어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사회의 경쟁적인 교육 분위기에 내몰려서 공부한 우리의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성공, 경제적인 성취, 혹은 사회적인 지위와 비례하지 않아도 그 결과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

나 또한 이 질문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고, 현재의 과도한 경쟁의 입시 교육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처럼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 또한 교육계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노력을 비판하거나 그 노력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헛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 스스로 먼저 상식을 바꾸는 용기가 있었으면 한다. 우리의 상식은 ‘옳고 그름’ 보다는 ‘유불리(有不利)’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며, 어느새 ‘잘 사는 것’은 경제적 풍요만을 일컫는 말이 되어버렸다. 지금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불리’를 구분하도록 가르치고 있고, 그 기준은 오로지 경제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

학교에서 바르게 사는 법과, 나눔과, 지식과 지혜의 향기를 실컷 배우고 졸업했는데 막상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배운 것과 다르다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무얼 배워야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설학원에서 미분과 적분을 배워서? 교육이 변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이다.

이번에 「인천 교육」 원고 의뢰를 받고, 우리나라의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했다.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먼저 교육이 바뀌어야 하고, 교육이 바뀌기 위해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뀌어야 한다. “만약에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살 아지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폴 발레리(Paul Valery)의 격언처럼 우리는 이미 살아지는 대로 생각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심지어 그게 옳은 것인 줄 착각하면서 경제적 가치와 성공신화에만 집착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 주어야 한다.

계산이 좀 서툴더라도 유머가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알고,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와 나눔의 가치를 알고, 경제적 가치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실패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실패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며, 목표 없이 공부만 한 사람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해온 사람을 인재(人材)로 받아들이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훌륭한 인성(人性)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라는 선생(先生)을 보고 배우며 자란 우리의 아이들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에게 “걸어 다니는 살아 있는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교육은 교육자만의 문제도, 정치인들의 문제도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는 절대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할 때, 백년 후의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보게 될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인간적이고, 따스하고, 밝지 않을까. 열심히 살며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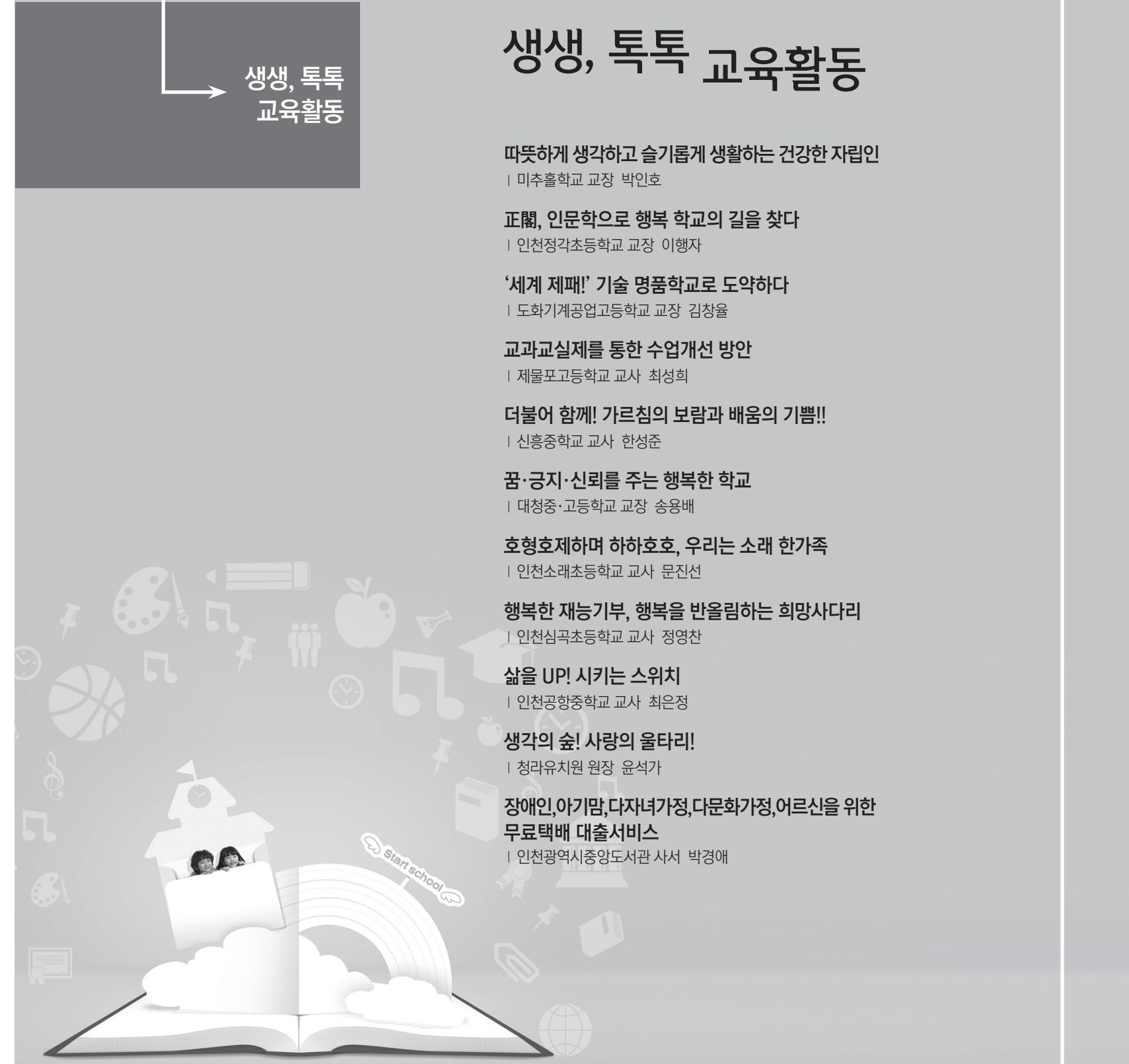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生生, 톡톡 교육활동

생생, 톡톡 교육활동

따뜻하게 생각하고 즐기롭게 생활하는 건강한 자립인

| 미추홀학교 교장 박인호

正閣, 인문학으로 행복 학교의 길을 찾다

| 인천정각초등학교 교장 이행자

‘세계 제패’ 기술 명품학교로 도약하다

|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김창율

교과교실제를 통한 수업개선 방안

|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최성희

더불어 함께! 가르침의 보람과 배움의 기쁨!!

| 신흥중학교 교사 한성준

꿈·긍지·신뢰를 주는 행복한 학교

| 대청중·고등학교 교장 송용배

호형호제하며 하하호호, 우리는 소래 한가족

| 인천소래초등학교 교사 문진선

행복한 재능기부,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 인천심곡초등학교 교사 정영찬

삶을 UP! 시키는 스위치

|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최은정

생각의 숲! 사랑의 울타리!

| 청라유치원 원장 윤석가

장애인, 아기맘,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어르신을 위한
무료택배 대출서비스

|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사서 박경애



따뜻하게 생각하고 슬기롭게 생활하는 건강한 자립인



미추홀학교 교장

박 인 호

1.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내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입니다.’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씨가 한 TV프로그램에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로서의 심경을 고백한 말이다. 아마도 장애아를 둔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심경을 파악한 말이 아닐까 생각된다.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시스템은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지원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비록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우리 특수교사는 현실만을 탓하며 학교에 안주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의 장벽이 높기에 더욱 노력하여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책임이 특수교사들에게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미추홀학교에서는 ‘따뜻하게 생각하고 슬기롭게 생활하는 건강한 자립인’ 육성을 인간상으로 장애정도와 특성, 인지능력과 기능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여 사회성과 직업능력을 신장시켜 지역사회 속에서 따뜻하고 슬기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격체 육성을 교육목표로 특수교사의 사명을 다하여 학생들이 미래를 알차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은 역동적인 삶과 행복 추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다. 요즘에는 평생체육이 강조되어 다양한 사회체육 동아리도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각종 프로스포츠도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체육시설도 많아지고 있다.

공간, 시설 등 스포츠 참여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사회체육 참여는 매우 저조



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적인 지도자의 부족과 프로그램의 부족이 그 원인이기는 하지만 학교가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비만 관리 및 예방, 다양한 스포츠 참여경험 확대, 기초 체력증진을 통한 건강개선을 목표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신체활동 7530+’를 운영하고 있다. 각 연령별 발달 단계와 운동 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체육시간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급학생이 5~8명 정도로 소규모이고, 단체 활동의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 중학, 고등학교 과정이 함께 모여 하는 경쟁형 게임과 스포츠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간이 게임과 변형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리드업(Lead-Up) 운동기술을 신장시키고 장애학생들도 성취감과 협동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매년 4월 19일에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인천대공원에서 ‘사제동행 걷기 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우리 학교를 알리고 우리 학생들의 장애극복 의지를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비록, 2시간 내외의 걷기 코스이기는 하지만 보행이 불편하고, 낮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이 높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올해도 전교생이 참가하여 완주 기념 배지를 가슴에 달고 기쁘게 웃는 모습에서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었다.



3. 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박근혜 정부의 교육 키워드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이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함양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인재 개발 외에도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감수성을 개발하는 것에도 그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장애학생의 교육 측면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 시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학교는 장애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 및 체험 기부를 위해 유관기관과 활발하게 연계함으로써 학교 안에서의 예술(음악, 미술)교육의 한정된 틀을 벗어나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컨텐츠를 활용하는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있다. 미술 강사의 교육기부 활용 수업과 군부대 공연, 학창단 공연, 현대무용 공연, 국악체험 한마당 등 전문 강사와 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기부를 통해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갤러리를 지역사회 작가에게 개방하여 작품 상설 전시를 함으로써 학생 뿐 아니라 학교인근 주민의 전시관람 문화 활동의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공예작가와 함께하는 공예체험활동

- 연계기관 : 인천공예인협회 교육기부
- 체험시간 : 연중 165시간 이상

무용가와 함께하는 무용체험

- 연계기관 : 인천시립무용단
- 체험시간 : 2시간 이내(40분씩X2회=80분)

관현악단 초청 음악체험한마당

- 연계기관 : 인천해양경찰청 관악대,
- 육군보병군악대
- 주제 : 공연 체험

화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활동

- 연계기관 : 개인 작가 재능기부
- 체험시간 : 2시간 이내(40분씩X2회=80분)

문화 공감 “미추홀갤러리” 운영

- 연계기관 : 지역 작가 및 학생
- 전시주제 : 회화, 서예, 공예, 학생작품

Healing 콘서트

- 연계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제 : 성악가 황영택과 함께 Healing 콘서트



4. 진로·직업 기능 개발을 위하여

장애학생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만큼 학교생활 이후의 자립 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의 중심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자립의 핵심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독립은 성인으로서 가져야 할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직업생활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써의 장애학생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우리학교는 교내에 학교기업을 유치하여 진로·직업교육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풍부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아래에서와 같이 초등학교과정에서부터 전공과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경제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년 1회 Job-Festival을 개최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 및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초등학교 과정

- 생애주기별 맞춤식 Job School 운영
- 사회, 현장체험교과와 연계하여 운영, 직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학습 활동
- Market-Day 참여
- 전공과 실습실, 산학협력현장 견학

중학교 과정

-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진로를 찾아가는 Job School 운영
- 직업교육용 전용차량을 이용하는 현장중심 직업 탐색 및 체험 기회의 제공
- Market-Day, Job-Festival Day(교내 직업 박람회)참여
- 현장체험학습의 사전, 사후 학습을 통하여 직업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탐색



고등학교 과정	전공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운영 - 현장체험학습 연계, 본교 전공과 기술교과 견학 및 체험, - 제과 제빵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 현장체험 (교내실습, with-job) - Market-Day, Job-Festival Day(교내 직업 박람회)참여 - 산학협력현장 실습 참여(고등 3학년 대상) - ITP개별화전환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업 One-step과 함께하는 Job School 운영 - 천연비누 생산, 전통식품 가공 강좌 - 교내 현장실습 체험 프로그램 - 교내 심화반 운영(천연비누, 제과 제빵), 카페 Grigo - 산학협력현장실습(천우 굿프렌즈, 현대공예인협회, 유일산업) - 교외 현장실습(미추홀도서관, 부평도서관, 푸드마켓) - Market-Day 운영 : 천연비누, 제과 제빵 제품 판매 - ITP개별화전환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5.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오늘도 등교버스를 맞이하는 선생님들과 특수교육실무원들로 주차장이 북적인다. 나도 항상 등교 버스를 맞이하려 함께 나가 학생들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학생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담임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삼삼오오 손을 잡고 교실을 향해 걸어간다. 내 앞을 지날 때는 어눌한 말로 인사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안기는 녀석들도 꽤 많이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과연 배울 수 있을까?’하는 궁금증과 회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선입견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등굣길에서 볼 수 있듯이 꾸준한 인사지도를 통해 어느 일반 학교보다도 더 인사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 우리 학교라고 자랑이다. 배우는 과정에 시간과 노력이 일반 학생에 비해 더 많이 필요하지만, 배운 것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특수교육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우리 학생들이 가진 능력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장벽이 아직 높다는 것이다. 물론, 경쟁고용 장면에서 일반인들과 대등한 위치의 취업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차원에서 지원고용의 형태를 유연하게 가져간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건강과 체력 신장, 문화적 소양 함양, 그리고 진로·직업교육을 핵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자립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학교의 노력이 학생들의 밝은 미래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해보며 우리 학교 복도에 있는 글을 소개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시도할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

正閣, 인문학으로 행복 학교의 길을 찾다



인천정각초등학교 교장

이 행 자

I. 인문학의 향기로 채우는 정각 교육

‘사람이 미래다.’

귀에 익숙한 이 명제는 한 대기업의 광고이다. 이 광고는 사회에 막 진출 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며 주위 동료들과 협력할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경쟁으로 힘들어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꿈과 끼를 키우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교육이 희망이다.’

학생들 저마다의 특기와 꿈을 살려 미래의 진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은 바로 교육이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도 바로 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교실에서는 바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문학으로 길을 찾다.’

고운 심성과 창의적인 생각, 건강한 의지와 조화로운 소통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인문학 교육에서 찾아보았다. 메마른 일상에 예술이라는 단비, 문학이라는 윤활유를 더해주는 인문학을 통해 아이들은 인간답게 생각하고 느끼며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키우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다.

II. 인문학의 시작, 독서 교육

내 옆에 새로 앉은 친구에게, 매일 새롭게 변하는 세상에 먼저 다가가 ‘같이 놀래?’라고 말할 수 있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을 키우는 길, 스스로 생각하는 힘으로 행동하고 반성하며 실천하는 사람을 키우는 독서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문, 무한한 지식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책 안에서 인문학의 시작을 열기로 했다.

책 읽는 아침

- 책 읽어주는 엄마 - 본교 학부모독서회 주관으로 그림책에서 인문학 도서에 이르기까지 아침자습시간을 이용해 전교생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처음에는 아이들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던 엄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를 맞대고 독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1년. 올해는 아이들의 뜨거운 반응과 요청에 의해 월 1회씩 학년마다 돌아가면서 실시했던 것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씩 ‘책 읽어주는 엄마’ 시간을 가지고 있다.
- 책 읽어주는 언니·오빠 - 독서 교육을 위한 엄마들의 움직임에 5,6학년을 중심으로 조직된 본교 학생독서동아리 ‘정각 혜윰이’도 사서 교사의 지도를 받아 저학년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우리학교에서는 아침 시간에 책 읽는 소리가 교실 창문 너머로 항상 들리곤 한다.
- 색깔있는 독서 테마 조회 - 형식적이고 지루하던 아침조회시간을 학생들의 우수한 독서 활동 결과물로 채워보았다. 책을 읽고 작가인터뷰, 독후 엽서 등 다양하게 발표하면서 깊이 있는 사고뿐만 아니라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독서힐링프로그램 ‘정각 Book적 Book적 1박2일 가족 캠프’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며 가족이 책과 함께 소통하는 독서 문화 활동과 휴식을 목표로 T/F팀까지 꾸려 여는 마당부터 프로그램 하나하나까지 야심차게 준비했다. 직접 저녁 요리를 준비하고 늦은 밤까지 학교도서관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책을 읽고 가족 심성놀이를 하며 밤을 지새웠다. 학교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학생과 학부모가, 학부모와 교사가 하나의 추억을 공유하고 나눈다는 것이야말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가 아닐까 한다.



북적북적 북콘서트, 전교생 1인 저자되기 책 출판회

전교생 1인 1책 펴냄 독서 교육 프로젝트 활동으로 학생들이 책의 주제, 내용, 삽화, 디자인 등을 스스로 꾸미고 만들어 완성한 책을 전시하고 학부모님들을 초대했다. 어린 학생들의 책 속에는 행복한 꿈과 동심이, 고학년 학생들의 책 속에는 진로 탐색과 과학, 미래, 환경 등 학생들의 저마다의 관심과 특기가 담겨져 있었다. 스스로 저자가 되어 1권의 소중한 책을 펴내기까지 수많은 책들을 접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또 한 걸음 성숙하게 되었을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교육

- 알뜰 도서 교환 장터 - 책은 나누고 지식은 더하자는 취지 아래 가정에서 다 읽은 양서들을 서로 교환하여 우량도서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가 매우 높게 나와 2학기에는 자체 행사로 계획 중에 있다.
- 지역도서관 탐방 - 미추홀도서관 원화전시회 관람 및 원화 따라 그리기와 같은 지역사회의 문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우리 동네의 문화시설도 알 수 있고 주말을 이용해 부모님과 다녀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 찾아가는 독서교실 - 지역도서관의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여러 차례 좋은 독서 프로그램들을 지원 받았다. 학부모 특강이나 학생 대상 ‘책과 함께 떠나는 세계일주’, 방학 중 독서 캠프 등 다양한 독서 교육 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학교를 변화시키는 교사들의 노력

- 학습도서 연계 교과 수업 - 다른 세상과 만나 소통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업 도구는 바로 책이다. 교실 수업에 책을 가져와 학습의 깊이를 더하고 더 넓은 눈을 가질 수 있게 학습도서 연계 교과 수업을 디자인하였다. 수차례의 협의회와 공개수업을 실시한 결과, 본교 교사들은 더 이상 학습도서 및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을 어렵게만 보지 않는다.
- 교사독서동아리 ‘多讀다독 책 읽는 선생님’ - 학습도서 연계 교과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독서 교육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동아리를 꾸리고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독서 교육 관련 전문서적을 읽고 토론을 벌이거나, 교사들을 위한 현직 연수 물을 제작하는 등 교과 연계 독서 교육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독서 교육에 대한 접근과 연구를 통해 우리 학교의 독서 교육 전통을 만들어 잊고자 한 노력 끝에는 분명한 변화와 감동이 있었다. 지난해 우리학교는 2013 독서 교육 대상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부문에서 인천광역시 우수교로 선정되었고, 인천 동부 푸른 독서 골든벨 장원을 거머쥐었다.

연이어 올해에는 새얼 문예 학생 백일장 전국 시 부문 장원과 전국 최우수 지도교사 상과 학교상을 받는 영예를 얻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지정 독서토론논술교육 연구 학교로 지정되어 앞으로 2년간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이란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해나가게 된다.

우리 학교의 독서 프로그램과 학습 도서 연계 교과 학습을 통해 아이들의 독서 편식이 줄고 가정의 독서 친화력도 생겨났으며 교내 도서관의 이용률도 1.8배 가까이 향상되었다. 앞으로 우리학교를 지역의 작은 도서관으로서 독서를 통한 평생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본교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III. 인문학의 동행, 문화예술교육

타인과의 감정을 공유하는 공감이 부족한 요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예술교육’일 것이다. 통제와 경쟁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감정이입과 소통할 수 있는, 모두가 공유할 만한 가치 있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려 몸으로 익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활동은 진정 아이들이 동심의 세계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화예술로 벼무린 학교 교육과정

학교를 마친 후에 더 바빠지는 아이들, 주말에도 바쁜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학교 일과 시간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최대한 많이 자주 접할 수 있게 하고자 양질의 프로그램들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성하였다. 학년별 자율활동 시간에 문화 예술 중점 운영 시간을 연간 20시간 이상 확보하고 다채로운 진행을 위해 학급당 1,000,000원 (총 45,000,000원)을 지원하였다. 연극, 무용, 국악 등 장르를 넘나드는 ‘찾아가는 음악 교실’이나 도예원에서의 ‘그릇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창체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창체 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 영역 동아리를 확대 운영하여 총 38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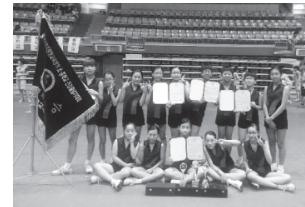
[3학년 관현악기 체험]

오감만족 문화예술 동아리로 스트레스 free

- 상설 문화예술 동아리 - 바쁜 아이들의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고자, 창체 동아리와 연계하거나 토요 방과후 학교를 활용하였다. 전통음악, 인문학, 생태환경, 스포츠, 미디어 5개 분야에서 7개의 상설 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다. 세밀한 교육활동 계획과 충분한 예산 편성, 본교 교사들의 열정에서 비롯된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전국 및 시 대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동아리의 가장 빛나는 성과는 아이들의 밝아진 얼굴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아진 관심이 아닐까 한다.
- 방과후 학교 - 우리학교는 토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만 500여명, 주중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는 63강좌에 1,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통기타부, 단소부, 색연필화부 등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정도이다. 귀가 얼얼하도록 악기를 두드리고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뛰고 구르다 보니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꿈과 끼를 찾아가고 있다.



[정각 풍물부]



[정각 음악줄넘기부]



[정각 합창대회]



[스포츠데이 '줄다리기']

아빠와 함께하는 스포츠데이

늘 학원과 공부에 매달려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학교에서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런닝맨 깃발 찾기, 볼풀공 농구 등 다양한 경기와 레크레이션으로 부자간의 추억을 만들고 팀 응원단장을 뽑아 좀처럼 보기 힘든 아빠들의 끼를 충분히 발산하여 새로운 면모를 뽐낼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바쁜 일상에 지친 학부모들도 오랜만에 맛보는 활기찬에 의욕적으로 경기에 참가하여 온 가족이 하나 되는 모습은 행사를 주관한 교사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어요.”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이들의 변화를 눈으로 직접 보는 학부모들은 한편으로는 성적이 걱정되면서도 동아리나 방과후 교실을 그만둘 수 없어 졸업 후에도 종종 학교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과 학생들의 즐거운 참여로 우리 학교의 문화예술 중심 교육과정이 빛을 발하여 2013년 인천광역시 학교 교육과정 우수교 및 학부모 학교 참여 우수교, 동부교육지원청 푸른교육활동 우수교로 선정되었다. 이제 문화예술 교육은 자연스럽게 우리 학교 문화로 자리 잡게 되어 성적 중심의 경쟁 교육 풍토 속에 메말라 있던 아이들이 즐겁게 꿈과 끼를 찾는 행복한 학교가 되었다.

III. 인문학의 열매 –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한 ‘착한 학교’

우리는 문학과 예술로, 음악과 스포츠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경험을 종종 하곤 한다. 인문학은 아름다움과 즐거움, 다양한 감정을 공유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창구인 셈이다.

학교 현장에서 인문학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동심과 끼를 찾아주고 참된 인성과 건강한 열정을 키워주고자 시작된 작은 시도가 이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도 함께 꿈과 끼를 찾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결실을 맺고 있다. 올해 우리 학교의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결과를 보여, 지난해 대비 전체 만족도 평균이 10점 가까이 향상되었다. 그 중에서도 독서교육과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한 진로와 인성교육은 만족도 점수에서 최고를 받았다.

우리 학교의 이런 노력과 변화를 통해 화학조미료의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 꾸밈없고 있는 그대로 맛있는 착한 식당처럼 아이들의 밝은 웃음,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교사의 열정이라는 천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착한 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세계 제패!’

기술 명품학교로 도약하다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김창율

5대 명품학교 프로그램으로 도약하는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 ▶ 세계를 제패한 기능영재 육성 프로젝트
- ▶ 국방부 지정 인천 유일의 군 기술부사관 양성학교
- ▶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취업
- ▶ GCGM 글로벌 해외현장체험학습 프로젝트
- ▶ 체험중심 R. C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명품학교가 되고자 국방부지정 군(軍)기술부사관 양성학교, 인천광역시지정 생활지도 선도학교, 고용노동부지정 취업역량강화 선도학교, 교육부지정 산업체 현장체험 현장실습 정책연구학교, 교육부지정 호주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는 2014년 2월 제33회 졸업생 353명, 총 21,69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통에 빛나는 명문 특성화고등학교로서 기계공작과, 폴리메카닉스과, 산업설비과, 전산이용기계과, 전력제어과, 금형테크과 6개학과 36학급 총 993명이 쑥글 동산에서 전문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2011년 3월, 제13대 초빙교장으로 취임한 뒤, SWOT분석을 통해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의 효과적인 발현을 위해 전교직원이 참여하는 ‘명품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경영의 최우선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명품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잠재적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경연대회 개최(합창, 방송댄스 경연대회 등), 심신이 건강한 군(軍) 기술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자치위원회 활동 및 체력단련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해외글로벌 현장체험학습, 세계로, 미래로 꿈을 갖게 하는 ‘기능영재반’ 운영 등으로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세계를 제패한 기능영재 육성 프로젝트

2012년 2월 산업설비과를 졸업한 ‘용접 천재’ 남진수 군은 2013년 제42회 독일 국제기능올림픽에서 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용접직종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세계를 제패한 남진수군은 “대한민국 용접 명장을 넘어 세계 최고의 용접명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는 기능영재 육성 프로젝트가 낳은 귀중한 성과로 기능영재로 선발된 많은 후배들의 모델로 각인되었다.

남진수 군은 봉수초등학교와 간재울중학교를 거쳐 2012년 2월에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평소 성실한 자세로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의 훈련과 다른 선수들이 쉬는 휴일에도 혼자 나와 밤 11시까지 훈련에 매진하여 세계 제패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2010년과 2011년 인천지방경기대회 용접직종에서도 2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상 수상 및 뿐리기술경기대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2011년 청주시에서 실시된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용접직종에서 대통령상(금메달) 수상, 인천지방경기대회에서는 2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근면 성실하고 예의바른 인품과 뛰어난 용접기능으로 재학 중 삼성중공업에 특채로 입사한 남진수 군은 후배들에게 재학 시절에 기능연마를 위하여 흘린땀과 열정이 미래의 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는 점을 당부하며 오늘도 삼성중공업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2013 독일 국제기능올림픽 시상대



2013 독일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왼쪽 2번째 남진수 졸업생)



국제기능올림픽 세계제패 환영



세계제패 탑 제막

인천 유일의 군(軍) 기술부사관 양성학교

최근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공무원이다. 우리학교는 이러한 학생의 꿈을 실현시키고 타교와의 차별화를 위해 2007년 정부부처 협약(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에 따른 ‘군(軍) 특성화고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군(軍) 특성화 대상학교로 선정되었다. 이에 2008년부터 총기 및 화포분야 군(軍)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군(軍) 특성화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군(軍) 기술 교육을 미리 이수한 후, 군(軍) 전문기술병으로 입대하여 전문하사까지 복무하고, 장기 기술부사관으로 진출하여 군(軍) 중견 간부로 근무하거나, 제대 후 관련 분야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신개념 제도다. 기술부사관 임용초기에는 9급 공무원의 대우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취업난이 심한 요즘 같은 시기에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신입생 모집 시 군(軍) 특성화 교육과정과 일반 취업과정으로 구분하여 1학년 때부터 군(軍) 기술부사관이 되기 위한 강인한 체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과 바른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다. 우수 군(軍) 기술부사관 전문성 교육을 위한 영관급 장교 전역자(4명)를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하여 총기 및 화포정비 관련 맞춤형 기술교육과 군부대에서 80

시간 이상 현장실습, 태권도, 리더십 캠프 등 1인 3종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하여 각종 안보체험학습, 초청 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4 군특성화 발대식



2014 군특성화 자치회 발대식



군 특성화 태권도 승단 심사 장면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호주) 취업

2012년 3월부터 우리학교는 더 넓은 세상에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인 캄보디아 프놈펜의 메타바이오메드(주), 베트남 호치민의 피스비나(주), 중국의 상해에 위치한 운학기전 기술유한공사 및 금강전제부건제조유한공사 등의 기업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호주 퍼스 지역의 MWA(Master Welding Australia)사와 MOU를 체결하고, 우리학교 3학년 학생 20명을 글로벌 호주 해외취업반으로 선발하여 호주 현지 적응에 필요한 영어회화 및 전공심화 실기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생 중 최종 4명이 2012년 11월 2일 호주에 도착하여 약 3개월간 호주 현지에서 용접기술 및 영어교육 등 호주현지 적응교육을 받고 호주 현지에 취업하여 2014년 현재까지 우리학교 글로벌 호주 해외취업반 학생으로의 자부심과 기능한국의 저력을 펼치고 있다.

해외 취업의 연장 사업으로 2014년 교육부로부터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호주)사업단으로 선정되어 금년 9월 하순부터 12주에 걸쳐 호주의 기업체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용접기술, 영어교육 및 문화체험 등의 인턴십 과정을 이수할 계획이다.



해외취업생 호주 현지로 출발



해외취업생 호주 현지 연수



베트남 피스비나(주) MOU체결

GCGM(Global Challenge, Global Mind) 글로벌 해외현장체험학습 프로젝트

우리학교는 학생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해외현장체험학습인 GCGM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GCGM 프로젝트의 목적은 첫째,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현장 체험을 통해 꿈과 비전을 갖게 하며, 둘째, 면학분위기 조성 및 자아실현의 성취감을 높이고,셋째, 글로벌 마인드 형성과 도전정신 함양을 통해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될 자질을 갖추는 데 있다.



GCGM 프로젝트는 매년 20여명을 다양한 영역의 활동 우수학생(성적, 취업소양관련, 대회입상실적, 봉사, 선행, 모범)을 선발하여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중국 강소성 연운항외국어학교 방문 및 상해, 난징 지역, 2012년에는 대만의 화중상공업고등학교 방문 및 역사, 문화 탐방, 2013년에는 대만의 네이후고등학교, 문화대학교 방문 및 중정 기념관 등 대만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였다.

2014년에는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윤봉길 의사 난징 대학살 현장과 해외에 진출해 있는 4곳의 우리나라 기업체 견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현장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0년도부터 ‘중국어’과목을 1학년 교육과정에 편성하였고, 2014년도부터는 2학년 교육과정으로 확대하여 재학중 2년 동안 ‘중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교류 체험학습(중국)



국제교류 체험학습(중국)



네이후고등학교 방문(대만)

체험중심 R.C(Restoration of Confidence)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즐거운 학교생활로 자신감을 회복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신체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기초학력을 기르며, 사회성 증진으로 졸업 후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학생들의 의견과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더한 결과 축구, 농구, 족구, 합창, 방송댄스 등 ‘R.C(Restoration of Confidence 자신감회복)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 분야별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 2학년 전체 80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1학년은 주4회 축구, 농구, 족구, 합창 프로그램을 2학년은 축구, 농구, 족구, 방송댄스를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12월에 학년별 발표대회를 실시하여 우수학급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임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뿌리를 내린 ‘RC(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은 인근학교에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R.C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로는 첫째, 매년 100여명이던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줄어 2013학년도에는 26명, 2014년 6월 현재 10명으로 2014학년도에는 학업중단학생을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전교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자신감 회복으로 직업기초능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셋째, 질서의식이나 인사예절, 대인관계, 수업분위기 등에서 눈에 띠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R.C(Restoration of Confidence 자신감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인 학교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합창 연습



방송댄스 연습



방송댄스 대회



농구 경기



합창 대회

교과교실제를 통한 수업개선 방안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며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최 성 희

교과교실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었던 학급형 수업체계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교과형 수업체계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교과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을 통하여 창의적 교실 수업을 구현함으로써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수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여 학교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인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교는 2010년에 ‘선진형 교과교실 운영 학교’로 지정되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교과교실제의 외적인 틀을 갖추고, 2011년부터 75분 블록타임 수업과 학생들이 교과교실로 찾아가는 이동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개선은 교과교실제 성공의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과교실제를 활용한 교실 수업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교과교실제를 학교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 절실한 과제이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체계화된 연수 과정을 지원하여 수업 전문성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개혁의 승패는 교사에게 달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교과교실제 활용 교실 수업 개선의 방안을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서 찾는 것은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에 본교에서는 교과교실제를 통한 교실 수업 개선 방안으로 ‘교사 연수 프로세스 개발’과 ‘75분 블록타임 수업 모형 개발’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운영하였다.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1) 교과교육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및 교무조직 재편성

교과교실제의 교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조정 및 블록타임과 수준별 수업 실시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특히 블록타임 수업은 기존의 50분 수업을 교과내용과 수업 방법에 연속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써 팀 프로젝트 수업, 사례 중심수업, 토론과 실험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 방식이 가능하므로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심화학습도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교과교육활동 중심의 교무 조직을 위해서 행정업무가 행정지원부서로 집중될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며, 2012년부터 교과교육부를 설치하여 교과목 특성에 맞는 학습방법 개선 및 수업개선 사례를 연구하고, 다양한 교과별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3년 교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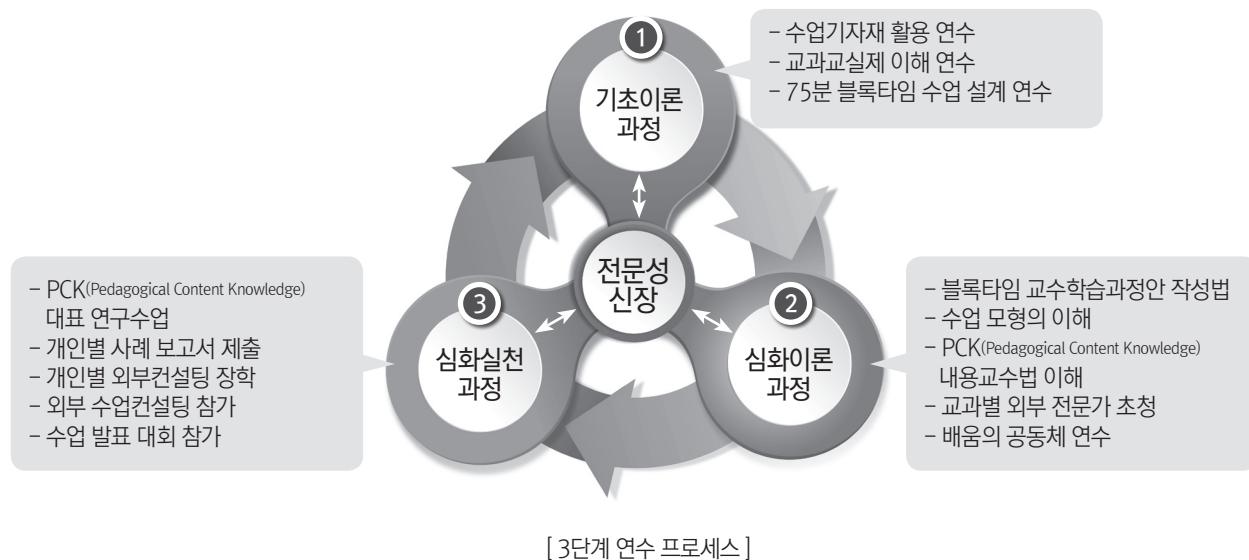
2) 교실 재배치 및 교과교실 환경 구축

본교는 건물의 수가 많고, 건물간의 간격이 넓고, 노후된 정도의 차이가 심하여 과목 중심의 공간 배치(zoning)가 어려웠다. 이에 건물을 중심으로 학년 별로 교과교실을 배치하였다. 우리 현실에서 담임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어 학년 협의실을 두고 담임은 학년 협의실에 상주하도록 하였는데 동 교과 교사를 근접 배치하여 교과 관련 협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교과교실에는 교과의 특성에 맞는 전자교탁, 전자칠판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설치하고, 교실의 벽면에는 교과관련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게시판을 설치하여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교실 환경 구축 사진 일부]

전문성 신장을 위한 3단계 교사 연수 과정



1) 기초이론 과정

교사들이 교과교실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에 관한 연수가 이루어졌다.

첫째, 모든 교사가 교과교실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 교과별 집합 및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교과교실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동료교사들의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새로 구입한 최첨단 기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업기자재 활용 연수를 자주 실시하였다. 기자재 활용 연수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용이하고 능숙하게 기자재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자재와 관련된 의문점을 바로 해소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연수로 구성하였다.

셋째, 75분 블록타임 수업 설계 연수를 통하여 학생 중심의 활동 수업설계를 위한 기본 구조를 파악하였다. 즉, 수업 도입 후 전개과정에서 20분을 기준으로 '이론(설명)-경험(참여)-자각(복습)'으로 나누어 학생 참여활동이 포함된 수업을 설계하도록 하였다.

2) 심화이론 과정

교과교실에 대한 기초이론 과정을 토대로 심화이론에 관한 연수를 통하여 교사의 수업개선을 위한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첫째, 다양한 수업모형 연수를 통하여 교과의 특성과 수업의 목적에 맞는 수업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은 정형화된 수업의 틀에서 벗어나 교재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 모형을 적용해 볼 수 있었다.

둘째,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수방법의 이해를 통하여 수업개선을 위한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블록 타임 교수학습과정안 작성법 연수를 통하여 교수학습과정안 설계를 위한 역량을 배양하였다. PCK란 특정 내용을 특정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교과내용과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학생중심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PCK 교수방법과 블록타임 개념을 활용하여 수업지도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교과별 외부 전문가 초청강연을 통하여 수업사례 중심으로 실제수업시간에 실현가능한 수업모형과 방법을 소개해 주는 연수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체 연수가 주를 이루어 교과의 특성에 맞는 연수를 실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각 교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과 중심의 연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이론을 습득하고, 수업을 재구성함으로써 교사가 궁극적으로 수업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배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는 배움의 공동체 원격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전달 위주의 교수·학습방법에서 벗어나 학생은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배움의 공동체 원리는 학생 활동 중심의 창의적 수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다섯째, 수업비평 연수를 통하여 교사 활동보다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관찰하고, 이를 분석하여 수업현상을 하나의 분석 텍스트로 삼아 수업을 비평하는 최근의 수업비평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수업비평 동아리를 중심으로 수업비평에 대하여 학습한 이론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하였다.

3) 심화실천 과정

교과교실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론 과정 연수내용을 실제 수업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수업을 개선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첫째, PCK 연구수업 활성화를 통하여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동료 교사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PCK 연구수업은 일회성 행사 중심의 연구 수업 형태를 탈피하여 배우는 공개수업을 지향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연구수업 전에 사전 협의회를 통하여 수업 교사의 수업 의도, 수업 설계 전략,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하여 미리 설명을 듣고 수업을 참관함으로써 연구수업이 진정한 의미의 동료 컨설팅 기회가 되었다.

둘째, 개인별 수업 사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업 개선에 기여하였다.

셋째, 개인별 수업코칭 및 외부 컨설팅 장학을 통하여 수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수업코칭은 수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에게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여 성공적인 수업을 이끌어 가는 힘을 키워주고자 하는 취지로 실시되었다.

넷째, 수업비평 동아리를 중심으로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을 참관한 후 수업비평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과 동료교사의 피드백을 통한 수업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교사 동아리의 활성화를 통하여 배움의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의 전문성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블록타임을 활용한 수업 모형 개발

교과교실제가 실제 교실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사들은 블록타임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첫째, 75분 블록타임을 활용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듈 수업이라는 형태를 도입하였다. ‘모듈 수업’이란 인간의 집중력이 20분이 최적이라는 근거를 토대로 구성된 방법이다. ‘모듈 수업’은 한 수업을 2~3단위로 쪼개고 그 한 단위를 이론(설명), 경험(참여), 자각(복습)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75분 수업을 20분씩 3단위로 나누고, 20분 안에 이론, 경험, 자각의 요소가 반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듈 수업’을 토대로 학생활동 중심의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75분 블록 타임을 운영하였다.

둘째, 스토리가 있는 지도안을 활용한 교과별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스토리가 있는 지도안은 기존의 교수·학습 과정 및 형성평가로 이루어진 수업지도안의 앞부분에 교사의 수업 설계 의도와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고, 마지막 부분에 더 좋은 수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선순환 구조로 구성되었다. 교사는 수업을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해 가는 자세로 수업을 설계하면서 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고민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모색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교사는 교수학습과 수업모형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교과에 맞는 수업 전략을 설계하고,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 중심의 활동 수업모형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실제 교실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수업의 질적인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었다.



교과교실제의 성공을 위하여

교과교실제는 궁극적으로 교실 수업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특히 학생 중심의 참여 활동형 수업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여건을 제공한다. 교과교실의 구축은 발표 수업을 위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는 데 유용하고, 블록타임은 참여 활동형 수업에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주었다. 또 교과중심의 행정조직을 통해 교과협의회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사 연수로 교실 수업 개선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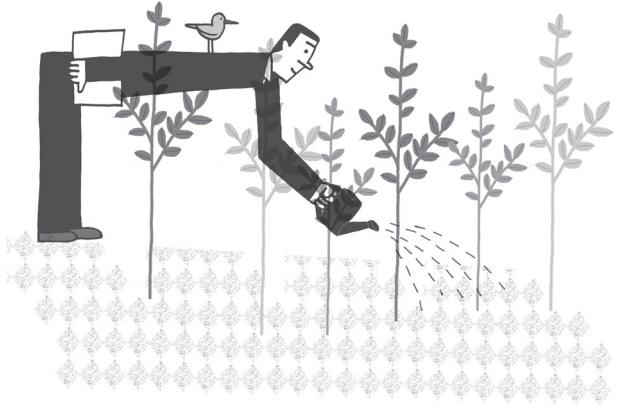
그러나 교과교실제가 지속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첫째, 학급 담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현실과 교과교실제 운영에 의해 약화되는 학급 운영 체제(학년중심 운영 체제)의 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시설 관리, 연수 지원, 수업 활동을 위한 교구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과교실제는 수업의 ‘내용-방법-평가’를 개선하여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관리자와 교사가 확고하게 갖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어우러졌을 때, 교과교실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여 공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함께! 가르침의 보람과 배움의 기쁨!!



신흥중학교 교사

한 성 준

지난 6월 11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제5차 인천교육정책 포럼’이 있었다. 이 포럼은 ‘교육 변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교육의 미래 찾기’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교육감 선거 직후에 있었던 포럼이고 주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나는 이 포럼에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았는데 내가 발표했던 주제는 ‘학교 변화 사례, 방법과 시사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인천에서 11년간 교사로 성장하면서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와 학교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과 결과를 나누었다. 내 개인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신흥중학교 모두의 이야기였지만, 신흥중학교의 한 사람으로, 인천의 교사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랑, 그리고 가정방문

내가 처음 발령 받은 학교는 인천 동구에 위치한 화도진중학교였다.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이 된 학교로 지역에서는 꽤나 힘든 학교로 소문나 있다. 나는 오랜 시간 교사를 꿈꿔 왔고 교직에 처음 선 것이 화도진중학교였기에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오래 가지 못했다. 결석과 무단 결과, 선생님에 대한 무례한 말과 행동들. 내가 담임으로 학급을 운영하는 건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유지되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두 달이 못 가 매를 들기 시작해서 또 다시 두 달 후에는 매가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할 정도가 되었다. ‘내가 교사가 되고 싶어 임용고사 시험 준비는 엄청 열심히 했지만, 정작 아이들을 사랑할 방법은 모르고 있구나.’ 하고 한참 후에 깨달았다.



올해로 가정방문 11년째,
아이들을 알아간다는 것이 교사로서 나를 성장케 했다.

사랑할 줄 몰랐던 나에게 새로운 실마리는 아주 우연하게 찾아왔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내 인내심을 끌없이 시험했다. 안되겠다 싶어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무작정 가정을 찾아 갔다. ‘도대체 어떤 부모이기에 이 정도로 아이를 방치하나’ 한번 따지고 싶었다. 난생 처음 쪽방촌 샷길을 따라 겨우 아이의 집을 찾아 갔다. 이럴 수가! 공용 화장실, 냉장고 속 썩은 음식물, 곰팡이가 핀 이불, 그리고 덩그러니 앉아 있는 그 녀석! 부모도 없다. 보호자도 없다. 그 녀석 혼자 있었다. 어찌 된 것인지 물으니 부모는 이혼했고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는데 올 때마다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다고 한다. 큰아버지 댁에 사시는 할머니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신다고 했다. 내가 교무실에 앉아 학년 초 학생이 제출한 ‘학생 이해 자료’와는 너무도 다른 현실이었다.

첫 가정 방문 이후 그 녀석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달라졌다. 결석과 무단 결과를 밥 먹듯 하였지만 학교에 나오는 것 자체가 고맙고 신기했다. 그리고 가정 방문 후 그 녀석은 나름 열심히 학교에 나왔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매년 가정 방문을 간다. 올해로 교사가 된 지 11년이고 담임을 할 때마다 매년 가정 방문을 갔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알아야 한다. 학교에서 보여 주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아이의 전부가 아

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 주는 모습도 그 아이의 전부가 아니다. 해마다 가정 방문을 하면서 매년 30명의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나에게 행복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의 사랑의 용량도 커지고 나는 교사로서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 사랑할 수 없다. 30여 명의 아이들을 온전하게 다 품어 주지도 못한다. 그러나 가정 방문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교사로서 성장 중이다.

선생님 집에도 놀러 오너라



한 달에 한 번 학급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온다.
해주는 것 없이 행복한 날이다.

가정 방문에서 시작한 나의 학급 행사는 지난 11년을 지나오면서 훨씬 다양해졌다. 입학 날 학생들을 환영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 학부모님께 담임을 소개하는 학부모 정직 편지, 가정 방문 후 가장 힘든 아이를 선택해 1년 동안 꾸준하게 도와주는 일대일 결연, 학급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 저녁을 먹는 담임선생님 댁 가정 방문, 학급 아이들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단합대회, 종업식 날 떠나는 마지막 학급 여행 등 여러 가지 학급 활동을 한다.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담임선생님 댁 가정 방문’이다. ‘내가 너희들 가정을 다 방문했으니, 너희들도 선생님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이들을 설득한다. 한 달에 한 번 그 달에 생일인 녀석들이 우리 집으로 온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원을 공식적으로 안 가도 되고, 담임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고 하니 빠지는 녀석 없이 잘들 온다. 아이들이 집에 온다고 해서 담임으로서 할 일은 별로 없다. 내 차에 아이들을 잔뜩 태워서 내 집에 풀어 놓기만 하면 된다. 지들끼리 방도 구경하고 우리 집 애들과 섞여서 잘들 논다. 짜장면이나 시켜 주고 보드게임이나 몇 개 나눠주면 그 만이다. 뭐 돈이 좀 나가기는 하지만 담임 수당은 월마다 꼬박꼬박 나라에서 주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 활동이 나와 학생들을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 된다. 자극히 사적인 공간인 가정을 학생과 교사가 공유하는 것, 아마 이것이 신뢰의 시작이리라. 졸업한 녀석들이 가끔 연락해 오면 10명 중 9명은 가정 방문 간 것을 이야기한다. 나도 졸업생을 떠올리면 그 아이의 얼굴과 함께 그 아이의 집이 배경으로 그려진다. 올해도 가정 방문을 갔고 또 월마다 학급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온다. 이 아이들과 소중한 신뢰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내 게는 행복이고 재산이다.

두 번째로 의미 있는 학급 활동은 ‘일대일 결연’이다. 가정 방문을 하고 학급에서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늘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연약한 아이들이 눈에 띄게 마련이다. IMF 이후 무너진 가정이 사회적으로도 늘어나고 내가 원도심 학교로만 전근을 다녀서 그런지 해마다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만난다. 담임으로서 그냥 눈감을 수 없어 1년에 1명씩 도움을 준다. 사회복지 단체와 연결해서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남겨서 따로 학습 지도를 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아이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만나는 아이들마다 다르다.

나의 교사됨을 일깨워 준 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담임을 한 중학교 1학년까지 해마

다 학급에서 왕따였다. 가정 방문을 가기 전부터 그 아이는 내 눈에 띄었고 1년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담임을 하면서 1년간 친구 관계를 개선해 주려고 많이 노력했다. 그러나 결과는 허사였다. 내가 담임을 했던 중 1뿐만 아니라 중 2, 중 3 모두 학급에서 친구 관계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 아이를 담임할 때, 나는 우리 집 작은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딸 아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선생님 무릎에만 있다는 것이다.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새끼가 나중에 학교에서 어떻게 지낼지를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파 왔다. 그러다 문득 우리 반 왕따 그 아이가 생각났다. 일대일 결연을 하고 있던 그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가슴이 찢어질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내 딸 아이의 일에서는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나의 이중성을 보았다. 가정에서의 내 아이나, 학급에서의 내 아이나 모두 소중하다 말했지만 그건 말뿐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아이를 1년간 담임했지만 딸 아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 아이와 꾸준한 관계를 유지했다.

지금 그 아이는 고 3이다. 여전히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두세 달에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과 저녁을 먹는다. 두세 달에 한 번 와서 그 동안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토해내듯 이야기를 한다.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너를 믿어주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힘이 되나 보다. 선생님으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이제는 내가 그 아이의 담임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담임이라고 생각한다. 한 아이를 온전히 품어 주는 과정에서 나는 교사로서, 부모로서 많이 성장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이제 그 아이는 곧 취업을 나갈 예정인데 내 딸 아이가 취업 나간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준다. 또 하나의 잔소리

일지 모르지만, 교사가 아닌 부모의 잔소리로 들어주길 기대한다.

이런 선생님, 또 만날 수 있을까



입학 날 아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하루 전날 출근해 교실을 청소하고 책상 위에 작은 초콜릿을 준다. 담임이 들어오면 큰 환호를 요구하는 쪽지와 함께!

학급 내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면서 참 아쉬웠던 것은 좋은 활동을 나 혼자만 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 감정이었다. 한 학교에서 아니, 한 학년에서 이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직 경력이 쌓이면서 나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선배 교사가 된다는 것은 ‘교육을 얼마나 잘하는냐’보다 본인의 ‘교육 활동을 주위 사람들과 얼마나 잘 나누느냐’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도 점점 중견 교사의 위치가 되다 보니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 받는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잘한다 말하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나누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나눠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신흥중학교에서는 교육 활동에 열정이 많은 선생님들과 한 학교, 한 학년을 꾸리고 있다. 교육 활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 열정이 둘이, 셋이 모였을 때는 열 배, 스무 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매년 나 혼자 하던 가정 방문을 올해 우리 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 5명이 모두 했다. 나는 단

합대회정도로 학교에서 삼겹살이나 구어 먹는데, 옆 반 젊은 총각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해마다 두세 차례 학급 야영을 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예 1박 2일 잠을 잔다. 어떤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 험 기간 내내 함께 공부를 해 주는 선생님도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 3학년 담임 중에서 내가 학급 운영 제일 못한다. 나는 나름 우리 반이 재미있는 반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제일 심각한 반이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동료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학급 활동에 품앗이도 해 주고, 우리 학급 문제도 자기 학급 문제처럼 진심으로 받아준다.

한 번은 학교 선생님들과 종업 여행을 꾸민 적이 있다. 마침 연구학교 운영 예산도 조금 남아 있고 학년 종업식을 끝내고 무심하게 아이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과 정동진 밤기차 여행을 꾸렸다. 학년말에 일이 많아졌지만 기대하는 아이들 모습 속에서 충분히 위로를 받았다. 단체 표를 예약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영등포역에 갔으나 좌석 표를 구하지 못해 40명도 넘는 학생들이 모두 입석으로 꼬박 정동진까지 가야 했다. 마지막 학급 인사를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하고 싶었으나 정작 해는 구름에 가려 나오질 않았다. 서서 가느라 모두 고생했을 학생들과 동료선생님들한테 많이 미안했다. 그렇지만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이었다고 머쓱한 웃음을 지을 때 나도 덩달아 웃었다.



2013년 2월, 입석표를 끊어 갔었던 정동진 종업 여행.
학급 아이들도, 함께 한 선생님들도 고생만 한가득!

이런 선생님들, 또 만날 수 있을까?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힘도 덜 들고 협력하는 기쁨을 배워 간다. 어디 정동진 밤기차 여행뿐이겠는가? 아이들과 컵라면 같이 먹어 가며 시험 준비해 주고, 학급 야영 품앗이 해 주고, 학급 운영 자료 중에 좋은 것 있으면 아낌없이 나눠주고. 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만의 비법인 것처럼 나누지 않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크게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은 교사로서 더없이 행복한 일이다. 우리 학교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연수.

지난 길지 않은 교직 생활과 교사로서의 나를 되돌아보며 난 요즘 이런 질문을 한다. ‘나는 어떻게 교사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학교는 교사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학교란 무엇인가?’ 어렵게도 내가 지금껏 교사로 살면서 학교 연수나 학교 자체 행사가 나를 성장시켜 주지는 않았다. 1년이면 100시간 넘게 들으라고 하는 사이버 연수가 나를 성장시켜 주지는 않았다. 돌이켜 보면 학교 밖에서 활동했던 여러 종류의 교사 모임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다. 교사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학교는 교사의 생애 주기에 따른 성장 동력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교사의 성장은 오로

지 교사 혼자의 책임이고, 학급의 모든 문제는 담임교사 혼자 해결해야 하는 구조이다.

신흥중학교에 오면서 선생님들과 여러 교사 동아리를 해 봤다. 수업 관련해 어려움을 나누고 해법을 찾는 수업 동아리, 학급 운영에 대한 좋은 자료와 방법을 나누는 학급 운영 동아리. 꾸준하게 참여한 모임도, 그렇게 하지 못한 모임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내가 경력이 점점 쌓이고 보다 많은 책임을 요구 받을 때,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교사 동아리와 같이 선생님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법을 같이 찾는 것이라 확신했다.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50대, 60대가 되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대답하기 더 곤란하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 나 혼자만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함으로 나도 성장할 수 있다.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를 만든다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지금 당장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서 나중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장교사가 되고, 교장선생님이 되면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학교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부장이 되고 교장이 된다한들 학교를 바꿀 리 만무하다. 나는 내 삶의 수준에서, 나의 위치에서 학교를 학교답게, 공교육을 공교육답게 바꾸려고 노력한다. 지난 6월에 있던 포럼도 실은 그동안 3년 가까이 신흥중학교에서 학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나누었던 것이다. 꿈꾸고 기대했던 것만큼 학교가 쉽고 바르게 바뀌지는 않지만 지난 3년의 노력으로 우리 학교는 인천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되었다고 나는 자부한다. 물론 나의 지극히 주관적 잣대로 말이다. 학교가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수평적이고, 보다 자율적이고, 보다 인간적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정 방문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어 먹고, 학년말이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 교사 개인의 열정으로 비추어지지 않고 학교의 문화로 누구나 함께 즐거운 활동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꿈꾼다.

교사를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여긴다면 학교를 새롭게 하는 일이 그리 어렵기만 한 일은 아닐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의 학교가 홀륭한 개인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갈 것인가?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를 만든다. 좋은 교사가 좋은 학교다. 학급 운영이든, 수업이든, 학교 경영이든 학교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한 덩어리로 어우러지면서 함께 추구할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다.

더불어 함께! 가르침의 보람과 배움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 ◎



한 그루의 큰 나무보다는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자 꿈꾸는
신흥중학교 교육 공동체!



꿈·긍지·신뢰를 주는 행복한 학교

우리학교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과활동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효율을 실천하는 예의 바른 인간상 구현, 지역 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실현으로 자율과 나눔, 그리고 배려를 실천하는 인재를 기르고자 한다.



대청중·고등학교 교장

송 용 배

섬마을 선생님으로 새로운 출발

삼삼오오 무리지은 학생들이 재잘거리며 활기차게 학교 언덕을 오른다. 본교는 1978년 개교 하였으며, 서해의 설악산이라 할 만큼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도 쉬어 넘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전교생은 52명으로(중 27명, 고 25명)아담한 규모의 섬 학교이다.

‘섬’이라고 하면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라는 노래 가사만 떠오르는 내가 2013년 3월 1일자로 대청중·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그때의 마음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걱정과 우려가 설렘보다 앞섰던 것 같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런 생각은 기우였음을 깨닫는다.

학급당 학생수가 40여 명으로 과밀학급인 시내 학교에 비하면 본교는 그야 말로 꿈같은 학교라는 생각이 듦다. 대부분 학생들이 형제·자매·남매이고, 다수의 학생들이 인척관계를 맺고 있어 어려서부터 끈끈한 결속력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자율형 교육과정 운영교로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대청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지만, 꾸준한 노력 아래 확고한 국가관과 자신감을 키우는 교육 과정 운영으로 대학 진학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반면, 문화 및 체험시설의 부재로 문화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예의범절을 경험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다. 이 모든 것들을 학교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이곳의 현실이다.

부임 후 내가 한 다짐은 사회·문화·교육기반 시설이 미비한 현실이지만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인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18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대청중·고등학교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꿈·긍지·신뢰를 주는 행복한 학교로 발돋움하게 하는 것이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목표다.

대청면 공공도서관 상시 활용으로 독서 습관 생활화와 면학 분위기 정착

본교는 개교 37년 된 노후 건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교실은 물론 마음 놓고 책을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평소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학생들이 독서 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다. 그 결과 학교 가까이 있는 대청면 공공도서관과 협조적 동반자 관계를 구성, 사용 협정을 체결(2013.3.)하여 독서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대청공공도서관은 1개의 열람실과 3개의 면학실이 있는 대청 최고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방과 후에는 공공도서관 열람실을 면학실로 활용해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여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으며, 귀가 후 가정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문화적인 시설이나 체험활동을 할 기회가 없으므로 인터넷이나 게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이 항상 우려되곤 하였다.

학기 초, 선생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중·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면학실과 열람실을 구성하고, 2인 1조로 구성된 교사들이 돌아가며 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연장학습 또는 주말학습을 할 학생은 면학실에 우선 배치하고, 각 실별로 지정 좌석을 배당하여 학습의 편의와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했다. 평일 오후 5시부터 21: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2시까지 연장함으로써 지금은 학생들 모두 열심히 참여한다.

처음에는 도서관 사용수칙이라든가, 읽고 싶은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 지조차 몰랐던 학생들이 이제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습에 열중하는 모습에서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준 지역사회와 협조에 감사함을 느낀다.

중·고 학생들을 적절하게 혼합함으로써 선·후배 간에 학습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참여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92%의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면학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날로 향상될 것이라 믿는다.



1:1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신장

교실 수업 현장에서 본교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성적 격차였다. 학년별 학생수가 5~6명, 제일 많은 학년이 13명인 학교에서 무슨 성적 격차인가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적 차는 생각보다 컸다. 또한 사고력을 요하는 발문에 익숙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 내용 파악 자체를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은 학생수와 본교 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장점으로 학습흥미를 유발하는 ‘1:1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는 물론 공부 습관 및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극복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와 학생이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여 과목별 자기주도적 학습을 설계하고, 지도교사의 철저한 입장 지도하에 요일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맨투맨 학습지도(학교 각 교실 사용)를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습관이 형성되는 배움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매년 해병대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사회 지식 기부 멘토인 해병대원 4명(2014학년도 현재 서울대 2명, 외국어대 1명, 세종대 1명)과 만남을 통해 주 2회(화, 목) 2시간 씩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학습도우미로서 지원도 받고 있다. 수업뿐만 아니라 해병대원의 우수하고 다양한 대학의 학과전공 소개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꿈과 진학지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식기부 자원의 멘토링을 위한 상담실을 열람실 내에 설치하여 상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귀가 후에도 멘토링을 위한 SMART교육 시스템을 완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결과, 학습에 흥미를 갖고 노력하는 학생이 많아졌으며, 학습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통한 학습력이 신장되었다. 또한 성취평가제의 안정적 정착으로 학교 교육의 역량이 강화되고 학교 교육의 신뢰성이 회복되는 소통의 장으로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다.



꿈과 끼를 키우는 무학년 동아리활동

2009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중에 중요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본교의 동아리 활동은 대청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린 중·고 통합의 무학년 동아리반 14개 부서를 조직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제동행 독서 동아리 ‘수오재(守吾齋) - 책은 나를 지키는 집’은 서해 5도에 위치해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책으로나마 세상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 ‘분

단(分斷) 문학 읽기 및 대청도 실향민 보고서 작성'이 있다. 대청도에 거주하는 실향민을 만나 직접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역사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좋은 롤 모델을 만들어 주기 위한 '지역 인사와 함께 하는 <대청 지식인의 서재>'를 운영한다. 지역 내 지식인들을 찾아 그들의 학창시절 독서에 대해 묻고, 책을 추천받아 보고서로 작성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다. 또한 수오재는 대청도 설화 문학 채록활동을 한다. 이는 내가 살고 있는 '대청도'를 사랑하는 한 방법으로, 채록한 설화 문학을 바탕으로 UCC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탑재해 대청도 홍보활동도 겸하고 있다.

보통 인원이 선·후배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청의 지질과 자연환경을 탐색(과학탐구활동반, 향토 체험반)하는 학술활동반, 대청의 자연을 사진으로 담아 전시하는 사진 에세이반 및 영화관이 없는 대청에 선별된 영화를 감상하는 문화예술활동반, 대청의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대청전통음식을 체험(손으로 만드는 세상)하는 실습노작활동반, 필드아처리(양궁)반, 탁구반과 같은 스포츠활동반 등의 동아리활동은 자율과 배려,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친구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학교생활 즐기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청에서 나고 자라서 함께 유·초·중·고를 다니다 보니 서로를 애틋하게 여겨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점은 칭찬해 주고 싶다. 그러나 서로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이 전부인 양 선생님들께나 학생들끼리도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아 강한 친밀감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절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곤 하였다.

특히 언행(言行)을 때와 장소에 맞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고, 장난이 심하여 심약한 학생들은 쉽게 상처받고 부적응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생활지도 면에서 서로 존중하며 아끼는 '친구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학교폭력예방 이깨동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학년 초 학교폭력예방(언어폭력) 교내 캐릭터전'에서 수상한 학생이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가 인쇄된 활동복을 착용하고, 대청언어현장을 제정 및 낭독함으로써 '바른말·고운말을 생활화 하자'는 마음 다지기로 출발하였다. 남녀 선·후배 간 스포츠 활동(자율), 학년 모둠별 대청어울림 음식 만들기(나눔), 애플데이 행사(배려)도 진행하였다.

스포츠 활동은 축구(남)와 피구(여)를 통해 모두의 열정으로 혼연일체가 되는 시간이었으며, 대청어울림 음식 만들기는 '사 이좋은 라볶이', '돈독한 만두', '우정은 도시락을 타고' 등 친구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완성된 음식을 친구·선생님과 나누면서 그간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를 풀어놓는 정다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바른말 · 고운 말! 감동 있는 행복한 학교!'를 모토로 고운 말 쓰기 나의주장 발표대회, 가정 연계 언어문화 개선프로그램 '우리아이 달라졌어요!(칭찬, 격려, 지지, 공감)', 선풀 달기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언어폭력 없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서로 위하고 존중하며, 폭력에 노출되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

할 것이다.

그밖에 선생님과 1:1 멘토링 상담활동, 연합 캠프 및 에코 트리 대청 숲 체험 교실 등은 협동심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봉사정신 함양, 환경보전의식 고양과 안전의식을 생활화함으로써 친구들과 따뜻한 학교생활을 즐기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본교는 접적지역에 위치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해병대 흑룡부대 병영훈련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부대 연병장에 전시된 장비를 견학·조작해보고 제식훈련을 시작으로 기초체력단련과 고무보트(IGS) 훈련을 받으며, 해병대 특유의 강인한 군인정신을 온몸으로 체험함으로서 애국심과 인내심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가 사는 곳 내가 지켜내겠습니다.”는 강한 의지로 해병대 장병처럼 헤드케팅(머리에 보트를 이고 이동하는 훈련)과 진수법, 폐들링(바다에서 노를 젓어 앞으로 이동하는 훈련) 등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체력한계를 극복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비록 몸은 힘들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과 함께 우리가 사는 서북 5개 도서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몸소 체험을 통해 느낀다.

흑룡부대는 병영체험뿐만 아니라 부대견학, 안보교육, 방과 후 학습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본교만의 자랑스런 교육활동 파트너이다.



토요스포츠데이 활동과 특기적성 및 평생교육

본교의 가장 큰 자랑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흔히 공교육의 부재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 휴업일에 시내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 아침이면 전교생이 모두 다 평일처럼 삼삼오오 등교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교육 및 특기·적성,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목말라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기에 가슴이 끓을 해진다.

토요 스포츠데이와 특기적성은 감정과 사고를 다양한 예술 형식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풍부한 미적 경험과 예술적 감수성을 제공하고 있다.

‘대청 요리쿡! 조리쿡!’반은 장래 희망이 요리사나 푸드스타일리스트인 학생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대청전통음식(대청산나물 비빔밥, 산나물스테이크, 우럭수제비, 효소 고추장, 전통장외 10여 종류)은 물론 서양음식, 퓨전음식을 체험하고 있다.





장식공예반은 유리공예, 냅킨공예, 한지공예, 시계공예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물품들을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전시회도 실시한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인성과 감성에 초점을 맞춰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다. 현악반은 대청 축제인 동백제에서 공연의 꽃으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여 사랑받고 있다.

토요 스포츠리그반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된 운동 욕구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학생들 간의 협동심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타인과의 공감·배려·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사소한 시비나 학생 간 다툼,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실시하는 대청의 주요 교육활동이다.

평생교육 전통음식 체험반은 대청 제철 음식(냉이·달래전, 봄나물 꽃 비빔밥, 효소 담기), 대청 슬로우프드(전통 장, 효소 고추장, 산나물 장아찌), 대청 절기 음식(진달래 화전, 쑥전병, 짠지떡, 대청 홍합탕, 국화차), 대청 퓨전 음식(우럭 탕수어, 대청 팔보채, 꽃게 피자구이, 오징어 순대) 등을 토요일마다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 미술반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인터넷 카페인 ‘대청도 2010’을 운영하며, 매주 활동하고 있는 작품 사진과 활동 사진을 카페에 올려 서로 친목을 다지고 있다. 또한 대청지역의 특성을 살려 학교전통을 만들어 가는 문화적 토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Daecheong 명품학생(名品學生)

- 인성과 학력 함양 -

본교는 도서지역의 열악한 인적·물적 자원을 극복하면서 인성과 학력을 함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시간관리 능력 향상 및 절대적 학습시간의 증가, 멘토와 교감할 수 있는 허브를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인성과 학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Daecheong 명품학생(名品學生)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Daecheong 명(품), 품(성), 학(습시간관리), 생(활지도)은 코칭노트(Coaching Note)를 매일 작성하여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시작한다. 담임교사와 코칭노트 상담을 통하여 라포(rapport)를 형성함으로써 균형잡인 인성, 철저한 학습시간관리, 자기주도적 학교생활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Coaching Note는 매일 작성하고 일별, 주별, 월별로 학력 관리부장과 자기주도학습 담당교사가 점검한다. 학생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5분 단위로 과목별로 Coaching Note를 작성하며 시간활용 완성도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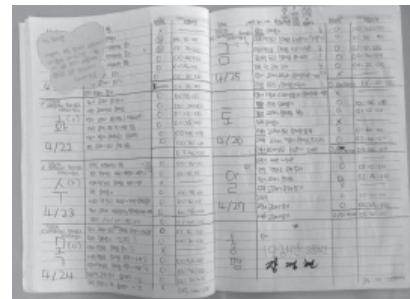
'세르파 성적 분석 자료'는 멘토와 학생에 제공되며, 멘토링 피드백에 활용한다. Coaching Note 충실퇴와 세르파 성적 분석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에 의한 학력향상 우수학생에 대하여 학기별 시상을 통해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Coaching Note는 과목별 멘토에게는 멘토링 수업 시 매회 제출되며 보호자에게 주 1회 회신하여 가정과 학생, 멘토 교사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로서의 교육 문화적 총역량을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에 투여함으로써 학생의 기초 학습능력 및 고차원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결과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은 일대일 맞춤형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2014년 대입 진학지도에 재학생 6명 중 인하대 2명, 목포 해양대 1명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1명은 2014년도 옹진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자신의 꿈인 공무원 임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도 대청중·고등학교의 '꿈·긍지·신뢰를 주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대청 교육 공동체의 노력은 꺼지지 않는 등 불이 되어 더욱더 환하게 빛을 비출 것이라 확신한다. ◎



호형호제하며 하하호호, 우리는 소래 한가족



인천소래초등학교 교사

문 진 선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배움이 짹트는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원하는 학교다. 학교폭력 근절은 많은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자 중대한 문제로 모든 학교에서 학교단위, 학급단위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교 역시 3월과 9월 학교폭력추방주간 및 친구사랑주간을 운영하며, 프리허그, 문예행사, 전교학생회 캠페인활동,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 폭력예방을 위한 방안들이 수립되었으며, 또래조정자 활동, 학급단위의 상담 및 교과수업 등의 철저한 책임지도를 통하여 다양한 예방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교육활동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본교는 2013년 10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어깨동무 학교’ 및 ‘문화콘텐츠 관람 지원’에 선정되어 ‘가족’이라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이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울림’과 문화예술을 활용한 ‘공감’을 통한 <호형호제 하하호호 소래 한가족>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호형호제 하하호호 소래 한가족

더하기 어울림

- 소래 가족 만남의 날 <결연식>
- 사랑의 편지 쓰기
- 소래 가족 화합의 날 <콩깍지 줄넘기>
- 안부 편지 쓰기
- 소래 가족 표현의 날 <가족액자, 가족배지>
- 소래 가족의 날 <오봉산 등산>

더하기 공감

- 뮤지컬 <수크라이>
- 연극 <또래조정자가 된 앨리스>
- 사물놀이 공연

빼기 학교폭력

1. 더하기 ‘어울림’

가. 소래 한가족 탄생

날짜 : 2014년 3월 18일

제목 : 동생이 생겼어요

3월 18일 2교시에 의자매를 만들었다. 내 의자매는 1학년 2반 김○○이었다. ○○이는 반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크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 안아주고 하트도 만들고 사진을 찍었다.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에는 서로 쑥스러워서 물지를 못 했다. 다행히 선생님이 ○○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봐주셔서 서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빨간색 안경을 썼다. 빨간색 안경이 너무 귀여웠다.

점심시간 때 동생을 보려 다시 1학년 2반으로 내려갔다. 내 동생은 수업 중이었다. 수업중이라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밖에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 동생에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설렘으로 가득한 2014년 3월. 새로운 만남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며 서로를 탐색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탄생한 특별한 가족, 의형제·의자매.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친구사랑 주간’을 맞아 3월 18일 ‘소래 한가족 만남의 날’, 1학년과 4학년, 2학년과 5학년, 3학년과 6학년이 짹을 이뤄 학급별로 의형제·의자매를 맺었다. 두근두근! 얘가 내 동생이라니! 어색함과 신기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름을 물어보며 금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서로 돋고 사랑해 줄 것을 약속하는 프리허그와 함께, 형제사랑 서약서와 생명존중 서약서를 작성하며 학교에서 맺은 형제·자매의 인연을 소중히 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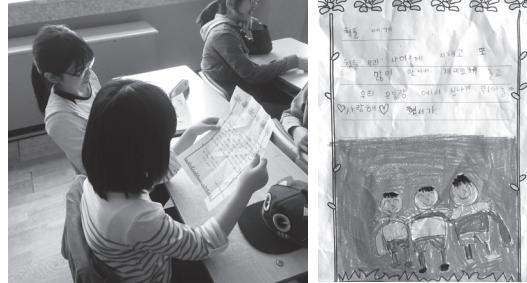
결연식 이후 짧은 만남이었지만 너무나 특별한 감정들이 아이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쉬는 시간 친구들과 함께 동생 반을 찾아가 창문을 기웃거리며, “○○아! 네 동생 저기 앉아 있다.”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하는 형과 언니. 방과 후 텅 빈 6학년 교실에 찾아와 “저... ○○ 언니 동생이에요. 언니 자리가 어디에요?” 하며 언니 책상에 가만히 앉아 보던 3학년 아이. “선생님 제 동생 너무 까불어요.”, “제 의형제는 축구를 잘해요.”, “학교 앞 슈퍼에서 만나면 맛있는 간식 사 줄 거예요.” 라며 선생님께 동생을 자랑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잔잔한 사랑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나. 사랑의 편지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놀다가 만난 나의 형이 나에게 인사를 해 주었다. 어깨가 으쓱해지며 든든한 마음이 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학교 안팎에서 의형제 의자매를 만나면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내 친구에게 자랑하며 조금씩 정을 쌓아가는 아이들에게 예쁜 글씨 가득한 반가운 편지가 도착했다. 4월 마지막 주 아침자습 시간에 열린 ‘마음나누기 편지쓰기’ 시간에 전교생은 자신의 의형제에게 편지를 쓰고 교실에서 만나 편지를 교환하였다. 1,2학년들의 그림 편지를 보며 웃는 형, 언니들. 자신의 편지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소중하게 가방에 넣는 모습들이 마냥 사랑스러웠다.



〈마음 나누기 편지쓰기〉

다. 콩깍지 줄넘기

날짜 : 2014년 6월 10일

제목 : 의형제와 함께 한 줄넘기

오늘 학교에서 의형제 ○○와 함께 줄넘기를 하였다. 운동장 한복판이어서 엉성 더웠다. ○○이도 엄청 더웠을 것이다. 우리 반끼리 하는 것과 의형제와 함께 하는 것은 느낌이 달랐다. 마지막 줄넘기에서 4학년은 100개, 1학년은 50개를 뛰라고 하셨다. 내가 먼저 뛰고 난 후 힘들어하는 ○○이의 것을 대신 뛰어주었다. 제일 재미있던 것은 동생과 호흡을 맞춰 마주보고 뛰 것이다. 다음에도 의형제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져 점점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6월 10일과 11일은 ‘소래 가족 화합의 날’, 자신의 의형제·의자매와 만나 알콩달콩 호흡을 맞춰보는 콩깍지 줄넘기! 더운 날씨였지만 함께 한다는 즐거움으로 특별한 시간을 함께 했다. 교실에서는 마냥 어린 아이들이 동생 앞에서는 듬직한 형과 언니가 되어 줄을 돌려주고, 호흡을 맞춰 주며, 친절하게 알려줬다. 즐거운 체육 활동이 매개가 되어 소래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애가 한층 더 깊어졌다.

라. 학교는 또 하나의 가정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를 통해 가족 같은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다. 8월 여름방학에는 방학 중 안부편지 쓰기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다. 10월에는 ‘소래가족 표현의 날’과 ‘소래가족의 날’이 계획되어 있다. ‘소래가족 표현의 날’에는 의형제가 함께 모여 클레이접토로 가족 액자 만들기, 가족사진 찍기, 가족배지 만들기의 재미있는 통합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래가족의 날’에는 의형제가 함께 서로 도우며 가족사진 배지를 차고 오봉산 정상에 오르고, 오봉산 정상에서 형제애



를 키울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여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등반 후에는 식당에서 의형제끼리 점심식사를 통해 정을 더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2. 더하기 공감

체험을 통한 학습의 힘은 강력하다.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관람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어깨동무 학교’ 및 ‘문화콘텐츠 관람 지원’으로 2013년 12월 19일 다문화 극단 샐러드의 뮤지컬 「수크라이」 와 2014년 5월 1일 극단 예터의 연극 「포래 조정자가 된 앤리스」 를 본교 다목적 문화예술관 소래문화회관에서 관람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 학생이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하지만 필리핀 문화를 바탕으로 화합하게 되는 줄거리의 뮤지컬 「수크라이」 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만든 특별한 다문화 극단이 만든 공연이었다. 편견 없이 친구를 사귀며 아름다운 관계 맷음의 소중함 마음속에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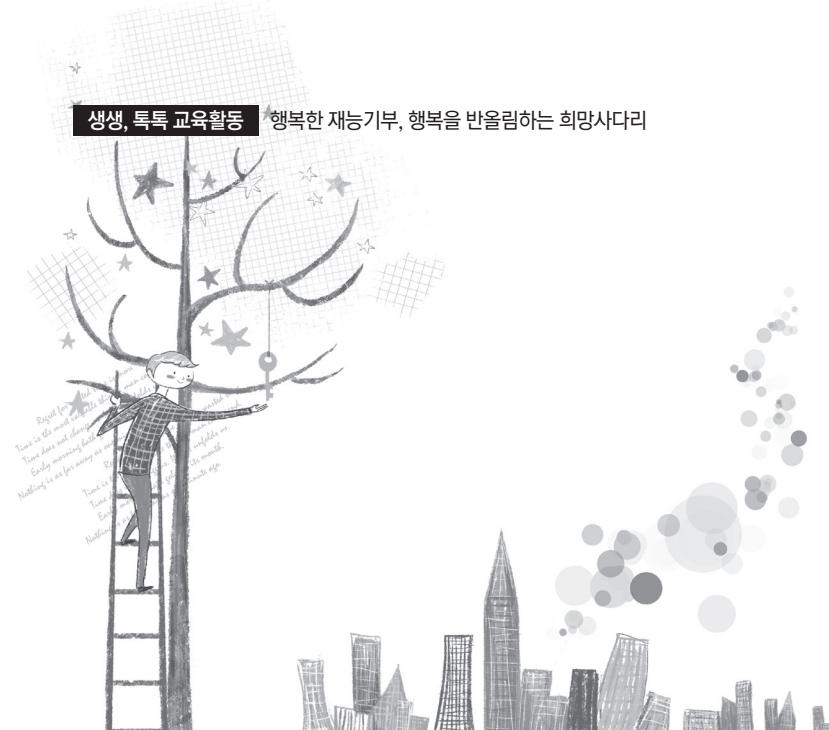
2014년 5월에 관람한 연극 「포래중재자가 된 앤리스」 는 의형제·의자매가 함께 관람하며 어울림과 공감의 행복한 시간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연극은 앤리스의 고민과 여정을 함께 하며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인물인 방관자도 있으며, 방관자가 아닌 포래 중재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앞으로 공감 더하기 문화콘텐츠 관람 활동으로 6월 중 사물놀이 공연이 계획되었다. 사물놀이는 한 가지 악기만으로 이루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팽과리, 장구, 북, 징의 네 악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어울림을 만들어 나가면, 어느 새 보고 있는 사람의 손과 어깨를 들썩여진다. 의형제 학생들이 사물놀이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사물놀이 연주자들처럼 마음을 통하는 울림, 널리 퍼지는 징소리가 우리 학생들 마음도 함께 이어주길 바란다.



3. 빼기 학교 폭력

본 활동을 실시하면서 본교의 쉬는 시간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의형제를 맺은 동생이 있는 학급으로 내려가 동생을 쟁겨주는가 하면, 동생이 반대로 형이나 언니의 교실로 올라와 배시시 웃고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은 의형제를 맺어 편지와 쪽지를 보내며 안부를 전하고, 여러 가지 가족 행사를 통해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더했다. 그리고 의형제와 함께 하는 문화콘텐츠 관람을 통해 서로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더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어울림과 공감의 더하기를 통해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학교에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어깨를 짓누르던 학교폭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니,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진다. ◎



행복한 재능기부,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인천심곡초등학교 교사

정영찬

출발점부터 차별 없는 동등한 교육 권리의 적극적 실행,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재능기부를 통해 지원하여 교육평등을 구현하는 희망사다리를 인천의 교사들이 구현하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인천마전초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발명공작에 대해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하였다. 마전초 인근 학교에서 모인 100여명의 학생들은 2일 동안 강의를 듣기 위해 방학마저 헌납하고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처음 접해 본 스카시톱이나 드릴링 머신, 디스크샌더 등의 장비를 사용하며 자신만의 목재캐릭터 열쇠고리를 만들었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남광현(봉화초/서부초등과학교과연구회장) 교사는 “스스로 공부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과학이나 창의성에 대한 실험도 하고 공작도 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번 재능 기부는 6년째 여름, 겨울방학을 통해 이어지고 있고, 선생님들은 매년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강의를 해 오고 있다.

시작은 과학을 좋아하는 교사 4명이 자신들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쌓은 과학 지식을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평소 교과를 벗어난 다양한 재미난 실험들을 학생들과 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주변



2014년 1월에 마전초등학교에 열린 재능기부 과학 교실에서 하동훈(심곡초) 교사가 학생들과 스카시톱을 활용해서 공작을 하고 있다.

지역 학생들을 모아 “과학 창의 교실”을 무료로 열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받았는데, 수업이 시작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하자고 졸라대는 아이들과 자신이 만든 원구를 들고 뿐듯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다는 교사들. 6년간 지역 언론에도 몇 차례 알려진 이들 교사들은 재능기부가 주변의 어려운 학생들과 자신들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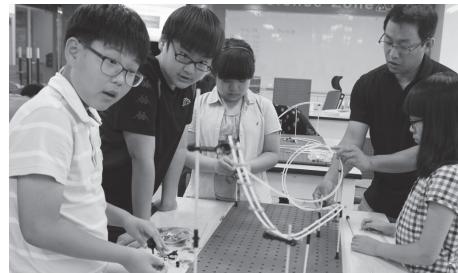
과학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행복한 교육기부

‘사(思) 고치는 교사들’이란 모임의 이름처럼 평범하지 않은 교사재능기부 모임은 교육에 대한 생각과 봉사에 대한 생각을 고쳐서 베풀고 실천하는 교사들이 되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기부는 기부를 낳는다’는 말을 모토로 삼은 이 모임은 2009년 4명의 교사들로 시작해서 교육재능기부의 뜻에 동참의사를 밝히고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늘어 현재는 1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기부에 관심이 있어 참여하였다가 과학의 흥미에 빠진 교사들까지 대부분이 대부분 서부초등과학교과연구회 소속 교사들이다.

특히, 교사들은 강의를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원고료나 강사료, 재료비 등을 받지 않고, 자비를 출연하여 진행하고, 수업 대상은 저소득 층 학생뿐만 아니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도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정재형(가현초) 교사는 “앞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좋아하는 수업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기부사업을 계속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재능기부 강의의 주제는 다양하다. 재활용을 활용한 투석기 장치 만들기와 오르니톱터 만들기를 통해 과학미션을 수행하는 교육, 사이펀의 원리, 목재 캐릭터 열쇠고리, 골드버그 장치, 아카레일 체험하기, PS용지를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소마큐브 만들기, 아크릴을 이용한 사진 액자 만들기(풀라로이드 사진), 손난로 만들기, 종이 오토마타 만들기, 자석팽이 만들기, 다빈치 비행기 만들기, 각종 발명 교육 등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놀이 중심 체험 학습으로 선별하여 매 회 내용을 다르게 하여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다. 교사들은 방학 때 다양한 연수와 강의를 나가지만, 학생들을 위한 재능기부 강의에는 다른 일을 제쳐두고 참여한다는 이들 교사들은 아이들의 행복한 눈빛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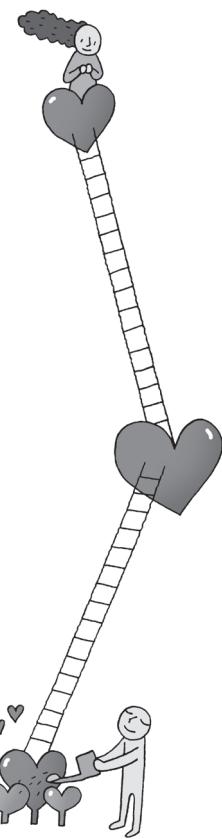
2013년 여름 인천심곡초에서 열린 재능기부 과학교실에서 서분원(창신초)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골드버그 장치를 활용한 과학원리를 체험하고 있다



2013년 여름 양지초에서 열린 재능기부 과학교실에서 이경윤(성지초)교사와 최재하(초은초) 교사가 학생들과 투석기 제작하기 실험을 하고 있다.

피로를 씻을 수 있다고 한다.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발명기계들을 이용하여 과학수업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정말 좋은 기회였다. 제 생각들을 더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 그리는 활동들이 너무 좋았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알려주셔서 더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원리를 여러 가지 장치로 표현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등 다양한 소감을 쏟아냈다.



평등사다리를 놓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교사들

이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펼치고 있는 재능기부의 의미를 물어보았다.

정영찬 : 매회 참여한 학생들은 얼마나 되나요? 왜 이러한 재능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하동훈(인천심곡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 방학마다 이러한 재능기부 과학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500여명입니다. 아이들이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교육사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최진용(인천청일초) 저는 재능기부를 통해 지루하고 어려운 과학이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서 과학과 반갑게 만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과학과 친해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상 속에서 과학의 이해를 높이고 친근감을 더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활동이 될 것입니다.

정영찬 : 교육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적이 있나요?

이종선(인천능내초) 재능기부를 통해 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도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과학자로 미래의 꿈을 꾸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것을 보고 퇴직하는 그날까지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정영찬 : 집안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김찬(인천담방초)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공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교육적 배려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주고,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데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영찬 : 기부를 통한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기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광현(인천봉화초) 교육은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기부는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현직의 교사들이 나눔과 배려로 우리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기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본원(인천창신초) 과학 기부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한명이라도 과학에 흥미를 느껴 과학자가 된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면 그것보다 뿐만 아니라 일이 없습니다. 미래의 과학자를 양성하는데 우리의 재능이 조금이나마 쓰여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동준(인천마전초) 재능기부 강의를 통하여 학생이 과학을 폭넓게 접하고 직접 체험을 통한 성취감과 가능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고 탐구심을 갖게 합니다. 평소 주변에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다니지 않거나 특별한 지도를 받지 않으면서도 과학에 흥미를 느껴 열정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수한 능력을 갖추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이들과 교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인터뷰 내내 학생들에게 재능을 나눠 꿈을 키워주겠다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필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며 고개가 절로 끄덕였다. 이러한 자발적인 재능기부가 6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에서도 놀라웠지만 6년이 지난 지금에도 처음의 그러한 노력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점에서 든든함이 느껴졌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다. 단지 개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와 미래 사회의 모습을 놓고 볼 때도 현재의 교육 수준과 질을 통해 그 사회를 점칠 수 있다. 특히 요즘같이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다.

어린 시절, 어떠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소설가 칼릴 지브란(Kahlil Gibran)은 “교육은 그대의 머리 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해준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재능기부 활동들은 아이들의 다양한 꿈이라는 씨앗들을 자라나게 하는 영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운동의 바람이 보다 확산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주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확산시켜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어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가 되길 응원한다. ◎





삶을 UP! 시키는 스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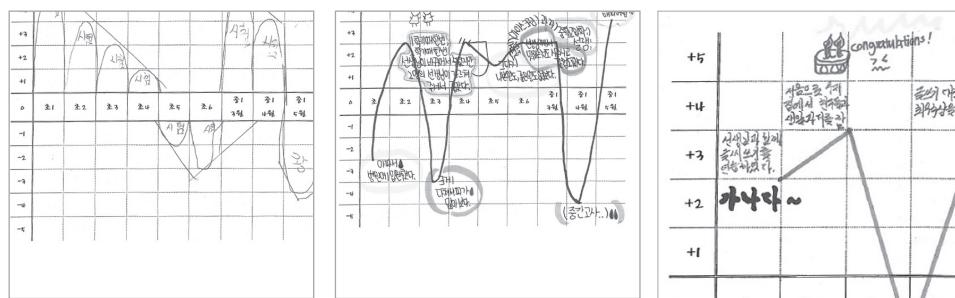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최은정

〈 OFF 〉- 우리의 두려움 : ‘시험’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지만, 결코 피할 수도 즐길 수도 없는 것 중 하나가 ‘시험’이다. 능력이 있건 없건, 준비를 많이 했건 안했건 간에 시험은 거의 모든 이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안겨 준다.

나도 빨간 작대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했고, 밀려 쓴 답안지에 절망(?)하여 온갖 품을 잡고 교정을 걸으며 눈물로 자책했던 적이 있다. 특히 나를 진짜 떨게 했던 시험은 대입고사도 교원 임용고사도 아닌, 고교 음악 시간 가장 시험과 성인이 된 후 치른 운전면허 실기시험이었다. 그 때 내 심장은 정말로 영화 〈마스크〉의 짐 캐리가 미녀를 보았을 때 30cm쯤 튀어나오던 하트 그래픽처럼 쿵쾅거렸다. 아마 나는 지필 평가보다 수행 평가에 약했나 보다. 한눈에 반하는 짜릿한 설렘으로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좋으련만, 시험은 “Oh! No, No, No!”이다.



학생들이 그린 인생의 아리랑 곡선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아리랑 곡선을 그려보라고 하면 곡선이 심연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곳에 어김없이 시험이나 공부가 자리 잡고 있다. 첫 번째 그림을 그린 학생은 공부와는 담을 쌓고 매 수업 시간마다 해맑게 웃으며 부채질을 하거나 장난을 치는 남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아리랑 곡선의 굽이굽이마다 ‘시험’이라고 써 놓았다. 학급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고 모두 파안대소 했으나, 공부를 포기한 그 학생도 시험 성적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행복감이 줄어들고 나름 아픔을 겪다가 해탈(?)한 경지가 된 듯하다.

시험의 목적이 결코 불행이 아닐진대, 왜 이토록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걸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면서 왜 그토록 성적에 목매는 걸까? 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중시하며, 시험을 보고 나면 다 까먹는 걸까? ‘평가’가 진정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ON〉- 성취평가제의 도입

최근 중·고교의 평가제도가 변화되었다. 2012학년도부터 도입된 ‘성취평가제’는 올 2014학년도 중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며 고등학교도 1학년부터 시작되었다.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2011.12.13.)의 일환으로 도입된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라는 평가의 본래적 의미를 강조하는 평가제도로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고, ‘A-B-C-D-E’로 성취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의 선택형 지필 평가 중심, 상대적 서열 중시 풍토에서 벗어나 서술형 평가 및 수행 평가를 내실화하고 학생의 ‘성취’를 중시하는 성취평가제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을 개발하고 내재적 학습동기를 향상시켜 학교 교육 목표 달성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사들의 교실 수업 개선을 촉진하고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할 것이다.

성취평가제가 ‘배움의 즐거움을 더하고(+), 경쟁은 줄이며(-), 역량은 곱하고(×), 행복을 나누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의 전주곡이길 바라지만, 슬그머니 걱정이 마음 한편에 내려앉는다. 이 아름다운 사치연산이 결국 대입이라는 거대한 수를 연산할 수 있을지, 우리의 행복의 잣대는 과연 ‘내 옆의 너, 너, 너’가 아닌 ‘오롯한 나’일 수 있을지……. 아직은 속단할 수가 없고, 나의 권한 밖이기에 일단 나의 교실, 나의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려 본다.



변화된 수업- 듣기·말하기 활동 중심 평가

담당 교과가 국어이므로 평소 언어 능력 신장을 통한 사고력 향상, 감수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학습 활동을 하고 수행 평가를 기획해 왔다. 국어과의 영역 중 읽기, 문학은 아무래도 텍스트에 의존하게 되고 문법은 지식적 측면이 강하다 보니 지필 평가 비중이 크다. 수업 과정 중에 아이들과 즐겁게(나만 즐거운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은 역시 듣기·말하기, 쓰기 영역이다. 채점의 과정이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 하나하나의 삶과 매력을 들여다보며 잠재된 가능성은 엿보는 즐거운 평가이다.

듣기·말하기의 경우 학년의 성취기준에 맞추어 설정된 주제에 대해 보조 자료를 준비시켜 3분 말하기 형식으로 진행한다. 1~2차시 내에 30~40명의 발표를 모두 들으려면 피로도가 높아지고 민첩하게 준비해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약 한 달 동안에 걸쳐 매 수업 시간마다 몇 명씩 발표를 시킨다. 그러면 수업 시간도 덜 지루하고 아이들은 국어 시간을 은근히 기대한다.

희망 순번에 의해 빨리 발표 준비가 되는 학생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일찍 하는 학생들을 우대하면 나름대로 열심히들 해온다. 매 시간 친구들이 하는 것을 재미있게 보고 나서, 학습 의욕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하나 둘씩 자극을 받아 어설프게라도 결국 발표를 한다.

대개의 경우 큰 주제만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소주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자유 주제라 더 갈피를 못 잡다가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 본인이 선택하고 관심 있게 준비한 내용이라 더욱 실감나고 다채롭게 발표한다. 또 누군가가 자신의 발표 내용 중에서 퀴즈를 내오고 상품으로 사탕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의 열광적인 참여 속에 퀴즈 풀이로 발표를 마치면 그 학급은 퀴즈가 유행이 되기도 한다.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리포터 뺨치게 발표를 잘 해 친구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아이도 있고, 평소 수줍음 많고 소극적이라 존재감이 없었는데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아이도 있다. 한편 평소 생활에서는 목소리가 우렁차고 활기가 넘쳤는데 교탁 앞에서는 개미 목소리로 친구들의 시선도 못 맞추고 앵앵대다가 들어가는 아이도 있다.

아무튼 말하기 발표를 들으며 동료상호평가와 자기평가를 하게 하면 대부분은 친구들의 모습에 놀라고 자신의 발표를 아쉬워하며 2학기의 3분 말하기를 기약한다. 그리고 실제로 1년이 지나면 훨씬 능숙하고 발전된 프레젠테이션 모습을 보인다. 수업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고 진도에 쫓겨야 하지만, 그 재미와 효과가 쏠쏠하여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3분 말하기’이다.



듣기·말하기 평가



퀴즈풀이

수필쓰기를 통한 쓰기 평가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이때, 국어과에서의 쓰기 평가는 더욱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쓰기도 여러 가지 갈래와 방법이 있지만, 글쓰기 단계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생성·조직하고 초고를 쓴 후 고쳐쓰기 하는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한다. 쓰기 갈래 중 가장 흥미를 일으키는 것은 수필, 모방시, 이야기 창작하기 등인데, 그 중에서도 수필은 참말 매력 만점이다.

일기 검사가 사생활 침해의 주범 취급을 받는 오늘날 중학교에서 일기 검사는 공식석상에서 사라졌지만, 학급 모둠 일기 쓰기 활동을 해본 교사라면 일기의 매력을 알 것이다. 물론 처음엔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며 ‘나는 오늘’로 시작해 ‘참 재미있었다. 앞으로 ~~해야겠다.’로 끝나는 틀에 박힌 글을 쓰지만, 글쓰기도 연습과 훈련에 의해 양과 질이 쑥쑥 커나 가므로 점점 진실이 담긴 재치 있는 글을 선보인다.



수필 쓰기 평가 시에도 “쓸 게 없어요.”라는 투정조차 꾹꾹 눌러쓴 글자 하나하나에 묻히고 나면 ‘feel’ 받은 글이 날개를 달고 아이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무지개빛 스펙트럼으로 펼친다. 집에 가져간 수행평가지를 혼자 키득대며, 눈물 젖끔대며 읽다 보면 수업 시간에 내 속을 박박 긁어 놓던 녀석도 기특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평가가 끝나고 나면 수업 시간을 한 시간 정도 투자하여 그 학급 친구들의 수필을 거의 모두 낭독해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집중하여 들으면서 서로 웃으며 놀리거나 감동 받기도 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해 한다.

이런 일상생활과 감정이 묻어나는 글 이외에 좀 더 객관적,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도 병행하지만 아직 덜 여문 생각들이 모두 고만고만하고 건조해서 수험자나 평가자 모두 하품을 몇 번 하게 된다. 아이들이 논리·논술의 재미 속으로 풍덩 하려면 몇 년 내공을 쌓아야 하리라. 그런데 스마트폰과 게임에 밀려 독서가 연중행사처럼 되어 버린 현실에서 내공을 쌓게 할 방법이 고민이다.

〈UP!〉 평가 전문가 되기!

최근 교육계에 회자되는 다양한 수업 방법이나 평가 관점들은 ‘미래의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학생 활동 중심 수업, 협동 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의 토론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배움의 공동체 수업, 거꾸로 교실, 서술형·논술형 평가, 과정 중심 수행 평가, 동료 상호 평가, 자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정의적 능력 평가, 상시 평가 등등.

특히 요즘은 교사가 수업의 달인뿐만 아니라 평가의 전문가가 되길 요구하고 있다. 평가의 형식과 내용이 더욱 치밀하고 객관적 이면서도 교육 목표 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평가가 공정하게 느껴지는지, 실제적·발전적 경험을 제공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결과가 중요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과 삶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스위치로 작동할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인생은 평가의 연속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가의 연속이다.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변의 시선에 의해 끊임없이 평가 받고 재단되고 있다. 나 또한 누군가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며, ‘A~F’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그 평가 점수가 인생을 더 고달프게 만들지라도, 때때로는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채찍질하고 담금질 해준다.(물론 너무 아프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 내어 스스로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때 성장이 보장된다.

우리 아이들이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최선은 다하되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외부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기 내면의 엄정한 평가에 귀 기울이면 좋겠다. 아차, 미안하다, 애들아! 어른들도 못 하는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우리 어른들이 먼저 평가 시행에는 철저하되, 그 결과에는 유연하게 대처해야겠구나! ◎





생각의 숲! 사랑의 울타리!



청라유치원 원장
윤석가

유치원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

3월에 발령 나서 온 청라유치원은 청라지역의 신도시 아파트 숲에 있는 1년 밖에 안 된 12학급 규모의 16명 장애 유아와 통합 수업하는 245명의 유아들이 다니는 새로 생긴 유치원이었다.

신도시의 아파트 촌에 있는 교육기관들은 대동소이하게 학부모님들의 많은 요구로 민원이 끊임 없는 곳이라 하는데, 우리 유치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학부모들도 부모 노릇한지 이제 3년에서 길면 10년 안팎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터이고 특별히 부모교육을 받지도 않아 자녀 양육에 어려운 점과 힘든 면들이 있긴 하겠지만 요즘의 엄마들은 너무 자신과 자신의 자녀 밖에 모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자녀들을 위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리 깊이 생각하고 교육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론으로는 타인을 배려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습관들이 계는 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산다고 하면 “아하 그래서 예의가 바르구나!” 했었는데 요즘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살고 있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베릇이 없다!”고 한다. 아마도 현대사회에 핵가족으로 현상으로 인해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일 것이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 중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내용의 행동 부적응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 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육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그 아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모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해시키고, 다음으로는 부모를 교육하고, 훈련해서 부모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아

이와의 관계를 바꾸어 나간다.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유아기 때는 학습보다는 인성에 더 비중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있듯이 “세살 벼릇이 여든 간다!”라는 것도 유아기에 올바른 질서교육, 인성교육을 하지 못하면 평생 바른 인격체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 할 수 있는 뇌가 발달 되고 뇌를 사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10여년이 걸리게 된다. 그 뒤에는 발달된 뇌를 사용하여 지식과 습관을 통한 기능을 배우게 되어 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뇌가 발달되는 10년 동안에 인간은 어떠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지 결정이 나게 된다.

그중 유아기는 인간의 중요한 제 발달을 이루기 위한 최적시기이며 결정적 시기이다. 이 시기의 신체적, 사회·심리적, 도덕적, 지적, 언어 발달은 이후의 발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 시기에 제 발달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거나, 발달의 최적 시기를 놓쳤을 경우 후에 교정하거나 보완하기는 매우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인간에게 교육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식교육으로만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유아기 때부터 올바른 인성교육을 배우고 이것을 훈련 시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만 바른 교육과 바른 훈련이 잘 조화를 이루어지면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두뇌가 한 가지씩 만들어 질 것이다

최근 인성교육과 두뇌계발에 대한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과 두뇌교육은 책 한권 잘 읽어서 이론으로 무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어른이 되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인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아무리 지식교육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지식 정보화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간다 해도 올바른 인성교육이 뒷

받침 되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서든 대접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한 인격체를 만드는 것은 올바른 교육기관과 올바른 가정교육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치원 역시 인성교육을 하는 곳이지만 그 교육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평생 사용 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곳은 가정이고, 훈련시켜야 할 사람은 부모이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사람을 만들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훈련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유아기의 인성교육은 중요한 만남과 좋은 모델이 필요한데 좋은 부모님과의 만남,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아 인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일차적 장소가 가정임을 인식하고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유치원에서는 유치원교사가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유아, 교사, 학부모가 어우러진 인성교육의 체계를 세워 교육부에서 발행한 인성교육의 덕목인 협력, 존중, 배려, 나눔, 효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과 속에서 진행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미래형 인성교육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기로 했다.



인성교육을 다지는 첫걸음

우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의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협력과, 배려, 나눔을 실천 하기 위한 공간 구성을 조성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딩동뎅 도레미방’로 음악실을 꾸미고, 작은 사회를 알아보며 자신의 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세모네모 블록놀이방’으로 역할 놀이방을 만들고, 각반 교실에만 있던 도서를 ‘책향기 글향기’ 도서실로 옮겨 가고 싶고, 읽고 싶은 공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날 수 있도록 ‘행복 놀이터’란 이름으로 실내 놀이터를 구성하였으며, 야생화만 있던 꽃밭을 나누어 텃밭으로도 조성하여 유아들이 관찰하며 탐색하고, 식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여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어울려 함께 생활하는 것을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안에서 든 영역에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 계획을 세웠다.



생각의 숲 ! 사랑의 울타리

1. 교육과정 속의 인성교육

유치원 교육과정 1년 40주의 생활주제 전반에 걸쳐 다음 덕목으로 지도 내용을 계획하였고 유치원의 모든 행사를 유아가 주도된 유아중심의 행사로 추진한다.

- 배려 : 배려는 타인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감하는 마음과 태도를 나타내며 친구, 가족, 이웃에 대한 공감, 동·식물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지도한다.

- 존중 : 존중이란 사람이나 사물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존재만으로 존중할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가치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인간이 스스로에게 갖추어야 할 자기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타인과 모든 사람들의 권리나 그 존엄성에 대한 존중, 사람과 밀접한 관계 속에 존재하는 환경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 협력 : 두 명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적 책임을 다하고 서로 조언 및 조력을 주고받는 협력은 긍정적 상호 의존성, 개인적 책임감, 집단 협력 과정 등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 나눔 : 나눔은 자기 스스로 우러난 마음에서 남을 돋기 위해서 하는 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며 나눔의 의미와 필요성, 나눔의 대상, 나눔의 실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질서 : 질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기초질서, 법질서, 사회질서를 중심으로 지도한다.
- 효 : 자식으로서 인간된 도리를 충실히 하는 효는 부모, 조부모, 지역사회 어른에 대한 효를 중심으로 지도한다.

2. 유아들을 위한 인성교육

» 첫 번째 활동 : 동화를 통한 인성조회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는 원장과 원감이 번갈아가며 인성조회를 실시하되 훈화 대신 구연 동화를 유아들에게 들려주었다. 항상 교사들과 수업하며 듣던 것과 달리 나이 든 원장과, 원감들이 들려주는 동화는 유아들에게 색다르게 느껴지는가 보다. 늘 넋을 놓고 듣는다. 듣는 모습이 하도 예뻐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려둔다. 학

부모들도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화면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배려다.

» 두 번째 활동 : 생각의 숲! 책은 내친구

유치원과 가정에서 매일 책을 교사와 부모가 읽어주도록 하며 가정에서는 부모가 유아에게 책을 읽어준 것을 유아가 확인을 해주는 활동이다. 책에 흥미를 느끼고, 부모가 책 읽어 주는 것을 듣게 되어 어릴 때의 소중한 추억을 갖게 하고, 책을 읽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 하며, 책의 내용으로 얻어지는 지혜를 갖게 하고자 실시하였다.

책을 매일 읽어 주어야 하는 부모들은 처음에는 귀찮아하고 번거로워 하는 면이 있었지만 유치원의 의도를 알고 함께 하며 좋은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느끼고 있다.

더불어 어릴 때 책을 읽어 주었던 추억을 간직할 자녀에 대하여 부모들도 흐뭇해 하고, 매일 책을 읽어 주는 부모를 갖게 된 유아들의 반응도 정말 좋다. 책 읽어 주는 활동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등원시간 격차가 너무 심해 일찍 오는 유아와 늦게 오는 유아의 등원시간이 2시간 차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침 9시가 되면 교사가 동화책을 읽어 준다. 물론 늦게 오는 유아는 동화를 못 듣게 된다. 그랬더니 유아들이 점점 일찍 등원하기 시작했다. 가정에서도 유치원에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화를 들려주어 유아들의 감성과 인성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가정에서 책을 읽어 준 것은 매일 기록장에 기록하고 주별로 유치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게 하고 있다. 연말에는 다독유아에게 시상을 할 계획이다.

» 세 번째 활동 : 사랑의 울타리 우리유치원!

매월 인천사랑의 날, 유치원 사랑의 날에 원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내 고장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내가 다니는 유치원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자 매월 1일은 인천사랑의 날, 15일은 유치원 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는 각 반별 매월 특색 있는 활동을 선정하여 활동한다.

또한 매월 4주는 장애이해 교육의 날로 정하여 장애유아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고자 신체 장애 체험 활동을 하고, 현재 우리유치원의 장애유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하고 있다.

의외로 유아들은 장애 유아 돌보는 일에 서슴지 않고 자원한다. 잘 걷지 못하는 유아를 손잡아 주고, 작은 근육이 발달하지 못한 친구의 신발을 신겨 주고, 무언가 해냈다고 생각이 되는 장애친구에게는 박수를 쳐주어 격려해 주는 일을 만3세, 만4세, 만5세 유아들이 앞장서서 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그래서 인천사랑, 유치원사랑, 또 친구들을 사랑하는 일을 유아들은 하나씩 터득해 가고 있다. 유치원 생일이 있는 10월(개원기념일)에는 이들에 대한 시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네 번째 활동 : 녹색 키움이

실천 중심의 녹색성장 교육을 유치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고 있다. 야생화만 있던 기존의 꽃밭을 텃밭으로 분할하여 연령별 재배물로 상추, 쑥갓, 오이, 팔기, 가지, 방울토마토, 땅콩을 기르고, 공간이 부족하여 따로 흙을 담아 고구마를 심어 키우고 있다. 커다란 화

분을 이용하여 논에 있는 모와, 부들, 개구리밥 등, 수초를 기르고 있으며 실내에 큰 어항을 두어 민물가재, 옐대어, 이구아나, 개미, 고슴도치 등의 동물을 키워 환경 보전에 관한 의식을 일깨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유아로 성장하도록 돋고 있다.

유치원 텃밭과 교실에서 관찰하는 재배물들을 통해 원내 동물과 물고기 키우기로 유아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과 이야기하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도록 한다.



» 다섯 번째 활동 : 행사의 주인공은 나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간 모든 행사는 유아가 주인공이 되어 유아들이 함께 행사의 방법과 행사의 내용 등을 선택하도록 하여 유아가 주도된 행사가 되도록 한다.

우리유치원의 교육과정 주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행사는 유아들과 함께 내용과 방법을 협의하여 하며, 수업 중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소외되는 유아가 없도록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 학부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진행되어 유아들이 몸소 행사의 의미를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한다.



3. 교사들을 위한 인성교육

» 첫 번째 활동 : 우린 모두 네가 좋아

매월 1회 칭찬해 주고 싶은 동료교사의 장점과 칭찬을 작성하여 그 동료교사의 장점을 이야기 나누면서 남을 칭찬해 주는 즐거움과 칭찬받는 행복함을 느끼는 활동이다.

작은 행동이나 모습을 칭찬하는 활동인데, 칭찬판에 매월 칭찬 교사를 추천하고 칭찬 내용을 게시한다. 이 또한 10월 개원기념일에 1년간 칭찬을 많이 받은 교사에게는 원장이 포상금과 시상으로 격려하려고 한다.

» 두 번째 활동 : 행복한 마음 나누기

교직원 상호간의 취미, 특기신장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교직원간의 인화, 협력,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친목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활기찬 교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월 1회 마지막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소수 인원만을 유치원에 남기고 교사들과 행정직원들 모두 참여하여 전시관, 영화관람, 연극관람 등 문화체험 시간을 갖고 이 기회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원들 모두 바쁜 하루 일과 속에서 서로에 대해 말해 볼 기회가 적은 대집단 속에서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며 동료로서의 동질감을 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 세 번째 활동 : 나의 마니또

매주 월요일 아침 추첨을 통해 선정된 나의 마니또 대상에게 일주일 동안 비밀로 마니또가 되어준다. 마니또의 역할은 대상이 된 동료교사에게 남모르게 일주일간 챙겨주고 배려해 주는 활동으로 일주일 후 상대방에게 자신이 마니또임을 알려서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전해 준다. 연말에 마니또 활동의 평가로 가장 훌륭한 마니또를 선정하여 칭찬한다.

네 번째 활동 : 유아들을 위한 특별한 활동

교사 모두가 특별한 날 유아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하여 선생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유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도록 하였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교사들 12명 전부가 유아들이 이해를 잘하는 동화로 “커다란 무”를 선정하여 동화를 각색하고 유치원 실정에 맞게 설정하여 동극을 유아들에게 보여주었다. 유아들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극에 맞는 의상도 준비하여 공연하였더니 유아들의 반응도 좋았고, 담임교사가 나오는 동극이라 더욱 흥미 있어 하였다.

유아들을 위하여 실시하였던 동극이었지만 교사들끼리 모여 연습해 보는 시간으로 친밀감을 갖게 되었고, 교사들 스스로가 더 흥미 있고 재미있어 하였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보자는 의견으로 특별한 날을 지정하여 다양한 활동으로 유아들에게 교사들이 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4. 학부모들을 위한 인성교육

» 첫 번째 활동 : 모든 활동 알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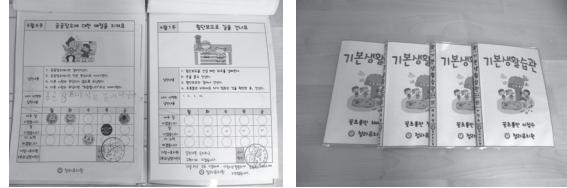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나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가정에 안내하여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방문하거나, 상담 및 전화하지 않아도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이해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와 연령별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건강과 안전’이라는 교육주제 따라 유치원 자체 월드컵 경기를 실시하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고, 활동을 소개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즐겁게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실시한 후 유아들과 평가한 내용을 매번 가정통신문과 사진을 첨부하여 다시 가정에 안내한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가정에서도 알수 있고, 자녀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소재가 있어 좋아한다.

» 두 번째 활동 : 기본생활습관 지킴이



매주 주제에 맞는 기본생활습관 턱목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며 생활전반에 걸쳐 예절, 질서, 청결, 절제 생활이 내면화 될수 있도록 한다.

매주 월요일에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가정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일주일 동안 자신이 정하여 활동한 것을 유치원으로 가져와 유아들과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매주 주간교육계획안에 한주의 기본생활습관 내용을 기재하여 학부모들에게도 안내한다.

» 세 번째 활동 : 가족지원 보듬이

자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도움으로써 부모의 올바른 역할을 인식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도록 돋는다.

‘가족 간의 놀이 활동’, ‘올바른 자녀의 양육’, ‘자녀의 훈육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주 1회 자녀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한다.

또 월 1회 부모 상담, 학부모 연수, 학부모 워크샵, 안내문, SNS 등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수업을 통한 유치원 활동 공개로 유치원의 교육을 이해하고 자녀의 바른 양육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담소를 나눌 장소로 유치원 회의실 대여를 원하여, 격월로 유치원 회의실을 제공하여 학부모들 간의 자유로운 정보교류 및 담소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인성교육으로 기대되는 변화

유치원은 점점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창의적인 인성교육 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의 생각이 자라고,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하게 되어 행복하고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다.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분위기의 교실 운영으로 교사들도 행복한 환경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유아들을 대하고 생활하며, 유아들도 행복해하고 더불어 가정의 학부모도 행복해하고 있다. 3월 초 들끓던 민원도 점점 사라졌다.

가정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배려와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능력이 배양되는 교육에 함께하여 가정과 유치원의 공동 인성교육으로 유아들이 바른 품성을 가진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 유치원은 유아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로 더욱 안착될 것이며 학부모에게 신뢰 받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

» 네 번째 활동 : 행복한 밥상머리

밥상머리 교육이란 가족 모두 모인 식사 시간에 가정의 일들을 이야기 나누고, 즐거웠던 일, 재미있었던 일, 혹여 힘들거나 어려웠던 일들 또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식사를 위한 마음가짐부터 몸가짐, 손가짐, 수저 사용법, 밥과 국을 먹는 방법, 반찬을 먹는 방법, 음식을 입에 넣어서 씹는 방법 등 식사와 관련된 모든 기본교육이 밥상을 마주하며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으로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가족의 날’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하되 가족끼리 협의한 날을 정하여 실시한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주별 밥상머리 교육내용에 따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제작, 발송하여 지원하고 있다.

» 다섯 번째 활동 : 차곡차곡 효도 통장

매주 가정과의 연계활동으로 효의 실천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효도통장을 배부하여 효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게 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게 하고 있다. 유아의 흥미와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효도통장은 금요일에 배부하여 유아가 한 효도 내용을 부모님이 기록하여 매주 월요일 유치원으로 보내준다. 매주 월요일 교사가 직접 확인하고 유아들 앞에서 효도 내용을 발표하여 칭찬과 격려로 자긍심과 자존감을 키워주고 있다.



장애인, 아기맘,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어르신을 위한 무료택배 대출서비스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 사서

박 경 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공공도서관은 모든 계층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문화공간이다. 그렇기에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최근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공공도서관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열린 서비스를 모색하게 되었고 장애인 등 신체적, 사회적 제한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지식 정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천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접근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독서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모색한 결과, 2006년부터 장애인 대상의 ‘무료택배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무료 택배 서비스 추진 확대 과정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대두되었고 아기 엄마들의 독서환경개선을 위하여 우리도서관도 2011년 ‘아기맘’(임신 6개월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기맘) 무료택배 대출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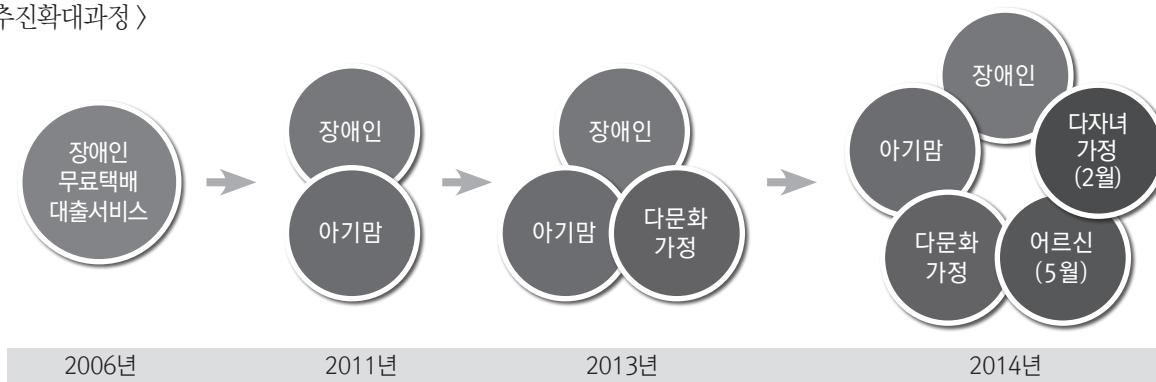
장애인으로 한정되었던 무료택배 대출서비스 대상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일시적 정보취약계층까지 확대하여 임산부 및 아기엄마들이 집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연대하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2013년에는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자료를 확충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돋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서 무료택배 대출서비스의 대상을 다문화가정에 확대하여 언어, 문화적 제한으로 도서관이용이 불편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2014년 무료택배 대출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2월부터 정부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에 발맞추어 육아로 인하여 도서관방문이 어려운 다자녀가정(셋 이상의 다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아기맘’의 대상도 임신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크게 확대하였다. 5월에는 신체적 노화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75세 이상의 어르신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경로우대서비스의 기반을 갖추었다. 지금도 각급기관 및 단체와 연계,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계층이 무료택배 대출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추진확대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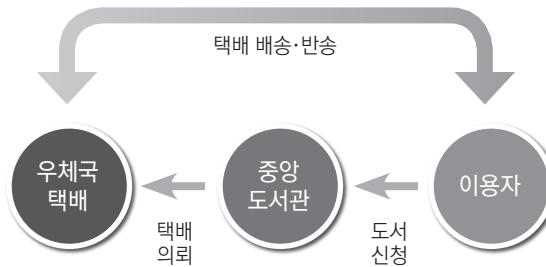


프로그램 내용

무료택배 대출서비스의 회원가입은 중앙도서관 관외대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장애인 복지카드나 산모수첩, 의료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메일, 우편으로 접수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읽고 싶은 책을 10권까지 신청하면 도서관에서는 매일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도서를 포장하여 이용자의 집으로 배달해준다. 대출기간은 택배소요기간을 포함하여 22일간이며 택배 박스에는 신청도서 외 이달의 추천도서목록, 신간목록 등 각종 독서정보, 도서관소식지를 동봉하고 SMS문자서비스로 대출내역과 반납정보를 알려주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택배료는 도서관이 전액 부담하며 택배회사와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택배료를 절감하고 있다.

〈추진체계〉



무료택배 대출서비스의 성과

최근 3년간 무료택배 대출서비스의 이용실적을 보면 2011년 957명, 2012년 1,356명 2013년 1,929명, 2014년 4월 현재 783명이 이용하여 매년 높은 이용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11월에 실시한 무료택배 대출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92%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무료택배 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임신 9개월의 아기맘 이○○ 회원은 “집에서 신청하고 집에서 받아보고 집에서 반납할 수 있으니까 매우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라며 임신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이 불편했는데 무료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육아관련정보 등의 많은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며 더 많은 임산부들이 택배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무료택배 대출서비스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임신, 출산, 육아, 문화적 장벽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차별화된 서비스로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의 모델을 제시했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으로 계층 간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과 소외계층의 독서문화증진에 기여하였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도서관의 서비스만족도 향상 및 도서관 이미지 제고와 도서관 이용 생활화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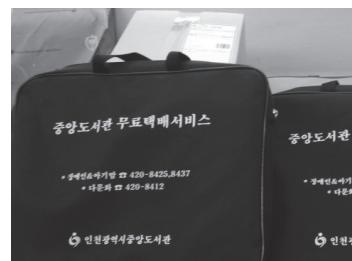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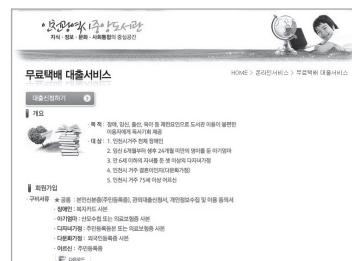
넷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지향’하는 ‘정부3.0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서비스로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부 3.0 실행계획의 선도과제’로 선정되었다.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 개발 노력

매년 무료택배 대출서비스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아기엄마,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리고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앞으로도 중앙도서관은 사회의 변화요구에 빠르게 부응하는 독서문화 선두주자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독서문화공간이 되도록 지역사회 독서문화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부응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참여와
어울림

참여와 어울림

194 시 - '유월' 外

|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최기석

196 미술활동을 통한 소통으로 함께 행복해지기

| 인천내부초등학교 교사 최재향

199 교육자가 가야할 길

| 백령중·고등학교 교장 윤현상

204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 인천원당고등학교 교사 김주호

206 제12회 인·예·전

| 김혜선, 박정기, 김준식, 이군우, 이철희, 이승수, 이정열, 조영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최기석

〈저자소개〉

지필문학 시 부문 신인문학상 수상
시집 『초록색 실루엣 이야기』 발간(2014)

유월

눈곱 떠어낼 시간도 없이 바빠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풀앗이로 겨우 겨우 심어둔 논에
제법 자리를 튼 실이 자리 잡은 모 논
논의 마름 개구리 풀들이 왕성히 자라
마파람에 작은 추임새 율동을 반복하는 논물

장마 얼마 남지 않아 잔뜩 찌푸린 하늘
마파람 불어 모들이 도리도리를 할 때
새벽부터 한나절 다 되도록
꽥~꽥~꽥 목청을 돋우어 경쟁 하듯
신 바리톤 개구리 노래에 귀가 멍멍해져
논에 나온 농부 화급히 찔레꽃 언덕으로 발길을 돌린다.

찔레꽃 되어

향기 나는 오월의 꽃바람사이로
해맑고 순박하게
포근히 웃어주는 산골 새댁처럼

연하고 청순한 마디를 맺고
하양 접시에 노란음식 담아
새하얀 한복 입고 낭군 상을 차렸다.

집 떠난 임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가련 청초한 여인네처럼
보리 익어가는 언덕배기에 찔레꽃 되어

굴포천의 4색

봄에는 물안개. 아지랑이
민들레. 옥잠화. 개나리와
기쁨을 나누고

여름에는 매미. 잠자리
방학에 곤충 채집 온 어린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을에는 풀벌레. 귀뚜라미
별개미취. 갈대. 구절초. 국화와
슬픔을 나누고

겨울에는 높 찬 북서풍
서리. 하얀 눈. 생명을 다한 풀들과
이별을 나눈다.

미술활동을 통한 소통으로 함께 행복해지기



인천부내초등학교 교사

최재향

상처받은 마음 헤아려주기

때마침 불어오는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아들과 함께 하는 산책이 한없이 평온하고 감사하다. 다섯 살 꼬맹이가 언제 이렇게 자라서 엄마 고민을 함께 나누며 말동무를 해주고 있는지 감회가 새롭다.

꽤 오래 전의 일이다. 당시 주말부부였던 나는 연년생 남매를 둔 엄마로 직장과 집을 오가며 늘 동동거렸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한겨울 어느 퇴근길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을 돌봐 주시는 아주머니 맥에 들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작은 아이는 업고 큰 아이는 걷게 하여 집으로 왔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막 들어가려는 순간 큰 아이가 큰 소리로 울면서 동생을 현관문 밖으로 밀쳐 냈다. 동생을 밖에 세워 둔 채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평소 누구보다도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아이였기에 나는 무척 당황했지만, 이내 다섯 살 아이의 마음이 아프게 전해져왔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겨우 한 살 차이인데 나도 모르게 오빠 노릇을 하라고 등을 떠밀지는 않았는지……. 매번 동생에게 장난감도 양보하고 엄마, 아빠의 손길도 의젓하게 양보했는데 오늘은 걸어오는 내내 많이 서러웠나 보다. 울고 있는 큰 아이를 안아 옮려 날도 추운데 동생 때문에 업히지도 못하고 걸어온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장난감도 양보하고 동생 돌보느라 애쓴 마음도 알아주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지났을까? 참으로 고맙게도 아이는 제 손으로 문을 열고 동생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 아이가 어느새 20대로 훌쩍 자라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산책하고 있다.



공감과 수용

상담과 생활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공감과 수용’일 것이다. 공감은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조건적 존중, 진정성과 더불어 라포(바람직한 상담관계)의 형성에 기여하는 핵심기제이다. 로저스는 이를 상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꼽았으며, 박성희(2007)는 대화하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짚어 내는 일, 상대방의 엉뚱한 논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 그리고 그 논리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공감적 이해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하였다. 수용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존중함으로써 상대방이 진정한 자아회복(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는 것)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의미한다.

공감과 수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교사라면 누구나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어떻게 잘 실천하느냐는 여전히 핵심 문제이다. 오늘날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너무나 폭넓고 다양하다. 교육자, 실천가, 학생 상담가, 학부모 상담가, 학교 행정업무 처리자 등 무수히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 속에서 교사들이 지치지(번-아웃) 않고 학생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행복한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술치료’ 활동을 활용할 것을 제안해본다.

미술 치료 활동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Ulman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는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 기법 등과 같은 미술활동을 통하여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술치료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치료에서의 미술(Art in Therapy)’, ‘치료로서의 미술(Art as Therapy)’, 그리고 ‘통합적 입장’이다.

‘치료에서의 미술(Art in Therapy)’은 심리치료의 과정에서 미술을 매개체로 이용하는 입장이다. 언어적 표현보다는 검열기능이 약한 그림으로 무의식을 투사하게 하여 치료과정을 촉진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다. ‘치료로서의 미술(Art as Therapy)’은 미술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파괴적, 반사회적 에너지를 분출함으로써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전환시키려는 입장이다. 즉, 미술치료는 미술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와 통합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통합적 입장’에서는 미술치료는 치료적 측면과 창조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의 해석에는 주관적 인상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인상주의적 해석’과 그림의 크기, 선의 질 등 구조적 요소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구조적 해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아이의 심리를 그가 그린 몇 장의 그림 또는 미술작품으로 무리하게 해석 하려다보면 정작 아이의 어려움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문제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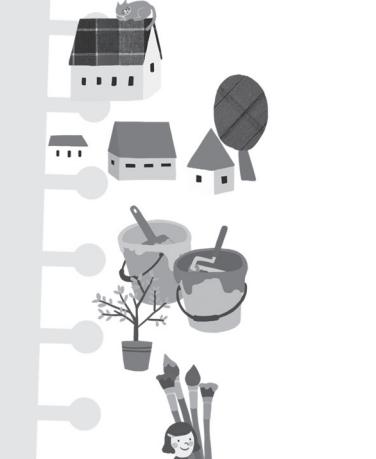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아이의 그림이나 미술작품의 해석에 치중하기보다, 미술작품 활동을 통해 아이가 하려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아이가 내면의 욕구를 안전하게 분출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미술표현활동 자체가 치료적 의미를 가져 아이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얼마 전 아이들 여섯 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활동을 통한 집단 상담을 약 두 달 간 진행했던 적이 있다. 마지막 집단 상담을 마치고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활동 초기에서는 소극적이거나 경직된 반응을 보였던 아이들이 그 날은 내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다른 아이와 재료를 나누어 쓰지 않거나 공격적인 언어사용으로 친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준비물을 빌려주고 서로의 작품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또 교사와 친구들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고민거리와 관심사를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얘기하였다. 다른 학생들 또한 주의 깊게 듣고 서로에게 질문도 하며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주게 되었다. 몇몇 아이들은 언제 이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무 때나 우리 교실에 와서 작품을 만들며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를 물으며 아쉬워했다. 부모의 관심과 애정에 목말라하며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 친구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진우(가명)는 함께 하는 동안 특히 마음이 많이 갔던 아이었다. 그 아이는 마지막 상담(미술치료활동)날, 엄마가 자신을 무척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수줍게 말하곤 이내 눈물을 털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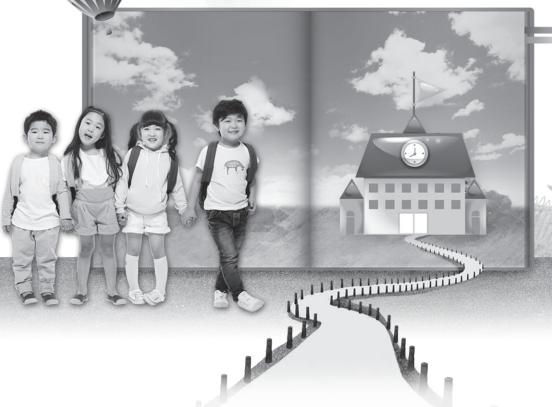


미술치료활동은 언어적인 표현력이 부족하여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남과 소통하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유용한 활동이다. 여러 연구결과는 미술치료 활동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주의산만과 충동적 과잉행동을 감소시켜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회복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미술활동을 진행하는 사이에 점차 분노가 감소되고 아이 자신이 스스로 치유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관심과 사랑

아이들은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속에서 몸과 마음이 자라고 치유 받으며 성장한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하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주변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때 아이들도 교사도 모두 행복해지지 않을까. ◎

교육자가 가야할 길



백령중·고등학교 교장
윤현상

계절의 여왕답게 온 산하가 연초록 수채화를 연출하고 초록빛 평화의 향연 속에 약자지껄 웃고 떠들며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해맑은 그들의 모습이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이 사실임을 실감하게 한다. 저렇게 구김살 없이 뛰노는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만큼은 행복감과 자존감으로 넘치고 그들이 꿈꾸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지금 이곳이 아닐까 상상하곤 한다. 저 푸른 꿈나무들이 튼실하게 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우리들의 뜻이련만 한편으론 과연 내가 지금껏 그런 학교, 그런 세상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었을까 하는 회한이 들기도 한다.

교단에 처음 섰을 때의 설렘과 교육적 열정이 아직도 가슴 한 쪽에 따스한 온기로 남아있는데 36년간 쏟았던 교정을 곧 떠나게 된다. 아직도 어떻게 하면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반듯하고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 아닐까. 교육이 위기라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도대체가 위기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어깨가 무거워진다. 세계적으로 대학진학률 1위, OECD 국가 중 PISA 성적 수학, 과학 2위 이내, 오바마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배우라고 하는 한국교육, 일견 자부심을 갖게도 해주는 찬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도 학생 자살률 1위, 학생 행복은 꼴찌, 학교생활 만족도 꼴찌의 성적표를 보면서 지속가능한 행복교육을 위한 최상의 해답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본다.

여전히 교직은 성직

‘교사는 있되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되 제자는 없다.’라는 말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음은 오늘날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슬픈 교사의 자화상을 반증하고 있음이 아니겠는가. ‘스승의 그림자는 넓지 않는다.’ 라거나 ‘군사부일체’라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도 교사는 이 사회의 사표(師表)라는 말에 가슴 진한 향수를 느끼며 교직은 로만 칼라(Roman collar-가톨릭 사제의 옷)와 하얀 캡만 쓰지 않았을 뿐 여전히 성직이어야 함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교사의 역할이 한 인간의 총체적 인격을 형성시키고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고 누적된 경험과 학습에 의한 능력개발을 통해서 이 사회와 국가, 나아가 전 인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쉽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와 사이버 공간이 발달해 있다 해도, 면대면의 학습 과정이 주는 인간미 나는 교육효과를 대체할 수는 없다. 지식과 정보의 습득과 응용을 위한 과정에서 매개되어야 할 필수 요소인 사랑의 숨결과 영혼이 생략된 배움은 생명력 없는 학습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하위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의 심화는 곧 교육 수준으로 이어져 교육이 계층상승을 위한 사다리 기능을 상실하고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가 갈수록 단단해져가는 현 상황에서 하위계층의 성장 잠재력 결핍현상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이며 교사의 세심한 손길뿐임을 외로운 섬 학교에서 더 절감하고 있다.

사교육의 팽창이 공교육 부실의 반증이기도 하나 누적된 결손을 보수해 평균수준으로 회귀시켜줄 수 있는 곳도 학교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도 교사이기 때문이다. 교직 3년차인 김 교사는 평일에도 자발적으로 학급의 부진아들을 모아놓고 밤 10시까지 개인지도를 할 뿐 아니라 주말은 물론 방학까지도 반납하고 미달된 학력을 보충해주고 있다. 방학 때만이라도 육지로 나가 휴식을 취하며 기력을 재충전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 결손상태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차마 나갈 수가 없다 한다. 그러한 스

승의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 아이들의 학력이 두드러지게 향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든 선생님하고 함께 학교에 머무르려고 애쓰는 학생들의 열정에 삶의 보람과 인생의 참 맛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김 교사의 이런 말이 내 교직 초임시절 제자로부터 ‘선생님 때문에 참 행복해요.’라는 영원히 잊지 못하는 감동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지만 ‘집나간 스승 찾습니다.’라는 세간의 풍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직은 성직임을 다짐하며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교문에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사랑합니다.’하고 눈인사를 나누며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줄탁동시(啐啄同時)

낯설고 두려운 바깥 세계를 꿈꾸는 병아리의 외침과 동시에 어미닭의 부리 쪼임의 맞장구가 있어야 병아리가 비로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듯 한 인간이 자신의 달란트를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최적의 환경적 자극이 필수적이다. 하나 이 자극은 시간의 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요소가 전 생애에 걸쳐서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시기가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발달심리학에서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고 하며 이때 반드시 성취시켜야 할 것을 발달과제(developmental learning task)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아동에게 주어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이야 말로 미완의 인간이 완성으로 향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최근 들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체험 중심의 학습은 단순히 학습흥미를 유발하고 이론중심의 학습에서 탈피하여 배움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발달상의 지체와 결손을 예방하여 이상적인 사회생활 적응자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프로이드가 교육의 목적을 ‘기능적으로 사회에 가장 잘 적응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바로 이러한 줄탁동시의 의미를 명시해 주는 말이다.

교육자가 해야 할 불변의 책무는 바른 인성과 실력을 길러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반듯한 사람,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가르침을 받는 많은 학생들 가운데 정작 교사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대상은 지적 정서적 환경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다.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과 바람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박탈당한 문화실조 현상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많은 아이들이 꿈이 없거나 있더라도 막연한 꿈을 꾸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업목표를 명시적 행동목표로 제시해야 수업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듯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도 현재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교장 선생님~!”

“요즘 얼굴표정이 어두워 보여, 은영아 요즘 집에 무슨 일 있니?” 묻자 “아니요.” 하면서도 뭔가 속내를 들킨 듯 하는 표정이기에 교장실로 데려와 토마토 주스 한 병을 주며 이것 먹어봐 하니, 얼굴이 토마토처럼 예뻐지며 “감사합니다.”하고 다소곳이 앉아 주스 반병을 단숨에 들이키며 얼굴이 다소 밝아진다. 소통의 기술 첫 단계가 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먹는 것으로 시작해야 말문이 터진다. 평소 어딜 가든지 학습도구는 챙기지 않아도 손에 빗만은 항상 놓치지 않고 틈만 나면 머리 다듬기에 바쁜 사춘기 여학생이다. 교장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번에 손자 데리고 운동자에 노시는 걸 보니 50대 후반쯤 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중3밖에 안된 녀석이 꽤 살갑게 굳다. 그래 60대 청년 같은 할아버지다. 네? 60대요? 너무하시네요. 우리 아빠가 54세이신데 우리 아빠랑 비슷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 보너스로 백령도산 다시마 젤리 선물이다. 였다. 교장선생님! 저요, 학교는 오고 싶은데 공부는 정말 하기 싫어요. 왜 제가 이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는지, 특히 수학 영어 시간만 되면 머리에 쥐가 나서 돌아버릴 지경이고 하기 싫어서 좀 엎드려 있으면 선생님이 수업태도가 불량하다고 뒤에 가서 손들고 있으라니



친구들한테 쪽팔리기도 하지만 억지로 수업을 끌고 가신 선생님이 밉고 한편으로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되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해요. 1회고사 결과를 부모님이 보시고 그 따위로 공부하면 어떻게 대학엘 가겠느냐며 일찌감치 포기하고 당장 학교 때려치우고 농사나 지으래요. 그래 은영아 네 맘을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들 말고는 없으니 많이 속상하고 힘들겠구나. 근데 넌 커서 뭘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하고 살 건데? 그냥 살 거예요. 지금은 학생이니까 그런대로 지낼 수 있겠지만 만약 졸업 후에도 할 일이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을까? 스마트폰으로 친구들하고 카톡하고 재밌는 게임하면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데 부모님들은 무조건 대학을 가야한다고 그러세요. 대학 못 들어가면 올바른 사람대접도 못 받고 돈도 못 번다고. 선생님들도 오로지 대학진학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양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우리들의 고민이 무엇인가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수업하시고 못하는 우리들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선생님과 부모님에 대한 은영이의 불만이 가슴을 파고든다. 우리는 행복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의 상태’라고 정의하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교육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이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를 어이할까. 은영아! 네가 하고 싶어 하는 미용사도 탤런트들이 하는 멋진 헤어스타일을 할 줄 알아야 재미있지 않을까? 그리려면 학교도 졸업하고 외국도 다녀와야 하니 기본적인 영어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에 수긍을 하고 공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기초 실력을 다져야겠다는 은영이의 말에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꽂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모양이다.

종합 수업연출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서 가장 불만인 사항은 소화하기 어려운 지식을 대량 주입시키는 재미없는 수업방법에 관한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아 외부로부터 비판의 요소가 된지 오래이다. 물론 교사의 변명같이 들리지만 대학입시라는 괴물이 학교현장에서 교사중심의 전통적 수업방법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교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외부 환경의 압력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업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요즘 교실수업 현장은 예전과 크게 달라져 있다. 영상세대에 걸맞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함께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학습자의 주의집중력과 이해력을 높이고 학습효율을 높이게 하는 교육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수업의 도구적 측면뿐이 아니라 학습내용의 구조화,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토론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학습효율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자율성과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수업모델의 개발로 ‘에듀테이너’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수업을 예술로 승화하며, 교사는 예술가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국민적 기대에서 멀어져 있는 교육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모든 교직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큰 숙제이다. 하나같이 우리 교육이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위기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며, 외적인 그 무엇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는 교육문제가 결코 풀릴 수가 없다.

언제나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 전적으로 학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을 비롯해 교육을 직접 실행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지에 달려 있다. 아이들이 잘못되고 있다면 그리 되도록 잘못 가르친 우리들의 무관심이 원인이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들의 정신적인 등불이 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 아니겠는가.

미래 창조자

시대를 초월해서 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는 반듯한 사람을 기르는 일과 또 하나는 꿈을 키워주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일이다. 이제까지의 교육은 입신양명의 세속적 목적을 위한 수단적 지식만을 강조했지, 한 존재의 가치와 관련된 이상 추구 교육은 철저히 도외시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심한 경쟁구도 속에서 생존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기에 교과서적 지식을 잘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사람됨을 가르치는 일보다 우선할 순 없다. 교육이 한 인간의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품성이 바른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학교생활과 수업이 재미가 없고 힘들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가슴에 꿈이 없어서다. 그래서 ‘위대한 인간이기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과 목적이 있기에 인간은 위대해진다.’고 루소는 말했다. 생명력이란 미래를 믿는 힘이고 희망을 날마다 새롭게 만드는 힘의 또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정호승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처럼 교사는 아이들에게 항상 새벽을 두려워 말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강은 육지에서 발원하여 바다로 흐른다고 말할 때 바다에서 육지로 흐른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나라, 물고기는 강이나 호수에서 기른다고 말할 때 사막에서 도 기를 수 있다고 답하는 나라, 과거로의 여행,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 아니라 미래로의 여행 ‘상상’이라고 답하는 젊은이들이 모인 나라, 국토의 크기가 우리나라 충청도 밖에 안 되고 인구는 세계인구의 0.2% 밖에 안 되는 나라 이스라엘,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는 유대인이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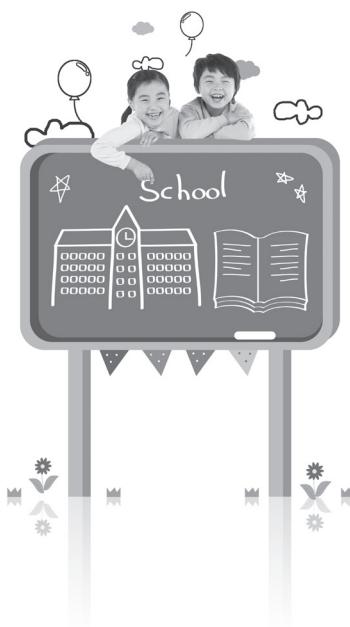


에 달하는 것은 타고난 창의성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열정,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Global Excellence의 Hezki Arieli 회장은 유대인의 성장 원동력은 세 가지 선물 덕택이라고 밝혔다. ‘부족함’, ‘배움’, ‘책’이 그것이다. 이스라엘과 모든 면에서 많이 닮은 우리나라가 세계 주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 비전과 희망을 찾아야 하며 그것은 온전히 우리 교사들의 몫이다.

지금 우리가 교육시키고 있는 아이들은 최소 10년에서 20년 후에나 우리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사람들이다. 따라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자질을 길러서 사회에 배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005년 UNESCO가 제시한 지구촌 교육목표는 상생하는 인간(Living together), 타인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인간(Understanding others), 생태학적 인간(Ecological person)이다. 우리의 교육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념에 맞춰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한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무한경쟁력의 논리를 교육에 적용해서는 미래의 경쟁력을 키워내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무한 경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의 능력에만 집착하게 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공동의 능력을 만들어 내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경쟁보다는 협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미래의 발전이 달려 있다. 학교수업은 소단위의 학습집단을 더 적극적으로 조직 운영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협력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들이 미래 세계의 리더로 커 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진짜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앞으로 반세기 이내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바닥이 날 전망이다. 따라서 우주 속에서 지구별이 영원히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의식이 투철한 사람을 길러야 할 것이다. 벌써 20여 년 전 독일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오후 3시경인데도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전부 귀가하기에 “집에 가니?” 하고 물었더니 지역 스포츠 센터 및 문화회관으로 운동과 다른 취미활동 하러 간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미래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을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우리 교육도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런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수업시작 종이 울려 바쁠텐데도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현관문을 잡고 있는 아이, 자기주도 학습시간 종료 후 귀가하기에도 바쁜 늦은 시간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 유리창 문을 닫아주고 가는 친구들을 위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한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살라’고 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로 가장 중요한 인간은 누구인가? 셋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인간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초임으로 돌아가 교단에 선다면 항상 톨스토이의 세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슴에 담고 눈망울 초롱초롱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다. ◎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인천원당고등학교 교사

김주호

과거를 회구한 한 남자의 비극

'2001년 9월 11일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덮쳤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지막 통화는 미움과 증오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미소와 포옹, 눈물과 환희가 공존하는 히스로우 공항을 배경으로 한 영화 '러브 앤 쿠얼리'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비단 미국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국가적 슬픔이 된 이번 세월호 침사의 학생들 역시 그들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은 슬픔과 아픔이 아닌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않은 생의 소중한 시간, 그 시간 동안 누군가를 생각하며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고귀한 일입니다.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도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데이지라는 여자만을 사랑했던 지고지순한 남자 개츠비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그녀만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그리워했으며, 결국 그로 인해 자신의 목숨까지 잊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사랑과는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사랑을 그렇게 변질시켰던 걸까요?

개츠비의 불행한 선택

개츠비는 젊은 시절 데이지를 만납니다. 그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데이지를 보고 이내 사랑에 빠져버리지만, 볼품없는 자신에 스스로 실망해 그녀를 떠나 전쟁터로 향합니다. 마치 스스로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개츠비는 광기에 휩싸여 전쟁터를 미친 듯이 헤집고 다니고, 그 사이 데 이지는 부유한 톰 뷔캐넌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태생이 비천하고 가난했던 개츠비에게 부유한 집안에서 고생 하나 모르고 자란 데이지는 미지의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손에 넣고 싶은 값진 보석이겠지요. 그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부유해지는 것뿐이라고 개츠비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 방법이 불법적인 일일지라도요. 막대한 부를 축적한 개츠비는 뉴욕 웨스트 에그에 거대한 저택을 짓고 매일 밤 화려한 파티를 개최합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식채권 기술을 배우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온 닉 캐러웨이(소설 속 화자)는 개츠비라는 이름의 이 정체불명의 거부의 초대를 받고 그의 저택으로 향합니다. 낙은 데 이지와 먼 친척 관계로 개츠비는 그런 낙을 통해 데이지와 다시 만나길 원했던 거죠. 데이지가 자신의 저택으로 방문하기 전날 개츠비는 하인들을 닦달하여 청소 및 장식품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들립니다. 그의 웅장한 저택, 화려한 파티, 온갖 값비싸고 멋진 장식품들은 모두 데이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불행한 결혼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던 데이지는 옛 연인 개츠비를 만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정부를 만들고 다니는 바람둥이 남편 톰 뷔캐넌이건만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에는 역시 관대 할 수 없나 봅니다. 쌓이고 쌓였던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폭발하던 날, 데이지는 울음을 터뜨리고 나와서 개츠비의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한 여자를 치어 죽이고 맙니다.

데이지가 실수로 치어 죽인 여자의 이름은 머튼 윌슨, 남편 톰 뷔캐넌의 정부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조지 윌슨은 소심하고 겁 많은 자동차 수리공이지만 자신의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그런 윌슨에게 톰 뷔캐넌은 악마의 속사임을 흘립니다. 그녀를 친 것은 개츠비의 차라고. 그 날 밤 개츠비는 놀란 데이지를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낸 뒤, 그녀의 창가 불이 꺼질 때까지 언제까지고 멀찍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늦은 시각, 온갖 상념에 빠져 수영장 튜브 위에 누워 둑등 떠다니던 개츠비는 분노와 슬픔에 제정신을 잃은 조지 윌슨의 총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개츠비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

실상 우리 모두가 개츠비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을 돈으로 회복하기 위해 아동 바등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 잃어버렸던 우리의 존엄성, 연인, 사랑, 추억 그 모든 것을 과연 돈의 힘만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화려하고 떠들썩했던 파티와는 달리 그의 장례식은 고작 몇 명의 지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조용히 진행됩니다. 심지어 대신 누명을 쓰게 하고 목숨까지 잃게 만들었던 데 이지는 남편과 함께 면 지역으로 떠나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개츠비가 사랑했던 것은 데이지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연인을 지키지 못했던 스스로에 연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요. 그녀를 되찾음으로써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 했었던 온갖 불법적인 일들에 대한 자기보상, 자기기만을 얻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물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오늘을 포기해서 내일을 돈으로 사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힘들어지고 꽉꽉해지는 세상에서 그 나름의 정의(正意)가 있는 말이라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퍼집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오늘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린 날, 젊은 날의 그 순수함과 열정은 그때 그 순간에 빛을 발하기에 더욱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히 웃는 얼굴로 하루하루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오늘을 돈으로 치환해서 살아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오늘을 조금 더 알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물질만능주의를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

제12회 인천예술고등학교
미술과 교사·강사 작품전시회

인·예·전

2014. 6. 13(금) - 6. 19(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녹록치 않은 여건과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소는 재료가 되고 뜨거운 마음은 양념이 되어
멋지고 훌륭한 하나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직 예술과 교육에 대한 신념 하나로 오늘을 만들어 가는
인천예고 교사와 강사들의 열정을 보며 보고 배울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에 웃음이 절로 돋니다.

-인·예·전 초대의 글 중



심상드로잉 45×55cm Oil on canvas



향수 400×400cm 일러스트보드지, 아크릴 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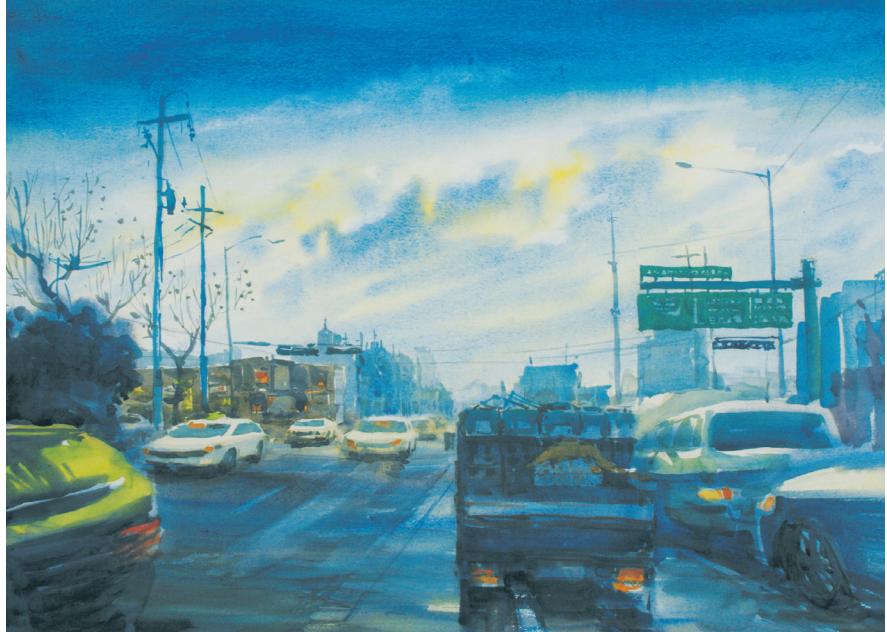
김혜선



박정기



김준식



도시의 아침 2절 Watercolor on paper



이군우



매화-1309 65.1×53.0cm 칠보+야광채색

참여와 어울림

제12회 인·예·전

제12회 인천예술고등학교
미술과 교사·강사 작품전시회

인·예·전

2014. 6. 13(금) - 6. 19(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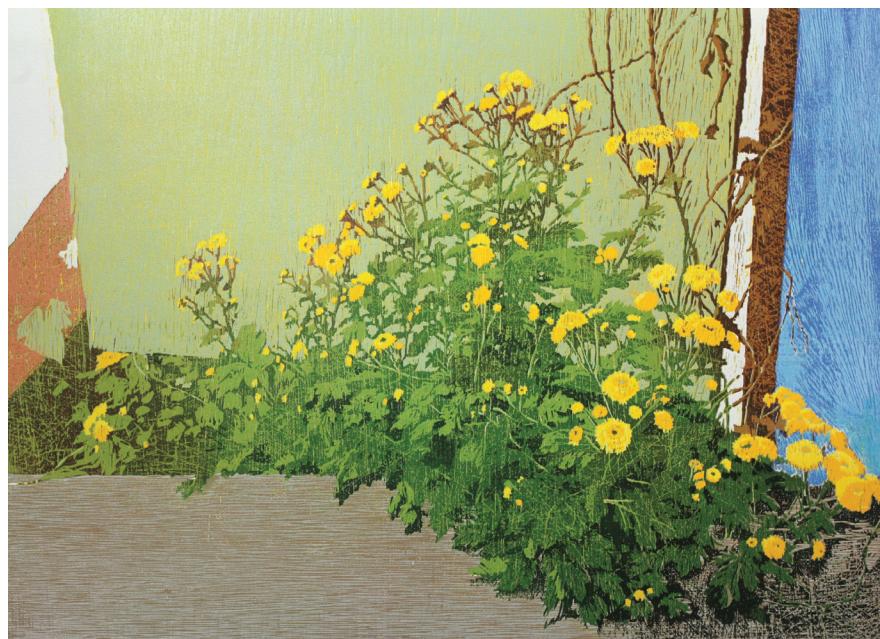
이철희



사춘기 | 90.9×72.7cm Oil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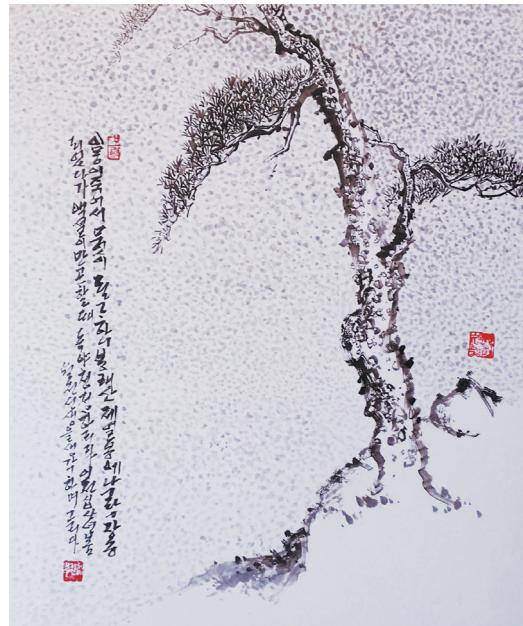
이승수



들꽃1 | 60×70cm Woodc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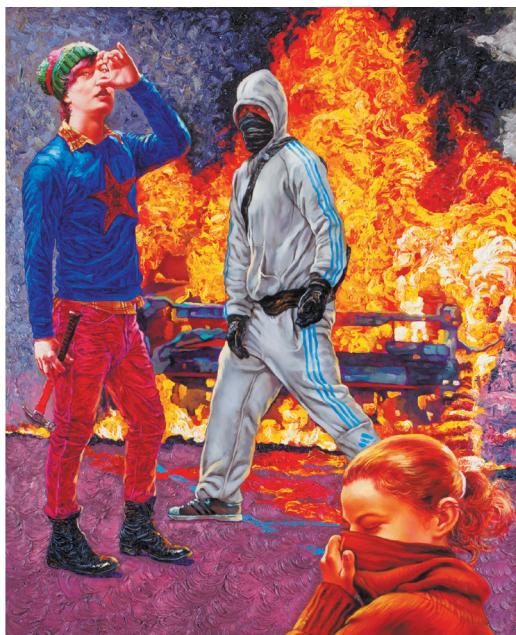
이정열



독아청청(獨也青青) 35×50cm 화선지에 먹



조영진



The Hunter 162.2×130.3cm Oil on canvas



시원한 샘물처럼



영흥초등학교 교사

김명선

교사가 행복한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할 때 행복을 느낀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진다. 그러면 학생들은 언제 행복할까? 학생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고, 진정한 배움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낄 것이다. 심리적, 신체적 위험이나 위협이 없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맞볼 때 행복을 느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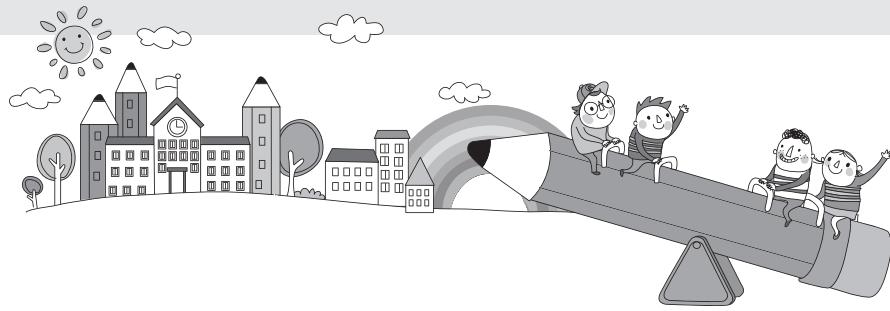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실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교사로서 늘 고민하게 되는 나의 화두다.

교사의 좋은 길잡이- 「인천교육」

「인천교육」 49호를 읽었을 때, 더운 날 가파른 산을 오르다 만난 샘물을 한 모금 마신 것처럼 상쾌하고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다. 행복한 교실을 꿈꾸는 나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교실을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교육」의 기획특집- I (위기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할 것인가?)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생활문화에서는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행복한가’라는 조사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도를 밝혀주고 있다.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감소하며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는 학업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업스트레스로 학교수업이 싫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학생들의 응답을 보면 교사로서 수업 전문성을 길러야 함과 학생들의 참여, 다양한 체험활동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되었다. 학



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생각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고, 실수와 실패도 용납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학교가 된다면 학생들은 학교가 부담스러운 곳이 아니라 언제든 ‘가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이다.

「인천교육」의 기획특집-Ⅱ(학생 저마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활동)에서 특히 ‘꿈과 끼가 움트는 교실의 작은 변화, 행복수업’에서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3년 전부터 추진해온 「대한민국 행복수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선학교에서 실제로 행복을 가르치는 ‘행복수업’소개한다. 입시경쟁, 성적 위주의 학교생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던 학교교육에 ‘행복수업’이라는 참신한 수업을 시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마음이 동하고 흐뭇했다. 행복을 직접 가르치며 관점 바꾸기, 감사하기, 비교하지 않기, 목표세우기, 음미하기, 몰입하기, 관계를 돈독히 하고 베풀며 용서하기 등 행복을 연습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체험을 직접 하는 활동은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여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이므로 학교급별로 단계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면 인성교육면에서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참여했던 학생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사소한 것에서도 생각을 바꾸어 행복해 하는 모습, 실제생활에서 도움이 되고 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통해 행복수업이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갈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자신과 남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미래 인재교육과 인성교육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의 등대 – 「인천교육」

기획특집 I,Ⅱ를 통해 학생들의 생활문화와 행복수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인천교육」은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고, 자신의 문제로만 생각하여 혼자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학습활동과 더불어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좋은 글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더욱 시원한 깊은 샘물 같은 「인천교육」으로 선생님들 곁에 다가가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갈뿐만 아니라 우리교육의 문제들을 살피고 해결방법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



나를 행동하게 하는 힘, 「인천교육」



인천논현고등학교 교사

변주란

소진(消盡), ‘번아웃(burn-out syndrome) 신드롬’ 앓이

‘번아웃(burn-out syndrome) 신드롬’, 빠르게 모든 것이 바뀌어 가는 우리사회에서 요즘 며칠째 메인 포탈 검색어 1위로 자리 잡고 있는 말이다.

나 역시 이 검색어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로 16년차 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언제부턴가 풀리지 않는 알쏭달쏭한 질문을 되뇌며 지낸다. 해가 거듭될수록 상상할 수 없이 많아지는 학교현장의 업무들, 그것이 교육활동이든 아니면 부수적인 잡무든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런데 나의 질문의 시작은 여기부터이다. 출근해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밤까지 항상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함에도, 할 일은 줄어들지 않았고, 심지어 조금씩 일이 누적되고 있다는 느낌! 이런 생활을 거듭하다 보니 몸과 마음의 에너지는 말 그대로 ‘burn-out’, 방전되고 소진되어 요즘 ‘무기력앓이’ 중이다. 그런데, 이런 무기력이 비단 나만의 개인적인 고민일까?

우리의 학교현장 역시 나와 똑같은 앓이를 하고 있는 듯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의 흐름에 맞추고자 늘 숨 가쁘고 벅차게 움직이고 있는 학교현장. 또 그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다채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실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고자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쉼 없이 앞으로만 질주하는 현재의 교육현장이 소중한 교육적 본질과 학생들의 미래가 담긴 교육의 희망을 잠시 잊게 만드는 건 아닌지, 그러한 희망의 부재가 우리 학교현장의 ‘번아웃 신드롬 앓이’를 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요즘 들어 더욱 깊어지는 고민이다.

채움,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행동하는 『인천교육』, 희망을 그리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현장에서 뜻을 함께하고 더불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또 고충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 하며 잠시 잊었던 교육의 거름을 가지고 희망을 다시 그리는 것이다. 『인천교육』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소리와 고민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 교육희망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는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 『인천교육』 49호(2013년 겨울호)도 힘든 올 1학기 동안 책상 한 편에 두고 닦

답할 때마다, 뜻을 같이하는 동지(同志)를 찾고 싶을 때 마다 읽었었던 소중한 책이다.

작년 겨울방학, 고3 입시 마감시기의 조그만 여유로움 속에서 『인천교육』 49호를 만났다.

‘위기의 아이들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할 것인가’, ‘학생 저마다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활동’, ‘인천, 사람과 문화’, ‘참여와 어울림’이라는 테마를 보면서, 학교현장에서 늘 고민스러웠던 것들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천교육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 간 갈등이 많은 중학교와 남녀공학 고등학교인 동양중, 동암중, 효성고, 안남고가 함께 운영한 ‘학생 갈등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또래조정 운영’에 대한 기사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한 학교와 한 부서에 국한시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기준의 생각들에 일침을 가했다. 지역의 여러 학교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창의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효율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초중등 학교 전반을 아우르는 일반화된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매뉴얼화가 이루어져서 공유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학생들의 특성을 존중하고 성적차이가 교육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을 통해 고교 하위권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학점은행제에 대한 안내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단순한 진학만이 목적이 아닌 사회에서 자신의 특성을 살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누구는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하지만, 흔들지지 않는 마음을 갖는 어른이 되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 참 힘든 일이란 생각이 든다. ‘가치 있는 흔들림, 그래, 다시 일어서자’라는 동수초 문아름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교육경력은 다르지만 늘 학교 현장에서 교실에서 학생들 앞에서 고민하는 마음 속 구석구석의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렇다. 흔들림 없는 어른이 되긴 힘들다. 그렇다면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그 흔들림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학교현장을 살찌우는 가치 있는 흔들림이라면, 맘껏 힘껏 흔들리면 살자는 결심을 공연한 마음 속 가득 채우게 하는 글이었다.

오래 전부터 읽고 싶었던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에 대

해 소개한 계산고 김범석 선생님의 글은 우리 학교교육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저자인 포스트먼은 미국 학교교육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네 가지 잘못된 것들을 교육이 경제적 가치와 기술지상주의의 수단화가 된 것에 두고 있다. 이런 교육은 당연히 무비판적인 현실 순응의 자세를 낳음으로써 상업주의 이데올로기에 학생들을 노출시키게 되는 위험성도 함께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미국교육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사회와 교육현실과 그리고 우리들의 고민과도 복제한 듯 닮아 있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포스트먼은 다섯 가지의 방법을 제시한다. 협력과 배려를 통한 인간성의 확립, 자신의 실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목적 설정, 토론과 논쟁의 가능성 보장, 다양성 인정에 대한 통합 교육,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른 언어교육 실시가 그것이다. 김범석 선생님께서 후미에 거론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해결 방법들은 우리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다. 경제중심주의, 지나친 소비지향, 기술 공학적 측면에의 경도, 분리주의와 같은 미국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포스트먼의 진단은 한국사회에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놓후하고 그러므로 교육목적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학교교육이 종말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가?, ‘더불어 함께’

“함께 한다는 것”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힘든 순간일수록 힘이 된다. 나에게 『인천교육』은 그런 존재이다. 나 혼자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의 나의 고민이 무가치 하지 않다는 것을. 힘들지만 고민하며 일궈가는 학교현장의 노력들이 올바른 것임을. 『인천교육』 49호를 읽으며 곳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진심어린 마음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또 더불어 손잡고 우리 교육의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



내 눈과 마음 속의 「인천교육」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조명철

내 눈 속의 인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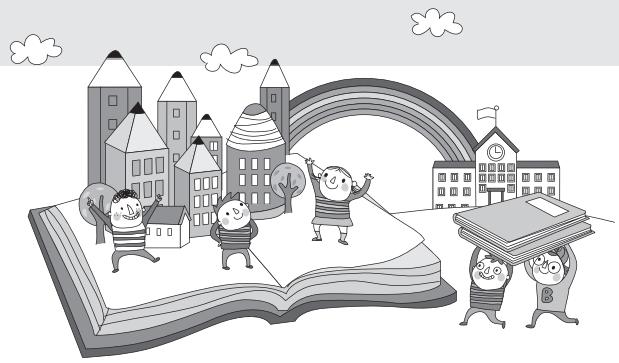
올해로 교직경력이 15년 정도 되었지만 『인천교육』이 눈에 들어온 건 불과 몇 년 전인 거 같다.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급담임, 보직교사로 생활하다보니 자기업무가 아니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아서일까? 어느 날 우연히 학교 진열장에서 발견한 이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난 호 교육시론 <한국교사의 학교생활·문화실태와 개선 방향>은 그 동안 내가 겪어온 학교현장의 변화를 잘 분석한 거 같아 마음에 와 닿았다.

2000년도에 발령받아 온 운봉공업고등학교(현 하이텍고등학교)는 겨울이 되면 난로가 있었는데, 선·후배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생활지도의 어려움 및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자연스럽게 동료감과 선배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메시지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선배가 후배교사에게 도움을 받아야하는 지식전달과정의 역전현상이 생기고 있다. 또한 업무의 전산화는 해야 할 일들을 더 많이, 빨라지게 만들었고, 수기로 서명 받던 시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공문에 노출되어 불필요한 정보까지 알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인 학생생활지도도 학생의 인권이 우선시되고, 자기중심적인 학부모들의 의식들로 인해 교육활동에 많은 제약을 종종 받게 된다. 학부모들도 다자녀가 아닌 한 명의 자녀를 소중히 키우다보니 학교에 믿고 맡기기 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

『인천교육 제49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어야 할지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야하는 교사의 본질과 바람직한 교사 문화 조성이라는 것이다.

맹자는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계시고 자녀, 형제가 무고하고 행복한 것, 하늘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리고 천하에서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을 3가지 즐거



움이라고 했다. 모든 교사가 천하에서 영재를 얻어 가르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아이들과 교학상장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즉, 교사의 본질인 수업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은 우리를 더욱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생생, 톡톡 교육활동 <한발 더 나아가는 ‘교원능력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는 수요자가 연수를 만들어가고 연수 장소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보니 만족도가 높은 거 같다. 하지만 읽다보니 맞춤형연수에 대한 행정적인 아쉬움이 생기게 되었다. 맞춤형 연수가 끝나면 이수증이 발급되는데 연수이수증을 분실한 경우, 교원인사기록카드에 연수와 관련하여 기재는 되어 있으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수이수증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도 맞춤형연수에 대한 이수기록이 없으므로 재발급을 받을 수가 없다. 이는 사설 연수기관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우 온라인으로 쉽게 연수이수증을 발급받는 시스템에 비교된다.

또한 [2014년도 교원연수중점추진방향(2013.11.14.교육부)]에 의하면 동일, 유사과정의 중복은 원칙적으로 2강좌 중 1강좌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교육연수원에서 강좌명이 동일 · 유사한 2강좌를 들었다면 개인이 해당 연수과정표 등을 통해 과목의 70%이상 다른 과정임을 증명해야만 2강좌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연수를 안 들을 것도 아닌데, 다소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인천교육연수원에서 맞춤형연수를 개설할 때, 그리고 수강신청을 받을 때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맞춤형 연수를 통해 교육수요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원이 연수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인천교육연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다.

내 마음 속의 인천교육...

생활지도나 바쁜 업무에 지쳐서 힘들 때, 예전처럼 퇴근길에 걸어가다가 만난 선배교사와 자연스럽게 술 한잔하는 분위기는 많이 없어진 거 같다. 나의 교직관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천교육』은 우리 인천교육의 미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획특집을 통해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의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접하면서 안 일한 내 마음속에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좋은 선생님인거 같다. ◎

편집 후기

인천용마초 김병수

언-아웃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은 저 멀리 경주로 여행을 떠난다. 20대 시절 출로 떠난 경주 배낭여행에서 만났던 개별의 가을바람과 안암지의 불은 노을을 만난다. 그 당시의 바람과 노을을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되돌아보는 것만으로 새로운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인천교육』 편지에 일을 하면서 해오면서 교육적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마음이 힘들 때 위로를 건네는 수많은 친구를 만났다. 위로와 용기를 준 편지들과 문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인천교육』은 또 하나의 가을바람이자 불은 노이다.



인천창신초 이주형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변화는 두려움을 주지만 이 변화가 그동안의 의문과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실마리가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다.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은 결코 변화할 수 없다. 이제는 변화의 주체로서 학생 앞에, 동료 앞에 서고 싶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하면서 느꼈던 한계를 동료들과 서로 등을 두드려 주며 함께 뛰어넘는 행복한 학교 현장에 『인천교육』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가작고 정선옥

교사가 된지 어느덧 9년차. 어느새 첫마음을 잊어버리고 바特朗하는 나를 발견했다. 마음이 어려운 아이들 앞에서 더 어렵고 작은 마음으로 서서 어찌할 바를 몰 때, 우연히 다가온 가뭄에 단비 같은 『인천교육』 편지가 기회.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두 함께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모든 교육 가족 식구들에게 『인천교육』을 추천한다. 책 안의 어디에선가 한 줄기 빛과 희망을 분명히 발견하고,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